

기량

WORKMANSHIP

의 예술

技术之艺术

技の芸術

THE ART OF

**인사말 歡迎詞 歡迎の辭 GREETING 6**

최봉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  
崔奉炫 韩国工艺设计文化振兴院 院长  
チェ・ボンヒョン 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院長  
CHOI Bong-hyun President of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전시서문 展覽寄語 展示序文 CURATORIAL ESSAY 10**

임미선 큐레이터  
林美善 策展人  
イム・ミソン 큐レーター  
RHEEM Mi-sun Curator

**전시작품 展覽作品 展示作品 EXHIBITS**

<b>PART 1</b>	자연 自然 自然 NATURE	<b>18</b>
<b>PART 2</b>	도전 挑战 挑戰 CHALLENGE	<b>52</b>
<b>PART 3</b>	시간 时间 時間 TIME	<b>86</b>
<b>PART 4</b>	코리안 아트 주얼리 韩国艺术首饰	<b>130</b>

코리아안아트주얼리 KOREAN ART JEWELTY

**논고 論考 論考 ARTICLE 200**

김진아 어시스트 큐레이터  
金眞兒 协助策展人  
킴・즈나 어시스트큐레이터  
KIM Jin-ah Assist Curator

**일러두기**

- 1 이 전시도록은 2018년 평창동계문화올림픽을 계기로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개최되었던 <한국공예전\_기량의 예술>전과 차기 동계 및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중국과 일본 그리고 홍콩에 위치한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2018 한중일 문화 삼국지'의 전시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 2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일어, 영어 순으로 수록하였다.
- 3 성명 및 명칭은 한국어 표기법을 따랐으며, 영문에서 성은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 4 작가 배열순서는 전시 구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 5 수록된 사진은 작가 및 소장처에서 제공받거나, 본 전시를 위해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였다.
- 6 작품크기의 단위는 mm이며, 가로(w), 세로(l), 높이(h), 또는 깊이(d)순이고, 지름은 Ø로 표기하였다.
- 7 작가 약력은 작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경력과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서술하였다.

**說定位**

- 1 本展示图册为纪念以2018平昌冬奥会为契机，自2018年2月8日起至3月18日为止在江陵奥运公园实地举办的<韩国工艺展\_技术之艺术>而发行，于展示开办后制作。
- 2 本图册上的文字按照韩语、汉语、日语、英语顺序标注。
- 3 姓名及名称按照韩语标注方法标注，英语当中的姓为大写。
- 4 创作者的排序遵循展示组成而分类。
- 5 所收录的照片由创作者或收藏处提供，使用了为本展示而拍摄的照片。
- 6 作品大小的单位为mm，标注顺序为横(w)、竖(l)、高(h)、深(d)，直径标为Ø。
- 7 创作者的简历以其提供资料为基础，添加其最近的经历及主要内容而撰写。

## 日々二人

1 本展示図録は、2018年平昌冬季文化オリンピックを機会に、2018年2月8日から3月18日まで江陵オリンピックパークのライブサイトで開催された<韓国工芸展―技の芸術>を記念するために発行されたものであり、展示開催後に製作された。

2 言語は、韓国語、中国語、日本語、英語の順で収録した。

3 氏名及び名称は韓国語表記法に従って表記し、名字の英語は大文字で表記した。

4 作家の配列順序は、展示構成に沿って分類した。

5 収録された写真は、作家及び所有先から提供された、又は本展示のために撮影した写真を使用した。

6 作品の大きさの単位はmmで、幅(w)、縦(l)、高さ(h)又は深さ(d)の順であり、直径はØで表記した。

7 作家の略歴は、作家が提供した資料に基づいて最近の経歴と主要内容を抜粋して記述した。

## Pointing

1 This exhibition catalogue was published after the exhibition in order to commemorate “Korea Craft Exhibition-The Art of Workmanship” which was held from February 8, 2018 to March 18, 2018 during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Winter Games at the Live Site in Gangneung Olympic Park.

2 The content was translated and listed in the order of Korean, Chinese, Japanese, and English.

3 The names follow the rules for the Korean notation, and the last names written in English is capitalized.

4 The artists' works were arrang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osition of the exhibition.

5 The photographs included in the catalogue were provided by the artist and the owner or were those which were photographed for the exhibition.

6 The unit for the size of work is mm, and it is listed in the order of width (w), length (l), height (h), or depth (d), and the diameter was indicated as Ø.

7 The artist's biography is based on the data provided by the artist and is based on his recent activities and achievements.

## 부록 附录 附錄 APPENDIX

### 전시공간 해설 展示空间 讲解 展示空間 解説 COMMENTARY FOR EXHIBITION SPACE 216

임태희 공간 디자이너

임태희 室内装饰 设计师

임·테히 인테리어디자이너

LIM Tae-hee Interior Designer

### 한국전통공예 개설 韩国传统工艺 概说 韩国传统工艺 概論

#### Introduction to Korean Traditional Crafts 226

한국전통공예의 소재와 기술

韩国传统工艺材料及技术

韓国传统工艺の素材と技術

Materials and Technology of Korean Traditional Craft

## 인사말

### <2018 한·중·일 문화삼국지 ‘한국공예전 - 기량의 예술’ 전시도록 발간사

최봉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

전 세계인이 선의의 경쟁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2018년 대한민국 평창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평창군과 강릉시, 정선군에서 개최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총 93개국에서 2,925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최고의 결과를 목표로 다듬어 온 각자의 기량을 선보이며 수많은 신기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된 ‘평창문화올림픽’은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공예전\_기량의 예술>은 자연·도전·시간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국 공예를 대표하는 24명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올림픽 정신과 맞닿아 있는 한국 공예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평창에서 펼쳐진 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2020년 일본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2022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차례로 개최됩니다. 한국에서 시작한 본 전시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3개국이자 문화적·역사적 연결 고리를 공유하는 관계성을 가진 한국·중국·일본에서 개최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화합을 기원하며 상호 문화 교류를 통한 폭넓은 이해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欢迎词

### <2018 韩·中·日文化三国志“韩国工艺展\_技术之艺术”展示图册发刊词

최봉현 韩国工艺设计文化振兴院 院长

2018年，全球人民展开友好竞争、以和谐为主旋律的冬奥会及残奥会于在大韩民国的平昌完美落下了帷幕。此次于2018年在大韩民国平昌郡、江陵市、旌善郡举办的平昌冬奥会上，共有来自九十三个国家的2925名选手参加，展示了各自为了取得最佳成绩而打磨的精湛技术，他们在创下新纪录的同时，也在众多观众心中留下了深刻印象。

为纪念这一盛事，我们特举办了“平昌文化奥运会”，体育与文化相融合，由此成为了向世界宣传韩国的过去、现在与未来的机会。<韩国工艺展\_技术之艺术>以自然·挑战·时间为核心词，展示二十四位代表韩国工艺的创作者的作品，期盼以此传达与奥运精神相符的韩国工艺历史及文化价值。

平昌奥运会已经落下了帷幕，但还有2020年日本东京夏季奥运会、2022年中国北京冬奥会在前方向我们挥手。此次由韩国开始的展会接下来会在同为东亚三国、共享文化·历史纽带的韩·中·举办，旨在增进东北亚的繁荣与和谐，更期待通过文化方面的交流实现彼此更加深入的了解。

## 歓迎の辞

### <2018年日中韓文化三国志「韓国工芸展—技の芸術」>展示図録 まえがき

チェ・ボンヒョン 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院長

世界中の人々が公平な競争と和合により1つとなる冬季オリンピックとパラリンピックが2018年に韓国平昌で行われ、成功裏に終わりました。韓国の平昌郡、江陵市、そして旌善郡で開催された2018年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は、93か国の国・地域から2925名の選手が参加しました。参加した選手は、最高の結果を目標に訓練してきた各自の技を披露し、数多くの新記録とともに、多くの人々の心に深い印象を残しました。

このような大会を記念するために設けられた「平昌文化オリンピック」は、スポーツと文化を一体化させたものであり、過去、現在、そして未来の韓国を世界に広く知らせる機会となりました。<韓国工芸展\_技の芸術>は、自然・挑戦・時間というキーワードを基に、韓国の工芸を代表する24名の作家の作品を通して、オリンピック精神と相接する韓国の工芸の歴史と文化的価値を伝え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平昌で開催されたオリンピックは幕を下ろしましたが、2020年には日本東京で夏季オリンピックが、2022年には中国北京で冬季オリンピックが開催されます。韓国から始まった今回の展示が、東アジアを代表する3か国であり、かつ文化・歴史のつながりを共有する関係性を有する日本・韓国・中国で開催されることで、北東アジアの繁栄と和合、そして互いの文化交流を通じた幅広い理解の場となることをお祈りいたします。

## GREETING

### <The Cultur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of Korea, China and Japan, “Korea Crafts-The Art of Workmanship”> Preface of the Exhibition Catalogue

Choi Bonghyeon Chair of the Korean Craft and Design Foundation

The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that united and enthralled the world through courageous competitions in good faith and harmony were successfully held in PyeongChang, Korea in 2018. A total of 2,925 athletes from 93 countries participated in a wide range of events held in PyeongChang-gun, Gangneung-si, and Jeongseon-gun, where they displayed the considerable skills and determination that they had developed to achieve the best possible outcome and set a number of new records, thereby leaving a strong impression on people all over world.

“The PyeongChang Cultural Olympics” held to celebrate the even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widely introduc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 by integrating sports and culture. With the three keywords—Nature, Challenge, Time—the exhibition entitled “Korea Crafts-The Art of Workmanship” aims to deliver the history and cultural values of Korean craft that are connected to the Olympic spirit by presenting artworks by 24 artists, who are representative of Korean craft.

Although the 2018 PyeongChang Olympic Winter Games inevitably came to an end, the 2020 Tokyo Olympic Summer Games and the 2022 Beijing Olympic Winter Games will be held one after the other. Through this exhibition that will take place in the three representative countries of East Asia—Korea, China, Japan— all of which share cultural and historical links, I hope that Northeast Asia will be able to achieve prosperity and harmony and will serve as a cultural hub that provides a broad understanding through cultural exchanges.

## 전시서문

## 실천하며 배우기

임미선 큐레이터

〈한국공예\_기량의 예술(Korea Crafts\_The Art of Workmanship)〉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평창문화올림픽'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특별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전시를 구성하는 두 중심축인 '스포츠(올림픽)'와 '한국공예'의 공유 가치에 방점을 두고 기획되었다. 신체의 반복적인 자기학습 과정을 통해 성취되는 **앎**, 다시 말해서 '암묵지(tacit knowledge)'는 차이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일상적 실천을 통해 체화(몸으로 학습)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기술의 산물로서 이를 구현하는 사람들의 '기량(workmanship)'으로 드러나며 때론 그 한계와 잠재성을 표출하는 지표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자연환경(소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오랜 기술 숙련의 시간, 그리고 실험(도전)정신, 여기에 발상과 응용력이 더해져 빛을 발하는 스포츠와 공예 분야에서의 '기량'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취급된다. 아마도 우리들이 올림픽 신기록과 장인들의 명품 등에 감동하는 주된 이유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온 인간의 무한한 도전정신과 그 속에서 창출되는 무형의 가치에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가, 존 듀이(John Dewy, 1859~1952)는 『경험으로서의 예술(Art as Experience)』(1934)에서 사물들과 과정들이 상호작용하는 순간을 '경험(Experience)'으로 정의하며 경험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듀이 교육 철학의 토대로서 '기술(skill)'이 문화적인 권위를 획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육 방법론인 '실천하며 배우기(Learning by doing)'는 기술 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번 전시의 주제이기도 하다.

전시는 자연, 도전,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도자, 금속, 목칠, 나전, 섬유공예 등 27명 작가들의 작품 23점을 선보인다. 특히, 한국의 전통 공예기술과 소재를 재해석한 현대공예가들의 아트주얼리 8점을 소개, 동시대 한국공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먼저 '자연' 파트에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지인 강원도의 산, 바다, 숲 등 청정한 자연환경을 작품의 주제 및 소재로 다루는 권대섭, 고해정, 김영옥, 이가진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도전' 파트에서는 아트퍼니처, 금태칠기, 멀티에어홀파이프, 아트오브제 등 기능과 형식, 표현에서 실험과 도전을 거듭해온 최병훈, 김현주, 홍성환, 구세나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그리고 '시간' 파트에서는 소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술

숙련에 있어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을 해 나가는 손대현, 정해조, 강금성, 이순재 그리고 정순주와 박인숙의 협업작품 등 나전, 칠기, 조각보, 지화, 자수 및 염색 작품 등을 전시한다.

〈전시 속 전시〉로 구성된 '아트주얼리' 파트에서는 옥(김재영), 완초(박순덕과 김연경의 협업), 모시(강미나), 말총(박예념) 등 전통적인 소재를 활용한 브로치를 선보인다. 이와 더불어 목 조각기법(정운복과 조성호의 협업)과 입사(김신영), 타출(김선영), 세선(임종석)기법 등 한국의 고유한 전통공예 기술을 전용한 브로치와 목걸이를 전시한다. 이는 오늘에 이어지고 있는 공예전통 안에 녹아진 역사의식과 창의적인 발상 및 태도, 즉 동시대 한국공예가들의 폭넓은 '기량'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나가야 하는 작가들과 선수들은 땀과 노력 그리고 궁극의 결과를 향한 열정과 의지를 자신들의 작품과 기록으로 표현한다. 특히, 기술력과 표현에서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공예는 축적된 기량과 높은 이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올림픽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전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이어 차기 동계 및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중국과 일본 그리고 홍콩에 위치한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중국-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한중일 문화 삼국지' 행사는 한국의 공예를 보다 널리 알리고, 이 전시를 계기로 동북아시아의 화합과 번영 그리고 경계를 넘나드는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지원하는 의미의 전시이다.

## 展览寄语

## 在实践中学习

林美善 策展人

<韩国工艺展\_技术之艺术(Korea Crafts\_The Art of Workmanship)>作为纪念“2018平昌冬奥会及残奥会”而举行的“平昌文化奥运会”活动的一环，是特别策划的展览会。

此次展览策划的焦点在于构成展览的两大支柱——“体育（奥运会）”与“（韩国）工艺”的共享价值上。通过身体的反复学习过程而得到的知识，即“隐性知识(tacit knowledge)”是凭借日常的重复实践而获得（通过身体进行学习）的经验、知识、技术的产物，拥有该知识的人自然拥有“技术(workmanship)”，有时也可以将其看为呈现其局限性与潜力的指标。

特别是在体育和工艺领域，要求创作者及运动选手对于自然环境（材料）有着深广的理解，并须是技术熟练多年的人，还须富有挑战精神、创意及应用能力，因此在这两个领域“技术”问题显得尤为重要。我们看到奥运会新纪录或匠人手中塑造出来的精品之后会觉得感动，而其主要原因也许在于，我们彻底了解人类一直以来为了取得最佳成果突破自我局限，并不断挑战，从而创造出来无形价值。

美国进步主义教育家约翰·杜威(John Dewey, 1859~1952)在『艺术即经验(Art as Experience)』(1934)中将物品与过程进行交互作用的瞬间定义为“经验(Experience)”，强调了经验的重要性。而教育方法论“在实践中学习(Learning by doing)”作为杜威教育哲学的基础，使“技能（skill）”在获得文化权威方面起到了重要作用，“在实践中学习(Learning by doing)”是理解技术教育价值与意义的重要概念，也是此次展览的主题。

展览的关键词为自然、挑战、时间，将展出陶瓷、金属、木漆、螺钿、纤维工艺方面二十四位创作者的21个作品。其中特别推出艺术首饰领域的八个作品，展现现代工艺家对于韩国传统工艺技术与材料的全新诠释，期待能够加深对当代韩国工艺历史及文化的理解。

首先是“自然”单元，将展出KWON Dae-sup、KO Hye-jeong、KIM Young-ock、LEE Ka-jin等创作者的作品，他们以2018平昌冬奥会及残奥会的举办地江原道的山、海、森林等清静自然环境为主题及素材，打造出自己的作品。“挑战”单元则展出CHOI Byung-hoon、KIM Hyun-ju、HONG Sung-hwan、GU Se-na等创作者的作品，他们在艺术家具、金服漆器、多重空气孔管、艺术品等功能、形式、表现方式方面不断尝试了全新的挑战。而“时间”单元展出的是SHON Dae-hyun、郑解朝、KANG Geum-

seong、LEE Soon-jae的作品及JEONG Soon-joo与PARK In-sook的合作作品等，该单元要求创作者对材料有着深度理解，同时也需要纯熟技术与漫长的作业时间，具体有漫长作业时间螺钿、漆器、拼布、纸花、刺绣及染色作品等。

“艺术首饰”单元是<展示之中的展示>环节，将展出利用玉(KIM Jae-young)、菟草(PARK Sun-doak与KIM Yeon-kyung合作)、苕麻(KANG Mi-na)、马尾(PARK Ye-nim)等传统材料做成的胸针。另外，还有单单采用木雕技法(JEONG Woon-bok与CHO Sung-ho合作)、入丝(KIM Shin-lyoung)、打出(KIM Sun-young)、累丝(LIM Jong-seok)技法等韩国固有的传统工艺技术而制作的胸针及项链。该单元旨在展示当代韩国工艺家的精湛“技术”，即延续到今日的工艺传统中所隐含的的历史意识、创意思维及态度。

无论是创作者还是运动选手，他们的共同点是这一切都须由自己亲身经历和面对，他们的作品及运动记录呈现的是汗水与努力、以及他们为最终结果所付出的热情和坚韧意志。韩国工艺在其技术实力及表现方式方面已经深获认可，其不断积累的技艺与所追求的至高目标与奥运精神一脉相通。

此次展览于“2018平昌冬奥会及残奥会”纪念活动结束后，还将在下届冬季及夏季奥运会举办地中国、日本及香港地区的海外韩国文化院举办。期待因奥运而结缘，在韩-中-日三国举办的此次“韩中日文化三国志”活动能够将韩国工艺广泛宣传出去，为东北亚的和平繁荣以及超越界限的持续的文化交流做出贡献。



## 展示まえがき

## 実践から学ぶ

### イム・ミソンキュレーター

<韓国工芸展\_技の芸術 (Korea Crafts\_The Art of Workmanship)>は、「2018年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及びパラリンピック」を記念するために設けられた「平昌文化オリンピック」行事の一環として企画された特別展示である。

今回の展示は、展示を構成する2つの中心軸である「スポーツ (オリンピック)」と「(韓国)工芸」の共有価値に重きを置いて企画された。身体の反復的な自己学習過程を通して得ることのできる知識、言い換えると、「暗黙知 (tacit knowledge)」は、差の繰り返しからなる日常の実践を通して体化 (体で学習) された経験と知識、そして技術の産物としてこれを具現する人たちの「技 (workmanship)」で表現され、ときには、その限界と潜在性を表出する指標として作用したりもする。

特に、自然環境 (素材) に関する幅広い理解と長年の技術の熟練時間、そして、実験 (挑戦) 精神、これに発想と応用力が加わって光を発するスポーツと、工芸分野での「技」の問題は、非常に重要な価値として取り扱われている。多分私たちがオリンピック新記録と匠の名品等に感動する主な理由は、最高の結果を得るために自身の限界を克服しようと着実に努力してきた人間の無限な挑戦精神と、その中から創出される無形の価値に共感しているからである。

米国の進歩主義の教育家、ジョン・デューイ (John Dewy, 1859~1952) は、『経験としての芸術 (Art as Experience)』 (1934) において、物と過程が相互作用する瞬間を「経験 (Experience)」と定義して、経験としての教育の重要性を披瀝したことがある。デューイの教育哲学に基づいて「技術 (skill)」が文化的な権威を獲得するのに重要な役割をしていた教育方法論である「実践から学ぶ (Learning by doing)」は、技術教育の価値と意味を理解するのに重要な概念であって、今回の展示の主題でもある。

展示は、自然、挑戦、時間というキーワードに基づいて陶器、金属、木漆、螺鈿、染織工芸等、24名の作家の作品21点を披露する。特に、韓国の伝統工芸技術と、素材を再解釈した現代工芸家のアートジュエリー8点を紹介し、同時代の韓国工芸の歴史と文化に関する理解に役に立つものとした。

まず、「自然」パートでは、2018年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及びパラリンピックの開催地である江原道の山、海、森等の清浄な自然環境を作品の主題及び素材として扱うクォン・デソプ、コ・ヘ

ジョン、キム・ヨンオク、イ・ガジン作家の作品を紹介する。「挑戦」パートでは、アートファニチャー、金胎漆器、マルチエアホールパイプ、アートオブジェ等の機能と形式、表現において、実験と挑戦を重ねてきたチェ・ビヨンフン、キム・ヒョンジュ、ホン・ソンファン、ク・セナ作家の作品を披露した。そして、「時間」パートでは、素材に関する深い理解と、技術の熟練において長い時間を要する作業をするソン・デヒョン、ジョンヘジヨ、カン・グムソン、イ・スンジェ、そして、ジョン・スンジュとパク・インスクの協業作品等、螺鈿、漆器、パッチワーク、紙花、刺繍及び染付け作品等を展示した。

<展示の中の展示>で構成された「アートジュアリー」パートでは、玉 (キム・ジェヨン)、イグザ (パク・スンドクとキム・ヨンギョンの協業)、麻 (カン・ミナ)、馬尾毛 (パク・イエニム) 等の伝統的な素材を活用したアプローチを披露した。これとともに、木彫りの技法 (ジョン・ウンボクとチョ・ソンホとの協業) と入糸 (キム・シンリョン)、打出 (キム・ソンヨン)、細線 (イム・ジョンソク) 技法等、韓国固有の伝統工芸技術によるアプローチとネックレスを展示した。これは、本日まで受け継がれている工芸伝統の中にとけ込んである歴史に対する意識と創意的な発想及び態度、すなわち、同時代の韓国工芸家の幅広い「技」を見せている。

全ての過程を自ら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作家と選手は、汗と努力、そして、究極の結果に向かう情熱と意思を自身の作品と記録で表現する。特に、技術力と表現において既にその優秀性が認められている韓国の工芸は、蓄積された技と高い理想を追求するという点でオリンピック精神とも相接している。

展示は、「2018年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及びパラリンピック」に続き、次の冬季及び夏季オリンピック開催地に選ばれた中国、日本、そして香港に位置する在外韓国文化院で開催される。オリンピックを機会に韓国-中国-日本で開かれる今回の「日韓中文化三国志」行事は、韓国の工芸をより広く広め、東北アジアの和合と繁栄、そして境界を行き来する持続的な文化交流を願うための展示である。

## CURATORIAL ESSAY

### Learning by Doing

RHEEM Mi-sun, Curator

“Korea Crafts\_The Art of Workmanship” is a special exhibition organized to celebrate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and Paralympic Winter Games as part of a series of “the PyeongChang Cultural Olympics” This exhibition is planned with an emphasis on shared values of the two axes: sports (Olympics) and (Korean) craft. Knowledge acquired by a repetitive physical self-learning process. In other words, “tacit knowledge” is revealed by the workmanship of people who embody it as an outcome of directly learned experiences, knowledge and skills through daily practices consisting of repetitions of differences, and sometimes serves as an indicator to display its limit and potentials.

Especially, an issue of “workmanship” in the areas of sports and crafts that outstand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environment (materials), a long time of mastering skills, the spirit of experimentation (challenge), combined with the ideas and practical abilities is considered a very important value. The main reason we are touched by the Olympic Games new records and masterpieces by artisans may lie in the fact that we empathize with the indefinite spirit of challenging of humans who have endlessly tried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self in order to achieve the best outcome and intangible values created in the process.

John Dewy (1859-1952), an American liberal educational reformer, argued for importance of experiential education, defining the moment when objects and processes interact as an “experience.” “Learning by doing,” an educational methodology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a skill to acquire a cultural authority as a foundation of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Dewy is a theme of this exhibition, at the same time, a critical concept to understand values and significances of education.

This exhibition shows 21 artworks by 24 artists in the areas of ceramics, metals, woodcraft, lacquerware inlaid with mother of pearl and others with the keywords of nature, challenge, and time. In particular, by introducing eight artworks of art jewelry by contemporary craftsmen who re-interpreted traditional Korean craft techniques and materials, the exhibition intends to help understand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Korean craft art.

First, in the “Nature” section, artworks by artists, Dae-sup Kwon, Hye-jeong Ko, Young-ock Kim, and Ka-jin Lee who deal with the clean and clear natural environment including the mountains, sea, forests of Gangwon Province, where the 2018 PyeongChang Olympic Winter Games and the Winter Paralympics

were held, as themes and subject matters are displayed. In the “Challenge” section, artworks as art furniture, lacquerware with metal, multi-air hole pipes, art-objet are presented by the artists Byung-hoon Choi, Hyun-ju Kim, Sung-hwan Hong, and Se-na Gu, who have repeated experiments and challenges in functions, forms, and expressions.) In the “Time” section, artworks by the artists, Dae-hyun Shon, Hae-cho Chung, Geum-seong Kang, Soon-jae Lee, and collaboration between Soon-joo Jeong and In-sook Park, who have worked on the projects that require a long time of process to fully understand materials and master techniques, are displayed in the forms of mother of pearl, lacquerware, quilts, traditional Korean paper art, embroidering, and dyeing.

In the section of “Art Jewelry as a segment exhibition in <The Art of Workmanship> brooches made of traditional materials such as jade (Jae-young Kim), rush (collaboration between Sun-doak Park and Yeon-kyung Kim), ramie fabric (Mi-na Kang), and horsehair (Ye-nim Park) are presented. Besides, brooches and necklaces that adopt traditional Korean craft techniques such as wood carving (Woon-bok Jeong and Sung-ho Cho), metal inlay (Shin-lyoung Kim), a beating technique (Sun-young Kim), and a technique for filigree (Jong-seok Lim) are displayed. This is to aim to show the historical awareness and creative ideas and an attitude imbued in traditional craft that has been passed on to today, that is, broad “workmanship” of contemporary Korean craft artists.

Artists and athletes who have to go through every process by themselves express their sweat, effort, and enthusiasm and willingness for the ultimate outcome in their artworks and records. Especially, Korean crafts of which the excellences in techniques and expression have been appreciated are connected to the spirit of the Olympic Games in that both pursue persistently developed workmanship and high idea.

The exhibition is to be held in China and Japan, where are designated as the host countries of the next Summer and Winter Olympic Games following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and Paralympic Winter Games, and at Korean Cultural Centers in Hongkong. With a momentum of the Olympic Games, the events of “the Cultur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to be held in Korea, China, and Japan are this exhibition expected to assume significance to introduce Korean craft art as well as implication to wish for harmony, prosperity, and consistent cultural exchanges crossing over borders.

# 1

PART

자연

自然

自然

Nature

사계절이 반복되는 한국의 기후는 산수의 자연을 즐기는 문화를 발달시켰고, 자연을 아끼고, 자연과 나를 동일시하며, 자연적 관조를 존중하는 태도를 키워냈다. 이러한 자연존중 사상 아래 한국의 공예는 전통적으로 자연을 모방하거나 자연의 상태 그대로를 표현하며 자연환경이 주는 다양성에 의한 독자성을 획득하여 왔다.

四季周而往复的季节使韩国形成了享受山水风光的文化，以及珍爱大自然、尊重自然原貌，将大自然看得与自身一样宝贵的态度。在这种尊重大自然的思想之下，传统上，韩国的工艺就在模仿大自然、呈现大自然状态原貌的同时拥有了由多样的自然环境而来的独创性。

四つの季節が繰り返される韓国の気候は、山水の自然を楽しむ文化を発達させ、自然を惜しみ、自然と自分を同一視して、自然的觀照を尊重する見方を育てている。このような自然尊重思想の下、韓国の工芸は、代々自然を模範にしたり、自然状態そのままを表現して、自然環境が与える多様性による独自性を獲得してきた。

The climate of Korea shaped by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four seasons has fostered a culture to absorb the landscapes of nature and developed an attitude that always appreciates nature, identifies nature with oneself and respects meditation in nature. Based on this background of respecting nature, Korean craftworks have traditionally imitated nature or expressed it as it is, thus acquiring the individuality created by the diversity of nature.

〈백자대호(White Porcelain Jar)〉는 흰 바탕색에 동근 형태를 하고 있어 '달항아리'로 불리는 백자 항아리이다. 작가는 두 개의 큰 사발을 이어 붙이는 제작과정에서 오는 형태의 불균형을 당당함과 높은 자존감으로 느껴 지도록 지극히 단순한 백색을 추구한다. 달항아리는 근대 이후 미술사학자인 최순우(1916~1984)의 수필이나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라 불리는 김환기(1913~1974)의 그림 등에서 매력적인 소재로 다뤄지는데, 그들이 각자의 형식으로 담아낸 내용은 조선백자 그 자체 보다는 달항아리로 상징되는 한국적 이미지와 정서이다. 권대섭은 관요 가마터에서 찾아낸 수백 개의 백자 파편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그의 도자기가 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추구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는다. 그리고 높은 추상성과 서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순수한 조형요소로써 간결하고 비정형적인 형태를 취한 것이다. 작가는 이 모더니즘적이고 추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연의 세계와 그 생성 원리에 대해 보다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白瓷大壺(White Porcelain Jar)>在白色的底色上诠释出圆圆的形状，是被称为“月亮缸”的白瓷缸。创作者追求使用纯白色，以便让人看在将两个大碗连到一起的制作过程中发生的“形状的不均衡”能感到大气与极高的自我形象。在近代之后的美术史学者CHOI Soon-woo(1916~1984)的散文和韩国抽象美术先驱KIM Hwuan-gi(1913~1974)的画中，月亮缸都被用作作为充满魅力的素材，他们用各自的方式所诠释的并非单纯的朝鲜白瓷，而是月亮缸所象征的韩国传统形象及情调。KWON Dae-sup对从官窑旧址中找出的数百个白瓷碎片进行研究分析，从中认识到了他的陶瓷为何更应追求普遍而根本的价值。而且，他采用了简洁而不规则的形状，以纯粹的造形要素表达出抽象性及抒情形象。创作者通过这种现代而抽象的方式，对于自然世界及其形成原理进行了更加直观而感性的深入。

<白磁大壺(White Porcelain Jar)>は、白をベースに丸い形態を有しており、「月壺 (Moon Jar) 」と呼ばれる白磁壺である。作家は、二つの大きな陶器鉢を組合せる制作過程において、仕上げの不均等さを、壮大に、そして気品に感じることができるよう極めて単純な白色を追求した。月壺は、近代以降の美術史学者であるチェ・スンウ（崔淳雨：1916～1984）のエッセイや、韓国抽象美術の先駆者と呼ばれるキム・ファンギ（金煥基：1913～1974）の絵等において魅力的な素材として扱われ、彼らは、各自のやり方で、朝鮮白磁そのものより、月壺として象徴される韓国的なイメージと情緒を込めた。クォン・デソプは、官窯の窯跡で見つけた数百個の白磁の破片に関する研究と分析を通して、彼の陶磁器が、より基本に忠実で普遍的なものを追求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を探した。また、高い抽象性と情緒的なイメージを表現する純粋な造形要素として、簡潔、かつ、非定型的な形態を選択した。作家は、このモダニズム的、かつ、抽象的な方法を通して、自然の世界とその生成原理について、より直観的、かつ、感情的に接近した。

< White Porcelain Jar > is also known as the “moon jar” due to its white color and round shape. In order to turn imbalance coming from a production process of connecting two large bowls to confidence and high self-esteem, the artist pursues extremely simple, pure white. The moon jar is adopted as an enticing subject matter in essays of Sunwu Choi (1916-1984), an art historian, or paintings of Whanki Kim (1913-1974), a painter known as a pioneer of the abstract art of Korea, after the modern time period. What they depicted in their own styles is a Korean image and emotions symbolized by the moon jar rather than white porcelains of the Joseon dynasty themselves.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f hundreds of shards of white porcelains found at the site of the royal kiln, Kwon finds reasons why his ceramics pursue what is more fundamental and universal. And he takes on an atypical shape as an element of plastic art to express high abstractness and a lyrical image. By taking this modernist and abstract method, he approaches the world of nature and its principles of formation with a more instinctive and emotional way.

백자대호  
항아리, 2017  
자기토  
Φ500x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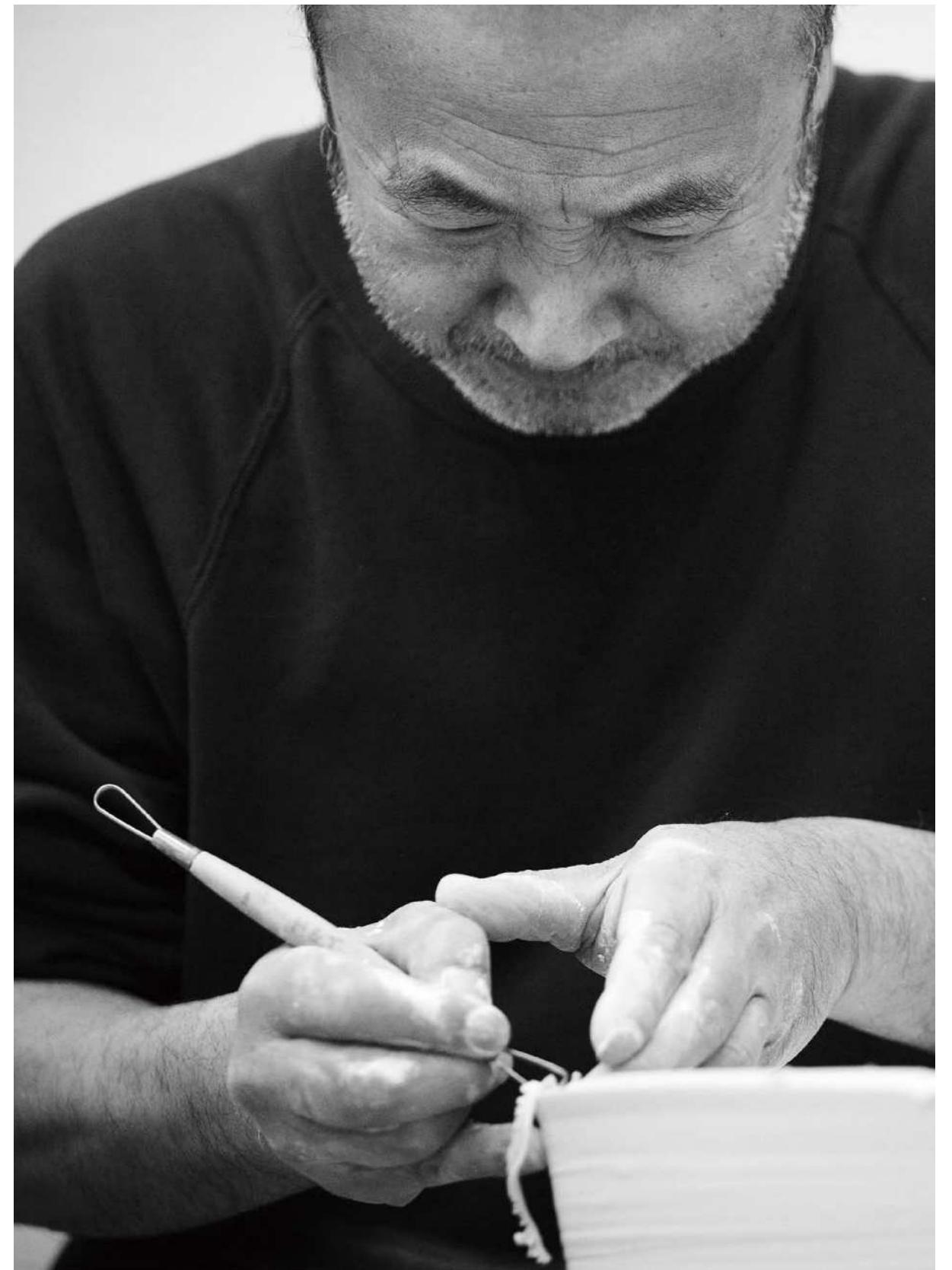
White Porcelain Jar  
Jar, 2017  
white porcelain  
Φ500x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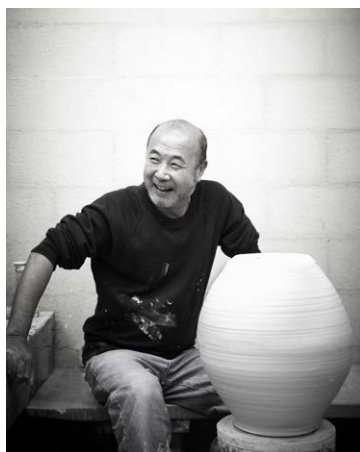
흰색과 백색은 다른 색이죠. 동양화가들이 쓰는 먹색이 검은색과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백자의 색깔을 들여다 보면 그 다양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사람의 손이 아닌 불(火)이 만드는 형태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구우면서 형태가 조금씩 변형이 되는 거죠. 나는 지금의 시대에 맞게 나름의 해석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해석을 하고 정교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가마 속에서 불에 의해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 알 수 없는 결과를 위해 저는 불의 온도와 결과를 철저히 계산하여 장작을 집어넣습니다. 대가 없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在世上无法存在完全相同的白色，就好比东洋画家常用的墨色与黑色不同一样。仔细观看白瓷的颜色，就可以发现其色彩的多样性超越想象。其形状并非由人的双手塑造而成，而是火所烧造出来的形状，即使做得再精巧，在烧烤的过程当中也会发生变形。我能做的就是按照当今时代的特点作出相应的诠释，而我即使用心诠释，想要制作得精巧，但将其放入窑中后，其形状还是会因火儿发生变化。结果是我们无法预料的，但为了能够实现最好的结果，我精确计算火的温度和结果，并根据计算结果放入相应的柴火，不付出代价，又怎么能期待好的结果呢？

「東洋画家が使う墨色が黒色とは異なるように、ホワイトと白色は異なる色です。白磁の色をみると、その多様さが想像を超えます。また、人の手ではなく火が作り出す形態ですので、どんなに精工に作っても、焼くと形態が少しずつ変形します。私は、今の時代に合わせて自分なりの解釈をするだけです。しかし、私が再解釈して精工に作ったとしても、釜の中では、火により形態が変形します。この予想もつかない結果のために私は、火の温度と、結果を徹底的に計算して、薪を焚いていきます。代価のない結果を期待することはできないからです。」

White as a color and white in a white porcelain jar are different as black created by an ink stick used by painters of Eastern painting and black as a color are different. When you look at the color of the white porcelains, diversity of it is beyond imagination. It takes on a shape made not by the hands of men, but by fire. However delicate it is formed, the shape is transformed little by little while being baked. I only interpret it in my own way in tune with the times. Yet, no matter how differently I interpret it or no matter how delicately I make it, its shape is changed by fire in the kiln. For this unpredictable result, I put firewood into the kiln after thoroughly calculating temperature of fire and its result. You cannot expect an outcome without expense.





1953년 대전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조선 도공들의 도자제작 기술을 수련한 권대섭은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인 선과 색감으로 강한 상징성을 지닌 달항아리를 제작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도예가이다. 1995년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도쿄, 뉴욕 등에서 다수의 달항아리를 선보였다. 권대섭의 작품은 2013년 밀라노 가구박람회 특별전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2015년 파리장식미술관에서 개최된 한불수교기념 한국공예전 <코리아 나우> 등 한국 공예를 세계에 알리는 전시에 주요 작품으로 소개되었으며, 대영박물관, 러시아 국립박물관, 멕시코 국립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KWON Dae-sup 1953年生于大田，是韩国代表性的现代陶艺家，毕业于弘益大学绘画系，并在日本培训了朝鲜陶瓷匠的陶瓷制作技术，使用单纯而有感觉的线条及色彩，制作出富有象征性的月亮缸。1995年在首个个人展上展示了月亮缸，之后在东京、纽约等地的展会上数次展示月亮缸。KWON Dae-sup的作品在2013年米兰家具博览会特别展<韩国工艺的法古创新>、2015年巴黎装饰美术馆里举办的韩法建交纪念韩国工艺展<Korea Now!>上均作为向全球展现韩国工艺的作品展出，并收藏于大英博物馆、俄罗斯国立博物馆、墨西哥国立博物馆。

1953年に大田で生まれ、弘益大学校絵画科卒業後、日本で朝鮮陶工の作陶技術を学んだクォン・デソプは、単純で感覚的な線と色感で強い象徴性を有する月壺を制作する韓国の代表的な陶芸家である。1995年に初の個人展を始めに、東京、ニューヨーク等で多数の月壺を披露した。クォン・デソプの作品は、2013年のミラノ家具博覧会特別展<韓国工芸の法古創新>、2015年のパリ装飾芸術美術館にて開催された韓仏交流記念、韓国工芸展<코리아 ナウ！>等、韓国工芸を世界に広める展示に主要作品として紹介された。大英博物館、ロシア国立博物館、メキシコ国立博物館等が所有している。



KWON Dae-sup, who makes 'Moon Jar' White Porcelain Jars, was born in Daejeon in 1953 and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majoring in painting. Kwon, who used to paint pictures with strong minimalistic features, started working on ceramics after coincidentally coming across 'Moon Jar' and becoming fascinated by the Moon Jars. He traveled to Japan to learn for 5 years the pottery techniques of the Joseon potters that were being passed down in Japan since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16th century. After returning to Korea, Kwon set up a studio in Gwangju, Gyeonggi-do, where there were royal kilns of the Joseon Dynasty(1392-1910), and studied white porcelain. With the start of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1995, Kwon showcased Moon Jars with curves and colors that were simple yet beautiful in Tokyo, New York and others. Kwon's Moon Jars were introduced in many exhibitions that showcases Korean craft to the world, including the <Constancy and Change in Korean Traditional Craft>, a special exhibition held at the Salone del Mobile, Milano in 2013 and the Korean crafts exhibition <Korea Now!> that was held in Museum of Decorative Arts in Paris in commemoration of the Korea-Franc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2015. His works are collected by The British Museum, The State Russian Museum, and National Art's Museum in Mexico. Kwon currently works mainly in Seoul and Busan. He is an outstanding contemporary potter in Korea, attracting the attention of the world with invitations to many special exhibitions that are held in the U.S., the UK, France and Italy.

**백자대호**  
항아리, 2015  
자기토  
Φ480x480

**White Porcelain Jar**  
Jar, 2015  
White porcelain  
Φ480x480

이  
가  
진  
李嘉珍 イ・ガジン LEE Kajin

〈물방울(Waterdrop)〉은 물방울 모양을 형상화한 청자 화병이다. 작가는 청자가 지닌 고유한 물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유약의 색과 두께에 의한 효과에 집중하였고, 이 물성을 극대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유선형의 물방울을 선택하였다. 이 작품은 높은 기술적 수준에 다다랐던 고려청자의 제작기법을 바탕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태토(胎土)와 형태, 유약의 성분, 시유의 방법과 횟수에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물방울이 가진 특징을 잘 포착하고 대상을 표현하였다. 자연의 한 장면을 보는 듯 자연스럽게 친근한 〈물방울(Waterdrop)〉의 이미지는 유약의 효과에 의한 물질감과 크고 작은 유선 형태의 군집적 배열로 극대화된다. 작가는 청자가 지닌 물성의 표현을 넘어 비물질적 물질로 재현함으로써 공예가 보여줄 수 있는 현대성을 제시한다.







<水珠(Waterdrop)>是为水珠赋予了形象的青瓷花瓶。创作者为了表现出青瓷所独有的物质感，专注于釉料的颜色和厚度所产生的效果，并选择流线型的水珠，塑造出将物性提升至最大化的形状。该作品是采用技术水平达到顶峰时的高丽青瓷制作技法而制成的，在其中给胎土的形状、釉料的成分、釉工的方法及次数赋予新的变化，捕捉到了水珠的特点，以此完美地诠释出了所要表达的对象。<水珠(Waterdrop)>好比大自然的一个场面，给人带来自如而亲近的感觉，釉料效果所带来的物质感与大小流线形状分布将水珠形象完美诠释出来。创作者不但表达出了青瓷的物性，更是将非物质再现为物质，体现了工艺所能彰显的现代风采。

<水滴(Waterdrop)>は、水滴模様を有する青磁花瓶である。作家は、青磁が有する固有の物質感を表現するために、釉薬の色及び厚さによる効果に重点を置き、この物性を極大化にして表現することのできる形態として流線形の水滴を選択した。本作品は、高い技術水準を極めた高麗青磁の製作技法に基づいて制作された。この技法の中でも、胎土や形態、釉薬の成分、施釉の方法と回数に変化を与えることに挑戦し、水滴が有する特徴をよく補足して、表現した。自然の一場面を見るように、自然で親近感のある<水滴(Waterdrop)>のイメージは、釉薬の効果による物質感と大小の流線形の群集的な配列をもって極大化した。作家は、青磁が有する物性の表現を超えて、非物質を物質として再現することで、工芸により表現できる現代性を提示した。

<Waterdrop> is a series of celadon vase embodying a shape of a water drop. To express a physical property unique to celadon, the artist focused on an effect created by the color and thickness of glaze. The artist selected a water drop in a streamlined shape to display a shape that can maximize such physical property. This work is based on production techniques of Goryeo celadon of which the technical level reached highest point. By varying kaolin, shapes, makeup of the glaze, and the methods and number of glazing, Lee captured characteristics of a water drop and expressed the subject matter. A natural and familiar image of Waterdrop reminiscent of a scene of nature is magnified by the physical property due to the effect of the glaze and arrangement of vases following a streamlined line with variations. The artist implies modernist quality of crafts by representing a non-material property of materials beyond a physical property of celadon.

**물방울**  
화병, 2018  
자기토, 청자유  
Φ120x150 etc.

**Waterdrop**  
Vase, 2018  
white porcelain , celadon glaze  
Φ120x150 etc.

평창의 겨울이 주는 맑은 느낌과 선수들이 기량을 연마하기 위해 흘리는 땀방울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함께 담아 맺혀서 떨어지고 있는 듯한 물방울의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대에 따라 천 가지의 표정으로 변주되어 온 소재의 클래식함이 청자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나는 작업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 고민하고 중심축을 지키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작품을 변주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해진 가치와 쓸모에 따라 사물과 세상을 보는 방식보다 있는 그대로 잠시 멈추어 대상을 바라보고 나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사소하게 감탄할 수 있는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我想要诠释的是宛如落下的水珠一般的形象，由此想表达出平昌冬日给人带来的清澈感，为了锻炼自己而流淌汗水的选手表示尊敬。随着时代的推移变幻出数千种表情，这可谓是青瓷的最大魅力。我在进行这项工艺时仔细考虑了什么是最重要的，为了在遵守中心轴的同时用各种形式演绎出作品来而费尽了心思。有的时候，与其按照固定的价值与用途来观看物品和世界，倒不如收起这种方式，观看任何事物时由自己的方式发现其中独有的美，为一点点微小的特点发出感叹。

「平昌（ピョンチャン）の冬の澄んだ感じと、選手たちが腕を磨くために流してきた汗に尊敬の意を込めて、しずくのような水滴のイメージを具現したく制作しました。青磁の最も大きな魅力は、時代によって千種類もの表情に変奏されてきた素材のクラシックさを感じさせるところです。私は、作業で何が最も重要であるかを悩み、中心軸を固守すると共に、多様な形式で作品を変奏できるよう努めてきました。しかし、時には、定められた価値や使用価値で作品や世の中を見るよりも、作品そのままを少しの間じっくり見ていただき、自分なりの美しさを発見し、少しでも感動できる喜びも感じていただく必要もあると考えます。」

To deliver clear image of the winter of PyeongChang and my respect for athletes dripping sweat to develop their abilities, I intended to embody an image of water drop as if sweat were to form and drop. What is the most fascinating about celadon is a classical characteristic of materials that have showed a thousand of variation. I think over w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in the work, maintain balance, and try to make changes in a various forms. However, pleasure to stop and look at an object for a moment, find the beauty that only I can find out from it, and feel small wonder is sometimes necessary rather than to look at the objects and the world in the defined values and their usefulness.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가진은 청자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한국 도자공예의 전통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젊은 도자 공예가이다.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하였다. 재료의 물성에 대한 집요한 연구를 통해 2013년 첫 개인전에서 동시대의 기술 수준과 감성에 호소하는 현대청자를 발표했다. 2015년 프랑스 생테띠엔 비엔날레, 밀라노 트리엔날레 <Korea's Fantasma>, 2016년 독일 뮌헨의 바이에른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된 <한국공예디자인전>, 2017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예술공예 비엔날레 <헤빌라시옹>에 '물방울' 시리즈를 출품하였으며, 경기도 여주에서 개최된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기념\_살을 기리다> 전에 참여하였다. 파엔차 국제도자박물관 및 경기도 세계도자박물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LEE Ka-jin 1985年生于首尔，是一位年轻的陶瓷工艺家，她通过对青瓷作出现代的诠释，以此更新了韩国陶瓷工艺的传统。她曾在首尔大学就读本科及研究生院，学习陶艺。通过对于材料物性进行执着不懈的研究，2013年在其首个个人展上发布了体现当代技术水平及感性的现代青瓷。在2015年法国圣艾蒂安双年展及米兰三年展 <Korea's Fantasma>上，以及2016年于德国慕尼黑的拜恩国立博物馆举行的<韩国工艺设计展>，2017年于法国巴黎举办的艺术工艺双年展<Révélations>上推出了“水滴”系列，另外还参加了2017年京畿世界陶瓷双年展<纪念\_颂扬生命>展。其作品收藏于法恩扎国际陶瓷博物馆及京畿道世界陶瓷博物馆。

1985年にソウルで生まれたイ・ガジンは、青磁の現代解釈を通して、韓国の陶磁器工芸を新たに創造している若い陶磁器工芸家である。ソウル大学校及びソウル大学校大学院で陶芸を専攻した。材料の物性に対する執念深い研究を通して、2013年の初めての個人展で同時代の技術水準と感性に願いを求める現代の青磁を発表した。2015年にフランスのサンテティエンヌビエンナーレ、ミラノのトリエンナーレ<Korea's Fantasma>、2016年にドイツミュンヘンのバイエルン国立博物館で開催された<韓国工芸デザイン展>、2017年には、フランスのパリで開催された芸術工芸ビエンナーレ<ヘビーラシオン>に「水滴」シリーズを出展し、京畿道驪州市で開催された2017年京畿世界陶磁器ビエンナーレ<記念\_生活に称賛を>展に参加した。ファエンツァ国際陶磁器博物館及び京畿道世界陶磁器博物館が作品を所有している。



**물방울**

화병, 2017  
자기토, 청자유  
Φ415x315

**Waterdrop**

Vase, 2017  
White porcelain, celadon glaze  
Φ415x315

LEE Ka-jin, who re-interprets the making process and glaze color of traditional celadons to recreate them into contemporary celadons, was born in Seoul in 1985 and studied cera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of SNU. Through her dedication to research on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s, Lee released contemporary celadons that appeal to the contemporary technology and sentiment at her first solo exhibition in 2013. Lee released her works in Biennale International Design Saint-Etienne in France in 2015, Triennale di Milano <Korea's Fantasma>, <Korean Crafts & Design Exhibition> held at the Bayerisches Nationalmuseum in Munich, Germany in 2016, the fine craft and creation fair <Révélations> in Paris in 2017 and participated in Gyeonggi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17 <Pray\_Cherishing Life> that was held in Yeosu, Gyeonggi-do. Lee's works are held at International Museum of Ceramics Faenza and Gyeonggi Ceramic Museum as collections. Lee is a young ceramics craftsman, who is newly creating a tradition of Korea's ceramics craft through modern interpretation of celadon.



고  
해  
정  
KO Hye-jeong

〈숲:침(For-rest)〉은 소나무 아래 소복이 쌓여 있는 솔잎의 형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한 은 접시이다. 작가는 강원도의 울창한 소나무 숲과 자연에서의 휴식을 상상하며 새의 보금자리인 둥지처럼 오목한 형태의 접시를 만들고, 이슬 방울같은 작은 은구슬들을 섬세하게 붙여 장식성을 더했다. 예민하고 순수한 재료인 은은 그 작업과정 역시 세심함을 요구한다. 또한 고유한 색과 순백의 아름다움을 함께 지니고 있고 은기는 예부터 왕실이나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던 식기로 귀하게 여겨졌다. 작가는 이 섬세한 재료에 아주 오랜 시간의 노동과 집중력을 투입하여 작은 유닛의 집합에 의한 집적미를 창조한다. 이렇게 이어진 작품의 선과 구조는 다양한 음영을 지니며 오히려 더 가볍고 우아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자연의 세밀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이 작품에는 최고의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자신을 갈고 닦아온 올림픽 선수들에게 바치는 귀한 대접의 의미도 함께 담겨있다.



<森林：休息 (For-rest)> 是由松树下积压着皑皑白雪的松针形状中得着灵感，因而创作而成的银碟子。创作者想象着在江原道郁郁葱葱的松树林与大自然中享受休息的场景，制作了宛如鸟巢一般性状的凹形碟子，并细腻地加上了露珠大小的银珠子，增强了装饰性。银是敏感而纯粹的材料，因此对其制作过程也要求格外细腻。银器拥有其固有颜色和纯白色相交织的美丽，自古以来就用作王室及贵族家门的餐具，因此人们视其为贵重器具。在这个细腻的材料上，创作者付出了长时间的劳累与专注力，由此打造出一个个小小的单元相连接而诠释出的密集美。如此打造而成的作品线条及结构拥有各种阴影，并且创造出了更加轻薄优雅的结晶。该作品蕴含着大自然的细腻之美，献给为了这一瞬间而准备多时的奥运选手，旨在表达向他们送上精心招待之意。

<森：安らぎ (For-rest)> は、松の木の下に積もっている松の葉からアイデアを得て制作した銀の器である。作家は、江原道の鬱蒼たる松の木と自然の安らぎを想像し、新たな安息の場所である住まいのように、凹んだ形態の器を作り、露のしずくのような小さい銀玉をきめ細かく描いて装飾した。繊細で純粋な材料である銀は、その作業過程もまた、細かい配慮が求められる。また、固有の色と純白の美しさを共に有している銀の器は、昔から王室や貴族の中で主に使用されていた器であり、貴重なものとして用いられていた。作家は、この繊細な材料に、非常に長い時間の間、労力と集中力を投入して、小さいユニットの集まりによる美を創造した。このような作品の線と構造は、多様な陰影を有しており、寧ろ、軽くて優雅な結果物を作り出した。自然の細かな美しさを秘めている本作品には、最高の瞬間のために長い時間をかけて実力を磨いてきたオリンピック選手に捧げる貴重なおもてなしの意味も込めている

<For-rest> is a silver plate inspired by the form of pine needles neatly piled up under the pine tree. The artist created a concave plate reminding viewers of a bird's nest by imagining the rest in nature and a thick forest of pine trees of Gangwon Province and increased decorative features by carefully attaching small silver beads. Silver, a delicate and pure material, requires delicacy in the work process. It also has a unique color and beauty of pure white; silverware has been regarded as precious tableware mainly used by the royal families and aristocrats. By investing labor and concentration for a very long time into such delicate material, the artist embodies the beauty of accumulation created by gathering of small units. The connected lines and structure of this work cast a variety of shadow and produce a rather lighter and more elegant outcome. This work with such exquisite beauty of nature also conveys a meaning of special treatment to Olympic athletes who have made effort to improve themselves for a long time to reach the best moment of the life.

会：심  
그릇(접시), 2018  
정은  
750×2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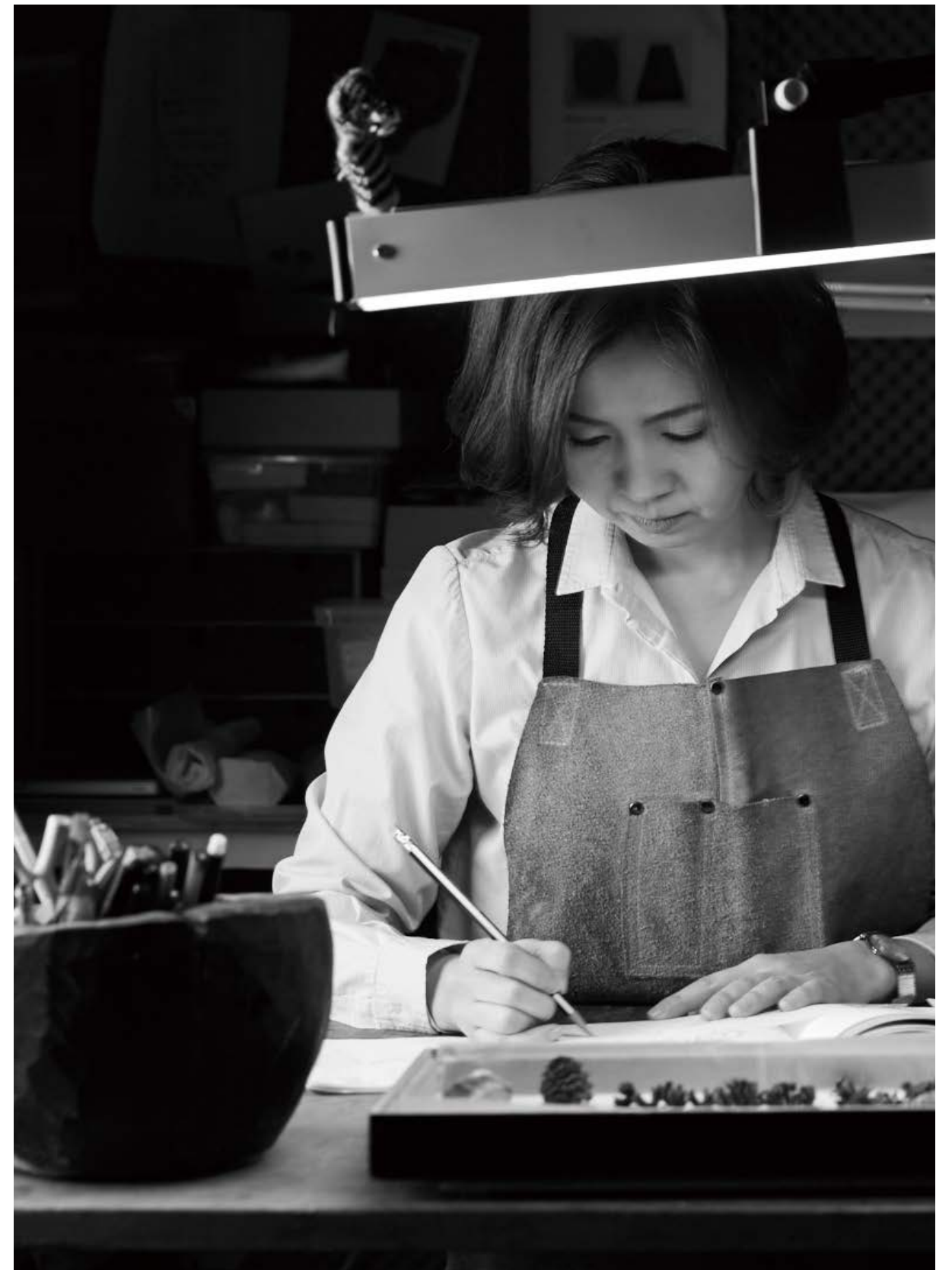
For-rest  
Dish, 2018  
sterling silver  
750×200×100

'강원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나무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휴식이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가듯, 자연의 온기를 담은 나의 작품을 관람하고, 공예품을 사용하는 심미적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예술을 통해서 상처도 치유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도 하니까요.

提到'江原道', 我最先想表达的就是松树。就像人们需要休息的时候会去探寻大自然同样, 我希望在作品中融入大自然的温度, 人们观赏我的作品后能够积累对工艺品的审美经历, 由此探寻更美好的生活。因为'艺术'可以使人的痛苦得到治愈, 生活的质量也有所提高。

「『江原道 (カンウオンド) 』と言われれば、まず最初に思い浮かぶ、松の木を表現したく制作しました。多くの人たちが安らぎを求めるとき、自然を探るように、自然の温もりを込めた私の作品を観覧していただき、工芸品の美的感覚を通してよりよい生き方を探してみたいかがでしょうか。人は、芸術を通して心の傷を癒し、生活の質を高めたりもするからです。

I intended to express pine trees which first come across the minds of people when they think of Gangwon Province. As people go to nature when they need rest, I wish people to find a better life by viewing my works that contain warmth of nature and by having aesthetic experiences of using crafts. That is because art can heal the wounds of people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1975년 제주에서 태어나 산과 오름, 계곡과 바다로 둘러 쌓인 자연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고혜정은 자연물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찾아낸 반복적인 패턴을 이용한 은기 및 장신구를 제작하는 금속공예가이다. 경기대학교와 미국 로체스터 대학원에서 금속 및 장신구 디자인을 공부하였으며, 네 번의 개인전을 통해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섬세하면서도 서정적인 은기와 장신구들을 제작, 발표하였다. 2012년 프랑스 <메종 오브제>와 2013년 프랑스 예술공예 비엔날레 <헤빌라시옹>, 2015년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개최한 한불수교기념 한국공예전 <코리아 나우!>전에 참가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고혜정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익산보석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KO Hye-jeong is a metal craftsman, born in 1975 in Jeju, grew up in an environment of nature surrounded by mountains, hills, valleys and the sea. She studied metal and jewelry design at Kyonggi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Rochester Graduate School. In her four solo exhibitions, Ko designed and released delicate and poetic silverware and jewelry, inspired by the beautiful nature of her hometown and the Oriental paintings her mother drew. Ko's silverware using repeated patterns found by closely observing natural objects drew attention at the <Maison & Objet> in France in 2012, the fine craft and creation fair <R velations> in Paris in 2013, and the Korean crafts exhibition <Korea Now!> that was held in Museum of Decorative Arts in Paris in commemoration of the Korea-Franc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2015. Her works are mainly collect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Iksan Jewelry Museum in Korea. Ko currently works mainly in Seoul and Jeju, designing jewelry using granulation technique that decorates by soldering silver wire and beads.

1975年に済州島で生まれ、山、溪谷、そして海に囲まれた自然の中で幼年期を過ごしたコ・ヘジョンは、自然物を細かく観察して探し出した反復的なパターンを利用した銀器及びアクセサリーを製作する金属工芸家である。京畿大学校とアメリカのロチェスター大学院で金属及びアクセサリーのデザインを学び、4回の個人展にて、故郷の美しい自然から得た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もって、細かくて情緒的な銀器とアクセサリーを制作して発表した。2012年にフランスにて<メゾン&オブジェ(Maison & Objet)>、2013年にはフランスの芸術工芸ビエンナーレ<ヘビレーション>、2015年にはパリ装飾芸術美術館にて開催された韓仏交流記念、韓国工芸展<코리아 나우!>展に参加し、世界的に注目された。コ・ヘジョンの作品は、韓国国立現代美術館、韓国国立益山宝石博物館等が所有している



**민들레 접시**

접시, 2015  
정은  
400x250x70

**빨간 작은 병**

화병, 2014  
정은  
Φ120x120

**Dandelion Dish**

Dish, 2015  
Sterling silver  
400x250x70

**Red Little Bottle**

Vase, 2014  
Sterling silver  
Φ120x120

KO Hye-jeong was born in Jeju in 1975, grew up in an environment of nature surrounded by mountains, hills, valleys and the sea. Ko studied metal and jewelry design at Kyonggi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Rochester Graduate School. In her four solo exhibitions, Ko designed and released delicate and poetic silverware and jewelry, inspired by the beautiful nature of her hometown and the Oriental paintings her mother drew. Ko's silverware using repeated patterns found by closely observing natural objects drew attention at the <Maison & Objet> in France in 2012, the fine craft and creation fair <R velations> in Paris in 2013, and the Korean crafts exhibition <Korea Now!> that was held in Museum of Decorative Arts in Paris in commemoration of the Korea-Franc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2015. Her works are mainly collect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Iksan Jewelry Museum in Korea. Ko currently works mainly in Seoul and Jeju, designing jewelry using granulation technique that decorates by soldering silver wire and beads.



KIM Young-ock  
金樂玉 キム・ヨンオク  
김 영 아

〈언덕 위 열매들(Berries on the Hill)〉은 뚜껑에 작은 열매 장식이 달린 둥근 형태의 찻주전자이다. 단조기법을 쓰는 금속제 주전자는 금속입자를 조밀하게 만들어 강도를 높이기 때문에 예부터 주로 술이나 차를 데우는데 사용되었다. 작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복적인 망치질을 통해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 없이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형태를 지닌 주전자를 제작한다. 그러나 여기에 자연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장식적 요소로 삼음으로써 빈틈없는 기형에 작은 여유로움과 친근함이 느껴지도록 했다. 이 작품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던 다도문화를 접하면서 시작된 연작으로, 대중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소통하려는 시도로 제작된 현대적 공예문화 안의 동시대 사물이다. 작가는 한국의 전통적인 기형 안에 담긴 한국민의 미의식을 연구하며, 이 작품을 통해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용 중에 느낄 수 있는 공예의 기품을 전달하고자 한다.





<山谷上的果实(Berries on the Hill)>是一个圆形的茶壶，盖子上带有小小的果实装饰。采用锻造方法制成的金属茶壶将金属粒子稠密排列，提升了强度，因此自古以来就用于加热酒或茶。创作者长时间进行反复地锤炼，使其任何一个部位都不带有扭曲，制成了拥有完美形状的茶壶。将大自然的一小部分用作装饰元素，为毫无瑕疵的形状带来一丝从容及亲近感。该作品是自接触以釜山为中心发展起来的茶文化以来逐步开始创作的一系列作品，试图与大众形成有机联系，进行沟通，并属于现代工艺文化当中的同时代产物。创作者研究了韩国传统形状中蕴含的韩国人对美的意识，期待这一作品与实际生活紧密相关，让人们在使用该作品时体会到工艺的风采。

<丘の上の実 (Berries on the Hill) >は、蓋に小さい実の装飾を取り付けた丸い形態のティーポットである。鍛造技法を使う金属製のティーポットは、金属粒子を稠密して作られ、強度を高めるものであるため、昔から主に酒やお茶を温めるのに使われていた。作家は、長時間の反復的な槌打ちを通して、全体的にゆがみのない調和をなす完璧な形態を有するティーポットを制作した。しかし、ここで、自然の非常に小さい一部分を装飾の要素にすることで、キメ細かい奇形に小さい自由と親近感を感じさせるようにした。本作品は、釜山を中心に発達した茶道文化に触れたことから始まった連作であり、大衆と有機的な関係を結び、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ろうと試みて制作された現代工芸文化作品である。作家は、韓国の伝統的な奇形の中に込められている韓国国民の美意識を研究し、本作品を通して、実生活に密接に関連する、使用中を感じさせる工芸の気品を伝えようとしている。

<Berries on the Hill > is a teapot in a round shape with small fruit decorations on the lid. A metal teapot made by using a forging technique has been to be used to heat liquor or tea since the past because strength of it is increased by making its metal particles dense. Through repetitive hammering that takes long time, the artist creates a teapot that takes on an absolutely perfect shape achieving harmony without any disorganization. But by bringing in very small part of nature as a decorative element, the artist adds a little relaxation and familiarity to this flawless object. As part of the cycle that started when the artist met the tea ceremony developed centered on the Busan area, this artwork is a contemporary object, existing in the contemporary craft culture, created in a way to establish organic relationships and communicate with the public. While studying the aesthetics of Korean contained in traditional Korean objects, through this artwork Kim intends to deliver grace of crafts that can be felt during their use as they are closely related to practical daily life.

**언덕 위 열매들**

주전자, 2013-2017  
 정은, 끈  
 Φ150x200, Φ130x200,  
 Φ120x230, Φ140x140

**Berries on the Hill**

Tea pot, 2013-2017  
 sterling silver, string  
 Φ150x200, Φ130x200,  
 Φ120x230, Φ140x140

전통적인 한국의 기(器)의 형태를 그려보며 한국적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는가 고민해요. 보기만 하는 작품이 아닌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작품으로 사용 중에 묻어나오는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산딸기와 같은 들풀의 아름다움을 통해 차의 향기를 이미지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勾勒传统的韩国器具形状，思索韩国传统美是由何而来。通过这样的思索，我发现我想表达的不是仅用眼睛来欣赏的作品，而是与日常生活密切相关的作品。因为我希望让人在使用该物品的过程中体会其中所蕴含的美。因此我选用了山莓、野草等事物，想以此有形地表达茶的香气。

「伝統的な韓国の器の形態を描くと同時に、韓国的な美しさはどこから来るのか考えてみてください。見るだけの作品ではなく、実生活に密接につながる作品で、使用中に現れる美しさを伝えたく制作しました。野莓のような野草の美しさを通して、お茶の香りをイメージして表現しました。」

By depicting the shapes of traditional Korean objects, I think over from which Korean beauty comes. That is because I expect to deliver the beauty emitting during usage of works closely related to daily life instead of works only for the purpose of display. So through the beauty of wild grass like wild berries, it was intended to express fragrance of tea in an imagery way.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현재 홍익대학교 금속조형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영옥은 전통적 단조기법을 이용한 공예 작업과 금속조형 작업을 동시에 모색하며 넓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금속조형 작가이자 공예가이다. 홍익대학교 공예과에서 금속공예를 배우고 홍익대 대학원과 미국 템플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속조형을 공부하였다. 수와 공간, 구조 등의 개념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김영옥은 1987년 필라델피아에서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조형작업을 발표하고 귀국 후 부산 동덕대 교수로 활동하면서 부산 일대에 발달한 다도문화를 계기로 한국의 주전자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2009년부터 은으로 된 그릇과 주전자를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개최된 한불수교기념 한국공예전 <코리아 나우!>에서 단아하고 심플한 주전자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KIM Young-ock 1959年出生于首尔，是一位金属造型创作者兼工艺家，现任弘益大学金属造型设计系教授，她从事利用锻造技术的工艺创作及金属造型工作，同时也在不断探索寻求更深更广的技术。她曾在弘益大学工艺系学习金属工艺，后于弘益大学研究生院及美国天普大学研究生院学习金属造型。她对于数字、空间、结构等概念有着特别的关注，1987年在费城发表了以数学概念为基础进行的造型作业，归国后在釜山东义大学作教授，并因釜山一带发达的茶道文化而开始对韩国茶壶进行研究。2009年起她开始发布银制的器皿及茶壶，2015年在巴黎装饰美术馆里举办的韩法建交纪念韩国工艺展<Korea Now!>上展示了雅致而简洁的茶壶作品。

1959年にソウルで生まれ、現在、弘益大学校金属造形デザイン科の教授として在職中であるキム・ヨンオクは、伝統的な鍛造技法を用いた工芸作業と金属造形作業を同時に模索し、広い力量をみせている金属造形作家でもある工芸家である。弘益大学校工芸科で金属工芸を学び、弘益大学校の大学院とアメリカのテンブル大学の大学院で金属造形を学んだ。数、空間、そして構造等の概念に特に関心のあったキム・ヨンオクは、1987年にフィラデルフィアで数学的概念に基づく造形作業を発表し、帰国後、釜山の東義大学校で教授として活動しながら、釜山一帯で発達した茶道文化に触れたことを機会に、韓国の急須について研究を始めた。2009年から銀で作られた器と急須を発表し、2015年にパリ装飾美術館で開催された韓仏交流記念、韓国工芸展<コリア ナウ！>で上品でシンプルな急須作品を展示した。



**주전자와 화로 2015**  
순은, 정은  
주전자 210x180x200  
화로 Φ150x80

**Teapot with Warmer 2015**  
Silver, sterling silver  
pot 210x180x200  
warmer Φ150x80

KIM Young-ock was born in Seoul in 1959 and studied metal craft at the Department of Crafts, Hongik University and metal art work at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 Korea and Temple University in the U.S. Kim, who was always interest in numbers, space and structure, announced molding process that was based on mathematical concept in Philadelphia in 1987. After returning to Korea, she became a professor at Dong-eui University and started to research Korea's teapots as tea culture developed especially around the Busan region. Kim released silverware and silver teapots in 2009 and showcased elegant and simple teapots at the Korean crafts exhibition <Korea Now!> that was held in Museum of Decorative Arts in Paris in commemoration of the Korea-Franc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2015.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of metal art work design at Hongik University. Kim is a artist and craftsman, showing her wide range of capabilities as an artist by exploring both crafts work and metal art work by using traditional forging techniques.

# 2

PART

도전

挑战

挑戦

Challenge

한국은 고유한 언어와 풍속을 지키며 그 어디에도 동화되지 않은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해 왔다. 한국 공예에는 이러한 안정된 체제와 문화 속에서 자신을 잘 알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선대의 경험이 녹아 있다. 지피지기(知彼知己)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균형 감각은 전통공예의 기능적, 개념적 변화를 도모하며 현대에 이어지고 있다.

韩国拥有固有的语言、风俗，以及不受任何同化的独创文化。祖辈们在这种稳定的体系及文化之中了解自己，并且不畏挑战新的事物，而韩国工艺当中蕴含着祖辈的这种精神。知彼知己及法古创新的平衡带来了传统工艺的功能方面、理念方面的变化，一直延续到现代。

韓国は、固有言語と風俗を守り、どこにも同化しない独自の文化を維持している。韓国工芸には、このような安定した体制と文化の中で自身をよく理解し、新たなものに対する挑戦をおそれずにいた先代の経験が沁み込んでいる。知彼知己（意味：相手を知り自分を知る）と法古創新（意味：昔の物を手本として、新しい物を創造する）のバランス感覚は、伝統工芸の機能的、概念的変化を図り、現代にまで受け継がれている。

By preserving its unique language and customs, Korea has developed a unique culture that has not been assimilated into anything else. The experiences of the ancestors who were implicitly aware of themselves and not afraid of the challenges of the new in such a safe environment and culture have been integrated into Korean craft. The balance of the spirits, “Know thy enemy and know thyself” and “Create what is new following the examples of the past” have been passed on to today while still pursuing a change in the functions and concepts of traditional craft.

《태초의 잔상 017-496(Afterimage of Beginning 017-496)》은 실내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가구로, 간결한 형태를 지닌 콘솔 형태의 테이블이다. 작가는 대비적인 속성을 지닌 돌과 나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가구를 만들었다. 조선시대 목가구가 지니고 있는 간결하고 단순한 특징을 기저에 두면서도 동시대의 미적 요구를 반영한 이 작품은 태초의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아름다움과 함께 올림픽 정신에 담긴 숭고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현대인들에게 산업 발전으로 도외시 된 자연과 사물의 본질에 대한 사유를 던지는 작가의 당찬 도전이기도 하다. 그에게 돌과 나무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의 잔상이며, 순수한 자연물로서 원시적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숭고미를 표현하는 소재이자, 가구로 대변되는 인류의 오랜 생활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매개체이다. 작가는 이러한 제작 태도를 확장하여 그의 작품을 바라보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끼고 차분한 사유와 명상의 시간을 가질 기회를 제공한다.





<太初の余像 017-496(Afterimage of Beginning 017-496)>是为了在室内使用而制作的家具,为拥有简洁形状的落地式桌子。创作者使用形成对比的石头与树木,制成了刺激用户感性的家具。桌子的底部具有朝鲜时代木制家具所拥有的简洁、单纯特点,也体现了当今时代的美学要求,让人感受到太初的大自然所拥有的纯然美丽的同时,体会到奥运所蕴含的崇高精神。对于现代人来说,随着工业的发达,现代人已经忽视了大自然及事物的本质,而创作者的这一作品创作意图中还包含了对现代人的挑战,旨在给他们一个思考大自然及事物本质的契机。对于创作者来说,石头与树木是故乡给他留下的印象,也是纯粹的自然物品,能够极好地表达出大自然所拥有的崇高之美;同时家具代表着人类的生活文化,该作品也是延续传承人类生活文化的一个媒介。创作者将这一创作意图予以发展延伸,希望人们在欣赏和使用他的作品过程中能够体会到与大自然浑然一体的感觉,并且沉淀心灵,默默思索。

<太初の残像017-496(Afterimage of Beginning 017-496)>は、室内で使えるように制作された家具であって、簡潔な形態を有するコンソール形態のテーブルである。作家は、対比的な属性を有する石と木を用いて、使用者の感性を刺激する家具を作った。朝鮮時代の木の家具が有している簡潔で単純な特徴をベースにしつつも、同時代の美的要求を反映させた本作品は、太初の自然において感じることのできる静かな美しさと共に、オリンピック精神に込められた崇高さを表現しようとした。また、現代人に、産業の発展により無視されていた自然と物の本質に対する事由を投げかけた作家の行動力ある挑戦でもある。彼にとって石や木は、自分が生まれた故郷の象徴であり、純粹な自然物であって、原始的な自然が有している崇高美を表現する素材であり、家具に大変身する人類の長い生活文化を持続的につないでいく媒体である。作家は、このような制作態度を拡張して、その作品を見渡したり、使用したりする人に自然との一体感を感じてもらい、落ち着いた事由と瞑想の時間を有する機会を提供している。

<Afterimage of Beginning 017-496> is furniture made for indoor use, a console table in a simple shape. By using the two materials having contrasting properties—stone and wood—the artist made the furniture that excites senses of the viewers. This work, which is based on natural and simple characteristics of wooden furniture of the Joseon dynasty and at the same time reflects aesthetic demands of the contemporaries, presents calm beauty that could have been felt from nature in the beginning of the world and sublimity represented by the Olympic spirit. Also, it is a fresh challenge from the artist to the contemporaries to think over the essences of nature and objects disregarded by industrial development. To the artist, the stone and wood are the afterimage of his hometown, the subject matter as pure natural objects representing sublime beauty held by primitive nature, and the medium for the continued culture of life of humans represented by furniture. By broadening such attitude, the artist provides the viewers or users of his work with an opportunity to feel a sense of unity with nature and time for quiet reasoning and meditation.

**태초의 잔상 017-496**

콘솔테이블, 2018  
참나무, 현무암  
1,220×400×990

**Afterimage of Beginning 017-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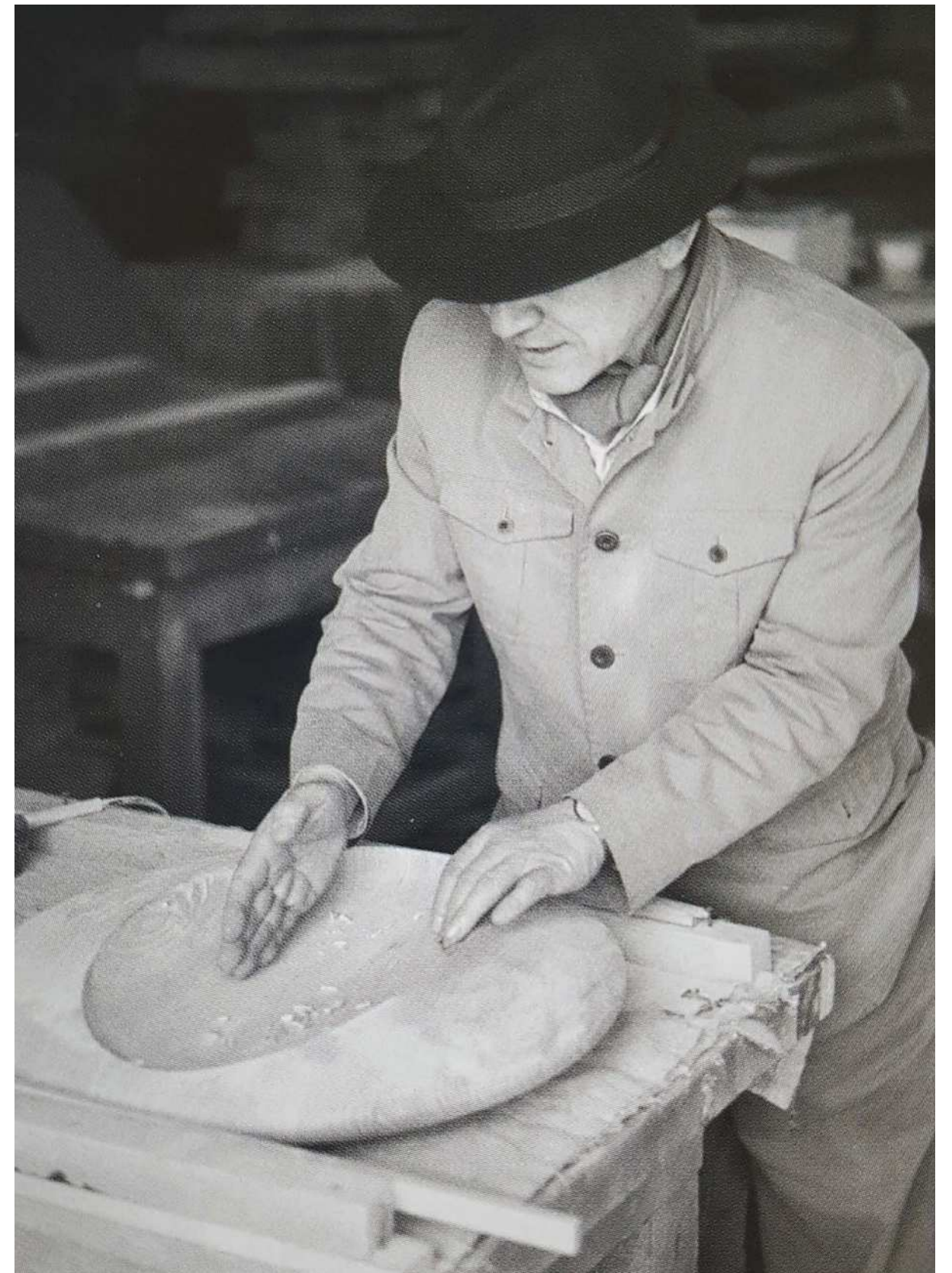
Console table, 2018  
red ork, basalt  
1,220×400×990

자연이 만들어 낸 원초적인 소재로서 인간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체취를 전해주는 나무와  
억겁의 세월에도 변치 않는 돌이 갖는 물성은 매력적입니다. 나는 나만의 정체성과 오늘의  
철학인 담긴 시대성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질감의 나무와 거칠고 단단한 돌의 대비가 만들어  
내는 조화를 추구합니다.

作为大自然所创造出的原始材料，能够为人传递温和体香的树木与在岁月流逝之中  
依然不变的石头，这两种物品所拥有的物性颇有魅力。我以自己的身份与当代哲学  
所蕴含的时代性为背景，为了实现温和质感的树木与粗糙坚硬的石头形成对比之美  
而努力。

「自然が作り出す原初的な素材として、人に温もりと、柔軟な体臭を伝える木や長  
い年月が過ぎても変わらない石が有する物性は魅力的です。私は、自分なりのアイ  
デンティティ、そして、現代に込められた哲学を基に、柔らかい質感の木と、ごつ  
ごつした、硬い石の対比が作り出す調和を追及しています。

Physical properties of the tree that deliver warm and gentle scents to humans,  
as a primitive material made by nature, and of the stone that never change  
throughout eternity are appealing. Based on my own identity and contemporary  
characteristics reflecting today's philosophy, I pursue harmony created by the  
contrast between the softly-textured tree and the solid s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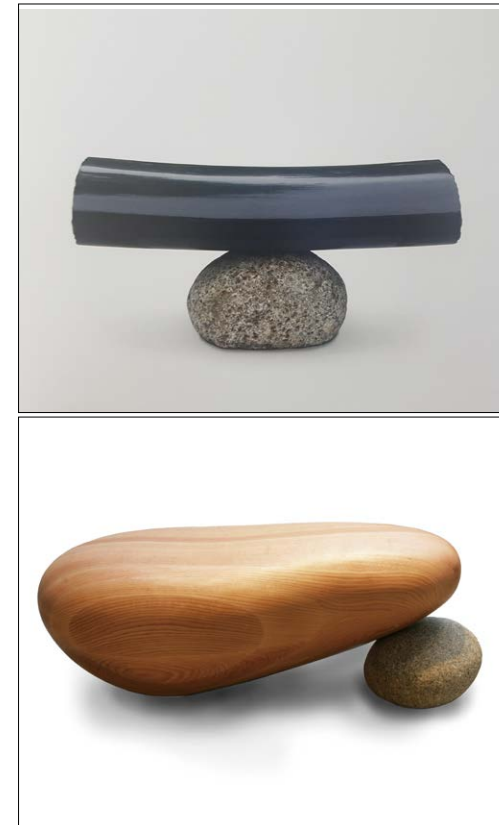




1952년 강원도 태백에서 태어나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최병훈은 1980년대 국내 최초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독창적인 가구 디자인인 아트퍼니처 분야를 개척한 한국의 대표적인 가구 디자이너이다. 홍익대학교 및 홍익대 대학원에서 응용미술과 가구디자인을 공부하였으며, 핀란드 헬싱키 미술디자인대학교 연구교수 및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임하면서 창의적인 가구 디자이너들을 다수 양성하였다. 세계의 메이저 갤러리인 파리 다운타운 갤러리와 뉴욕 프리드만 벤다 갤러리 전속작가로 활동중인 최병훈은 2015년 개최된 한불수교기념 한국공예전 <코리아 나우!>전에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아트 바젤, 아트 마이애미 등을 비롯한 국제적인 아트 페어에 꾸준히 소개되고 있으며,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국립파리장식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CHOI Byung-hoon 1952年出生于江原道太白, 在四面环山的自然环境中长大, 他是韩国代表性的家具设计师, 最先在韩国开拓了体现时代精神的独创家具设计——艺术家具领域。他曾在弘益大学本科及研究生院学习应用美术与家具设计, 先后任芬兰赫尔辛基大学研究教授及美国罗德岛设计大学客座教授, 目前为弘益大学木造型家居设计系教授, 培养了众多富有创意的家具设计师。他还是世界顶级画廊——Downtown画廊及纽约弗里德曼·本达画廊的合作设计师, 2015年参与了韩法建交纪念韩国工艺展 <Korea Now!>, 巴塞尔艺术展、迈阿密艺术展等国际级艺术展上多次介绍了他的作品, 其作品收藏于大都会美术馆、国立巴黎装饰美术馆、国立现代美术馆等。

1952年に江原道太白市で生まれ、山に囲まれた自然環境で成長したチェ・ビョンフンは、1980年代に韓国国内で初めて新たな時代精神を形づくる独創的な家具デザインであるアート家具分野を開拓した韓国の代表的な家具デザイナーである。弘益大学校及び弘益大学校大学院で応用美術と家具デザインを学び、フィンランドのヘルシンキ美術デザイン大学の研究教授及びアメリカのロードアイランドデザイン大学の客員教授を歴任した。また、弘益大学校木造形家具デザイン学科の教授として在任し、創意的な家具デザイナーを多数育成した。世界のメジャーギャラリーであるパリのダウントウンギャラリー及びニューヨークのフリードマンベンダギャラリーの専属作家として活動中であるチェ・ビョンフンは、2015年に開催された韓仏交流記念、韓国工芸展<코리아ナウ!>展に参加した。彼の作品は、アートバーゼル、アートマイアミ等をはじめ、国際的なアートフェアに続けて紹介されており、メトロポリタン美術館、国立パリ装飾美術館、国立現代美術館等が作品を所有している。



**태초의 잔상 10-343**  
테이블, 2010  
참나무, 호두나무  
1040x350x850

**Afterimage 10-343**  
Table, 2010  
Red oak, walnut  
1,040×350×850

**태초의 잔상 08-305**  
벤치, 2008  
참나무, 자연석  
1200x540x420

**Afterimage 08-305**  
Bench, 2008  
Red oak, natural stone  
1200x540x420

CHOI Byung-hoon, who created the field of art furnitur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as born in Taebaek, Gangwon-do in 1952 and grew up in the natural environment of being surrounded by mountains. Choi studied applied arts and furniture design at Hongik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and showcased creative art furniture that reflects the zeitgeist of the 1980s. Choi held various posts, including Research Professor at Aalto University School of Arts, Design and Architecture in Helsinki, Finland and Visiting Professor at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Choi also nurtured many creative furniture designers while teaching as a professor at Department of Woodworking and Furniture Design, Hongik University. Choi currently works as an artist at major galleries worldwide - Gallery Downtown in Paris and Friedman Benda gallery in New York. He participated in the Korean crafts exhibition <Korea Now!> that was held in Museum of Decorative Arts in Paris in commemoration of the Korea-Franc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2015. His works are collected by Metropolitan Museum of Art, Museum of Decorative Arts in Paris, and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hoi, who designs sculptural yet practical furniture by using contrast of materials, is a well-known furniture designer of Korea, continuously introduced at international art fairs such as Art Basel and Art Miami.



김현주 金賢珠 キム・ヒョンジュ KIM Hyun-ju

〈공존(Coexistence)〉은 유기그릇의 겉면에 가늘고 긴 자개띠를 붙여 장식한 금속 칠기이다. 단단한 금속에 자연이 지닌 생명력을 불어넣은 이 작품은 일렁이는 파도처럼 유기적인 곡선을 지닌 기형과 표면에 가득 찬 1mm 폭의 작은 자개 조각들을 통해 햇빛에 반짝거리는 바다와 같은 자연의 풍경으로 인식된다. 자개의 다채로운 빛깔을 더욱 섬세하게 보여주는 굽음질은 나전칠기 장식기법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많이 쓰인 기법이다.

또한 나전칠기는 친환경적인 재료라는 장점과 한정적 생산에 의한 희소적 가치를 지닌 공예품으로서 현대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손 끝에 온 신경과 감각을 집중하여 하나씩 끊어낸 작은 자개 조각들은 정직하고 정성스런 이 시대의 공예로써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전통을 잇는 매개체이다. 화려하면서도 당당한 볼륨감을 지닌 이 작품에는 이처럼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전통기법과 작가가 현재 배우고 익힌 금속조형기법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취향이 조화롭게 담겨 있다.





<共存(Coexistence)> 是在铜器的表面贴上细长的螺钿带作装饰的金属漆器。该作品在坚硬金属上附加了大自然所拥有的生命力，如翻腾的波浪一般流淌的曲线形状和填满整个表面的1mm宽的小螺钿碎片，让人联想到阳光照耀下的大海等大自然风景。精致的打磨让人更为细致地欣赏到螺钿的多样色彩，可谓是螺钿漆器装饰技法中最悠久也最常用的方法。另外，螺钿漆器属于环保材料，并且限量生产使其更显得珍稀，因此这工艺品吸引了现代人的极高关注。将所有的焦点及感觉聚集在指尖尖处，一个一个打磨出来的螺钿碎片作为用心而专注的现今时代工艺，成为了延续古时传统的媒介。拥有华丽而大气层次感的作品，其中融入了从古时延续下来的传统技法与创作者目前掌握的金属造形技法，并且也体现了现代人的喜好。

< 共存 (Coexistence) >は、鍮製の器の表面に細くて長い螺鈿細工の帯を装飾した金属漆器である。硬い金属に自然が有する生命力を加えた本作品は、ただよう波のように、有機的な曲線を有する奇形と、表面にいっぱいの1mm幅の小さい青貝のかけらを通して、太陽の光にキラキラと光る海のような自然の封兼体験を認識させます。青貝の多彩な光をさらに細かく見せる螺鈿細工は、螺鈿漆器装飾技法の中でも最も古く、多く使われている技法である。また、螺鈿漆器は、環境にやさしい材料というメリットと、生産が限られていることによる希少な価値を有する工艺品であり、多くの現代人が関心を持っている。手先に全ての神経と間隔感覚を集中させ、一つずつ取り外した小さい青貝のかけらは、正直であり、精誠を込めた今の時代の工艺品でもあり、また、過去から引き継がれてきた伝統を未来に引き継いでいくものである。可憐でありながらも、壮大なボリューム感を有する本作品は、このような過去から引き継がれてきた伝統技法と作家が現在学んで習得した金属造形技法、さらには現代人の好みとも調和している。

<Coexistence> is a metal lacquerware made by attaching a thin and long band of mother of pearl outside of the brass bowl. With vitality of nature instilled into the solid metal, this work is recognized as a natural scene like the sea shining with the sun through the organically curved shape reminding viewers of rolling waves and small pieces with the width of one millimeter of mother of pearl entirely covering the surface. A technique of refining patterns of mother of pearl that displays various colors thereof in a more subtle way is one of the oldest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decoration techniques of lacquerware inlaid with mother of pearl. Also, in that lacquerware inlaid with mother of pearl is a craft that comes with a benefit of adopting an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 and a value of scarcity due to limited production, it attracts much attention from people these days. Small pieces of mother of pearl refined by the fingertips with entire care and senses focused on serves as a medium as an honest and sincere craft of the day, to inherit the tradition passed on from the past. This work with the exquisite and dignified volume harmonizes a traditional technique inherited from the past and metal formative techniques the artist is currently learning, along with the tastes of contemporaries.

<b>공존</b>	<b>Coexistence</b>
그릇(발), 2018	Bowl, 2018
유기, 자개	Yugi(copper+tin), jageae(mother-of-pearl)
600×585×300	600×585×300

가장 얇은 자개를 사용하여 곱음질을 완성하는 그 순간, 금메달을 획득한 것처럼 놀라운 성취욕을 느낄 수 있었다. 도전정신으로 얻게 되는 경험 축적의 시간들은 나를 성숙된 공예인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된다. 현대 공예작가로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온 전통공예가 한 시대에 정지되어 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며 현시대를 함께 사는 창조적 계승을 이어가고 싶다.

使用最薄的螺钿完成打磨的那一瞬间，能够感受到宛如得了金牌一般的成就感。以这种挑战精神不断积累经验，这成为了引领我成为成熟工艺人的原动力。作为现代工艺创作者，我希望在悠久的历史当中以忍耐造就传承的传统工艺不至于止步不前，而是能够不断更新变化，创意性地在当今时代继承工艺文化。

「最も薄い青貝を用いて螺鈿細工を完成させる瞬間、金メダルを獲得したような驚くほどの達成感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す。チャレンジ精神によって得た経験の時間は、自分を成熟させる工芸人として進んでいく原動力となります。現代工芸作家としての悠久の歴史の中で忍耐と共に守ってきた伝統工芸が失われないように、継続的に新しい変化を求め、今の時代と共に生きていく創造的な工芸を引き継いでいきたいです。

At the moment of completing refining patterns by using the slightest mother of pearl, I could feel a great sense of achievement. Gaining experiences through time by challenging spirit serves as a driving force to lead me to become a mastered craft artist. As a contemporary craft artist, in order to prevent traditional crafts that have been passed on to with perseverance throughout a long time from stopping at one era, I intend to build on this creative tradition that consistently changes and lives through the contemporary days.





1979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현주는 서로 다른 재료의 결합을 통한 조형적 표현을 연구하며, 전통유기분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금태 나전칠기 기법을 고안한 현대 금속 공예가이다. 전남대학교에서 금속공예를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호인 손대현 선생으로부터 금태 칠기와 나전 기법을 배웠다. 2010년 첫번째 개인전에서 황동에 옷칠과 자개를 입힌 램프를 발표했고, 2014년 디자인 코리아에서 '굿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예술공예 비엔날레 <해빌라시옹>과 한불수교기념 한국공예전 <코리아 나우>에 동시 초청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같은 해 문화재단 예음에서 수여하는 '젊은 공예가상'을 수상하였고, 2016년 독일에서 개최하는 실버국제트리엔날레 공모전에서 입상하였다.

KIM Hyun-ju 1979年出生于首尔，是一位现代金属工艺家，她研究通过不同材料的结合而实现的造型表现，最先研究出了在黄铜领域尝试镀金螺钿漆器技术。她曾在全南大学学习金属工艺，之后进入首尔大学研究生院，在首尔特别市1号无形文化遗产 SHON Dae-hyun老师门下学习镀金漆器及螺钿技术。在2010年的首个个人展上，她发布了在黄铜上加以螺钿和贝壳的灯，2014年在Design Korea上获得“Good Disign”最优秀奖，2015年受邀参加在法国巴黎举办的艺术工艺双年展<R velations>及韩法建交纪念韩国工艺展<Korea Now!>，获得高度关注；并于同年获得文化财团YEOL颁发的“年轻工艺家奖”，2016年在德国举办的Silver Triennial大奖赛上获奖。

1979年にソウルで生まれたキム・ヒョンジュは、互いに異なる材料の結合による造形的表現を研究しており、伝統の有機分野では初めて試みる金胎螺鈿漆器技法を考案した現在金属工芸家である。全南大学校で金属工芸を学び、ソウル大学校大学院でソウル特別市無形文化財第1号であるソン・デヒョン先生から金胎漆器と螺鈿技法を学んだ。2010年の第1回個人展で黄銅に漆と螺鈿細工のランプを発表し、2014年のデザイン코리아で「グッドデザイン」最優秀賞を受賞し、2015年には、フランスのパリで開催された芸術工芸ビエンナーレ<ヘビレーション>と韓仏交流記念、韓国工芸展<코리아ナウ！>に同時に招待され、大きく注目された。同年、文化財団エオル(Yeol)から授与される「若手工芸家賞」を受賞し、2016年にドイツで開催されたシルバートリエンナーレの公募展で入賞した。



**묵상공간을 위한 램프**  
오일램프, 2010-2011  
옷칠, 자개  
320x210x120

**Lamp for a Meditative Space**  
Oil Lamp, 2010-2011  
Ottchil, Jagae(mother-of-pearl)  
320x210x120 (each)

**원을 그리다**  
그릇(발), 2016  
유기, 자개  
Φ280x200

**Draw a circle**  
Bowl, 2016  
Yugi(copper+tin),  
Jagae(mother of pearl)  
Φ280x200

KIM Hyun-ju, who makes objects and household items using Geumtae Najeonchilgi technique (metal mad lacquerware with mother-of-pearl) to place mother-of-pearl on brassware, was born in Seoul in 1979. Kim studied metal craft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studied metal mad lacquerware and Najeon technique under Seou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 Shon Dae-hyu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Kim designed the Geumtae Najeonchilgi, which was the first attempt in the field of traditional brassware, and released a brassware lamp varnished with lacquer and decorated with mother-of-pearl in her first solo exhibition in 2010. Kim was awarded ‘Good Design’ Grand Prize at Design Korea 2014 and received attention by being invited to both the fine craft and creation fair <R velations> in Paris and the Korean crafts exhibition <Korea Now!> that was held in Museum of Decorative Arts in Paris in commemoration of the Korea-Franc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at the same time in 2015. In the same year, Kim received ‘Young Craftsman Award’ provided by Yeol and also won the Silvertriennale held in Germany in 2016. Kim, who studies the expression of combining different materials, is a metal craftsman active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fairs held in Germany, the UK and Switzerland.

〈바라시리즈-서리(BARA series-FROST)〉는 가운데 서로 다른 3가지 색의 구멍이 있는 유리 화병이다. 추운 겨울에 내뿜는 하얀 입김과 투명한 얼음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했다. 유리가 지닌 물리적인 특징과 전형적인 아름다움, 가공에 의한 다양한 미적 요소의 창출 가능성은 많은 예술가와 공예가들에게 도전의식을 품게 했다. 작가는 두껍고 투명한 유리 안에 다양한 형태의 공간들을 생성하고, 이것이 조화로운 관계의 공간이 되도록 각각의 공간에 감각적으로 색을 배치했다. 특히 잘려진 단면은 내려앉은 서리처럼 희미하게 내부구조에 빛을 투과함으로써 신비감을 자극하고 하나의 융합된 테마로서 균형을 유도한다. 이처럼 공간의 중첩적인 구조와 유리의 색에 의해 생겨나는 다양한 조화는 타인과의 경계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며 받아들임으로써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들을 의미한다.





<BARA系列-霜(BARA series-FROST)>是在中间拥有三色孔的玻璃花瓶，创作灵感源于冬日的白色哈气和透明的冰。玻璃所拥有的物理特点与其典型的美，通过加工可实现的多种美学因素可创性，这些使得众多的艺术家与工艺家踊跃想要挑战一下。创作者在厚而透明的玻璃中打造了多种空间，并为各个空间赋予了感性的颜色，使各个空间形成彼此和谐的关系。特别是切掉的断面如同结的霜一般，使光隐隐约约地照在内部结构上，带来了神秘感，并以一个和谐的主题保持整个作品的均衡。空间的重叠结构与玻璃的颜色形成各种不同组合，让人意识到与他人之间的界线，并因此尊重、接受界线，以此为基础与他人建立起新的关系。

<バラシリーズ-霜(BARA series-FROST)>は、真ん中に互いに異なる3色の穴があるガラスの花瓶である。寒い冬に出る白い息と、透明な氷からモチーフを得て制作された。ガラスが有する物理的な特徴、典型的な美しさ、加工による多様な美的要素の創出の可能性は、多くの芸術家と工芸家の挑戦精神を駆り立てます。作家は、厚くて透明なガラスの中に多様な形態の空間を生成し、調和した関係の空間になるようにそれぞれの空間に感覚的に色を配置した。特に、1つの融合されたテーマとして、均一に誘導した。このような空間の重畳した構造と、ガラスの色によって生じる多様な調和は、他人との境界を認識し、これを尊重して受け入れることで、結ばれる新しい関係の意味を開示させる。

<BARA series-FROST> is a series of glass vases which have holes in three different colors respectively. The artist was inspired by white breath coming out from the mouth in the winter and transparent ice and took them as a motiv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classic beauty of glass and possibility for creation of various aesthetic elements through a process have posed a challenge to a number of artists and craft artists. Hong created various-shaped spaces inside of the thick and transparent glass, and allotted colors to each space in a stylish way that they create a harmonious space. Especially, the cut cross section that makes light faintly penetrate into the inside structure, as if it were frost, arouses mystique impressions and induces balance as a converged theme. Thus, various harmonies created by layered structures of the space and glass colors signify new relationships established by recognizing boundaries among others, respecting and accepting them.

**바라시리즈-서리**

화병, 2018  
유리 102x58x187,  
118x63x155,  
140x101x124, 99x64x126,  
110x70x110

**BARA Series - Frost**

Vase, 2018  
glass 102x58x187,  
118x63x155,  
140x101x124, 99x64x126,  
110x70x110

물리적 반응에 민감한 액체상태에서의 유리는 굳어지기 전에 순발력 있게 성형해야만 하는 그 행위 자체 만으로도 역동적인 희열을 느끼게 된다. 뜨거운 열기와 도구를 통한 재료와의 교감 그리고 섬세한 불꽃의 세계는 입체적인 매력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번 작품에서는 전반적으로 무채색 계열과 반투명 색상의 조합을 통하여 동절기의 차가운 감성과 전시회의 주요 테마를 이루는 화합의 의미를 담아내고자 했다.

在对物理反应敏感的液体状态下，在玻璃凝固之前，需要对其进行迅速成形，而该行为本身就足以让人感受到十足的喜悦。使用火热的热气和工具与材料进行感应，细腻的火花世界凭借其立体魅力深深吸引我。在本次作品中，通过黑白色系与半透明颜色的组合，我想表达的是冬季的寒冷感性与展示会的主旋律——和谐。

「物理的な反応に敏感な液体状態でのガラスは、硬くなる前に一気に成形しなければならぬその行為そのものだけでも、抑えきれない喜びを感じさせます。熱い熱気と道具による材料との交感、そして、繊細な火の粉の世界は、立体的な魅力があり、私の心が引き寄せられます。今回の作品では、全般的に、無彩色系列と半透明の色彩との組合せを通して、冬季の冷たい感性和、展示会の重要なテーマとの和合の意味を込め制作しました。

As for glass in a state of liquid sensitive to physical reactions, an act of immediate forming before it is solidified gives me dynamic delight. Communication between materials through heat and tools and the world of delicate flames fascinates me with its three-dimensional attraction. For this work, I intended to express cold sentiment of the winter season by combining achromatic and translucent colors and deliver the message for harmony, the main theme of the exhibit.”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난 홍성환은 유리의 물리적 성질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리조형과 디자인을 창조하고 있는 유리 예술가이다. 홍익대학교 및 홍익대 대학원에서 도예와 공예디자인을 공부하였다. 대학원 졸업 후, 체코의 프라하 국립응용미술대학교를 거쳐 핀란드의 알토대학교 유리 디자인과에서 유리의 물성과 조형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였다. 핀란드 유학 중인 2000년에 블로우 파이프의 헤드에 구멍이 여러 개 있는 '멀티 에어 홀 파이프'를 고안하여 영국과 핀란드에서 <바라 시리즈>를 처음 발표하였고, 이 작품으로 2005년 '엘코텍 이노베이션 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0년대 한국 유리 공예의 독창적 계발과 다양한 실험의 필요성에 영향을 준 홍성환은 2015년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개최한 한불수교기념 한국공예전 <코리아 나우!>전에 참여하였으며, 프라하 장식미술관, 우크라이나 르비브 국립박물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HONG Sung-hwan 1967年出生于首尔，是一位玻璃艺术家，利用玻璃的物理性质创作新的玻璃造型及设计。他曾于弘益大学本科及研究生院学习陶艺和工艺设计，研究生毕业后，他先后在捷克的布拉格国立应用美术大学及芬兰的阿尔托大学玻璃设计系进行关于玻璃物性及造型的各种实验，2000年，他在芬兰留学期间，研究出Blow-pipe顶部有多个孔的“多气孔管（multi-airhole pipe）”，并在英国及芬兰首次发布<BARA Series>，凭借该作品获得了2005年“ELCOTEQ创新设计”最优秀奖。HONG Sung-hwan为2000年代韩国玻璃工艺的独创开发，以及认知实验必要性方面起到了一定影响。他曾参加2015年在巴黎装饰美术馆里举办的韩法建交纪念韩国工艺展 <Korea Now!>，作品收藏于布拉格装饰美术馆及乌克兰利沃夫国家博物馆。

1967年にソウルで生まれたホン・ソンファンは、ガラスの物理的性質を活用して、新たなガラスの造形とデザインを創造するガラス芸術家である。弘益大学校及び弘益大学校大学院で陶芸と工芸デザインを学んだ。大学院卒業後、チェコのプラハ国立応用美術大学を經由し、フィンランドのアールト大学のガラスデザイン科でガラスの物性と造形に関する様々な実験を行った。フィンランドに留学中、2000年に吹き竿のヘッドに穴が複数ある「マルチエアホールパイプ」を考案した後、イギリスとフィンランドで<バラ(Bara)シリーズ>を初めて発表し、この作品で2005年に「エルコテック(Elcoteq)イノベーションデザイン」最優秀賞を受賞した。2000年代の韓国ガラス工芸の独創的開発と多様な実験の必要性に影響を与えたホン・ソンファンは、2015年のパリ装飾美術館で開催された韓仏交流記念、韓国工芸展<코리아 ナウ!>展に参与し、プラハ装飾美術館、ウクライナのリヴィウ国立博物館等が作品を所有している。



<b>바라시리즈</b>	<b>BARA Series</b>
화병, 2015	Vase, 2015
유리, 안료	Glass, Pigment
140x55x120	140x55x120
120x50x230	120x50x230
135x60x180	135x60x180

HONG Sung-hwan, who creates a new glass art design us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glass, was born in Seoul in 1967 and studied ceramics and crafts design at Hongik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Hong first started to gain interest in the physical properties of glass in his university days, and went to Academy of Arts, Architecture and Design in Prague and Aalto University School of Arts, Design and Architecture in Finland to implement many experiments on glass work, studying at the Department of Glass Design. During his studies overseas, Hong released his <BARA Series> by designing a 'multi-airhole pipe' which is a blowing device with many heads. With this work, he won the 'Elcoteq Innovation Design' Grand Prize in 2005. Hong contributed to promoting Korean glass craft in the early 2000s and participated in the Korean crafts exhibition <Korea Now!> that was held in Museum of Decorative Arts in Paris in commemoration of the Korea-Franc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2015. Hong is a glass sculpture artist whose works are collected by Museum of Decorative Arts in Prague and Lviv National Museum in Ukraine.



《강원도의 향(Gangwondo flavor)》은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밭 풍경과 강원도의 재배 작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한 배추모양 화병이다. 작가는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지역적인 특색에 주목하였고, 배추의 사실적인 형태를 작품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구세나는 디자이너라는 역할의 수행에 의해 기능적으로 접근한 결과물을 만들지만, 그것들은 자연물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수렴된다. 자연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한국적 감성을 실용적인 제작기술로 풀어냄으로써 자신의 디자인을 자연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낮익은 자연물을 원래 있었던 자연, 즉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에서 떼어 놓아 뜻하지 않은 장소에 놓여지거나 전혀 다른 기능을 갖게 되면 관찰자나 사용자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게 된다. 작가는 마치 초현실주의자처럼 자연물이 가진 본연의 특색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미적 요소들과 낯설음 통한 재미를 찾는다.





<江原道之香(Gangwondo flavor)> 是从江原道高寒地区白菜地的风景及江原道栽培作物中获得灵感，由此制作出来的白菜形状花瓶。因奥运会在江原道举办，创作者也将焦点放在了江原道的地区特点上，以写实的手法将白菜形状诠释在了作品上。GU Se-na作为设计师制作出了一系列以功能为主的成果，然而这些成果全部可以归为同一个主题，即“自然物品”。以一颗热爱并敬畏大自然的心进行创作，以实用的制作技术诠释出具有韩国色彩的感性，由此将创作者的设计与大自然联系起来，使其成为一体。将人们原本熟悉的“自然物品”从大自然，即原有的日常秩序当中分离出来，将其放入意外的场所，由此带来截然不同的功能，也为观察者及使用者带来心灵上的冲击。创作者如同超现实主义一般，观察“自然物品”所具有的特点，展开想象的翅膀，通过美学因素与对熟悉的物品感到陌生的经验寻求新的乐趣。

<江原道（カンウォンド）の香り(Gangwondo flavor)>は、江原道の高冷地にある白菜畑の風景と、江原道の栽培食物からアイデアを得て制作された白菜模様の花瓶である。作家は、オリンピックをきっかけに、江原道の地域の特色に注目し、白菜の実際の形そのものを作品に込めた。ク・セナは、デザイナーの役割遂行により、機能的に接近した結果物を作るが、これらは、自然物という1つの主題でまとめることができる。自然を愛し、敬意を込める韓国的感性を実用的な制作技術と解釈することで、自身のデザインを自然と一致させているというわけだ。見慣れた自然物が、元々の自然の形、すなわち本来の日常的な秩序から離れて、無意味な場所に置かれていたり、全く異なる機能を有するようになれば、観察者や使用者に心理的な衝撃を与えることとなる。作家は、まるで超現実主義者のように、自然物が有する本来の特色を観察し、その中で妄想に駆られて、美的要素と見慣れない世界によるおもしろさを探している。

<Gangwondo Flavor> is a vase in the napa cabbage inspired by the napa cabbage fields in the high land of Gangwon Province and produce cultivated in the region. Taking the Olympic Games as an opportunity, the artist focused on the regional uniqueness of Gangwon and directly adopted the realistic shape of the napa cabbage to the work. Whereas Gu Se-na creates outcomes from the perspective of a function by playing a role as a designer, they converge on one theme: natural objects. By presenting the Korean emotion of loving and having a sense of awe toward nature in a practical production technique, the artist corresponds her design to nature. Placing a familiar natural object on an unexpected location, removing it from an original and daily order and giving it an absolutely different function, comes as a psychological shock to observers or users. The artist observes original uniqueness of a natural object as if she were a surrealist and finds interest through aesthetic elements and strangeness by stretching imagination inside it.

**강원도의 향**

화병, 합, 2018  
자기토, 수금  
Φ160x270

**Gangwondo flavor**

Vase, Container, 2018  
White porcelain, gold  
Φ160x270

사소한 사물이라도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색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생각하며 상상해 가고 그 속에 아름다움과 재미를 찾아내는 것들이 작업의 아이디어와 원동력을 가져옵니다. 그러한 관찰과 저만의 해석이 저의 작업세계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即使是一个微小的物品,也试着去观察、思索并想象物品所拥有的本然特点,并找出其中所蕴含的美好与乐趣,由此获得创作的灵感和原动力。我认为正是这种观察与我自己对物品的解读构成了我的创作世界。

「たわいもない物でも、その物が持っている本来の特色が何であるかを観察し、考え、そして、想像していくと、その中の美しさとおもしろさを探し出すことができ、これが、作業のアイデアの原動力となります。このような観察と自分なりの解釈により、自分の作業世界を作っていけると考えます。

Even for a trivial object, observing it to discover its intrinsic features, thinking over them, imagining about them, and finding the beauty and interest in it inspires me, giving me an idea for a work and a motive. Such observation and my own interpretation served to develop my own territory of art.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난 구세나는 자신의 브랜드이자 공방인 '세나 구(Sena Gu)'를 운영하며 동식물을 모티브로 식기와 생활소품을 제작하고 있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도자 디자이너다. 홍익대학교에서 도예를 배우고 영국 왕립 미술대학원(RCA)에서 도자 디자인을 공부했다. 졸업 후 영국에서 '스튜디오 구(Studio Gu)'를 설립. 공작새와 꽃과 같은 자연 소재에 현대적 감각과 위트를 더한 이국적인 감각의 식기 디자인으로 런던의 <100% 디자인>에 매년 참가하며 디자인 감각과 경영 능력을 키웠다. 2016년 독일 뮌헨의 바이에른 국립미술관에서 개최되었던 <한국공예디자인전>, 2017년 뮌헨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위크(MCBW) 주빈국 행사 <스마트를 넘어서, 휴먼 코넥션!>에 참가하였다.

GU Se-na 1981년生于首尔，她是一位拥有全球眼光的陶瓷设计师，经营自己的品牌兼工坊“Sena Gu”，以动植物为基调制作餐具及生活用品。她曾在弘益大学学习陶艺，后在英国皇家艺术学院（RCA）学习陶瓷设计，毕业后在英国设立了“Studio Gu”，在孔雀、花等自然材料上添加了富有现代感及才气的元素，打造出具有异域风情的餐具设计，并凭借其设计每年参加伦敦的<100% Design>，不断提升设计眼光及经营管理能力。她还先后参加了2016年于德国慕尼黑的拜恩国立美术馆举办的<韩国工艺设计展>以及2017年慕尼黑创意设计周(MCBW)主宾国活动<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

1981年にソウルで生まれたク・セナは、自身のブランドでもある、工房「セナ・グ(Sena Gu)」を運営しており、動植物をモチーフに食器と生活用品を制作し国際的な感覚を有する陶磁器デザイナーである。弘益大学校で工芸を学び、イギリスの王立美術大学院(RCA)で陶磁器デザインを学んだ。卒業後、イギリスで「スタジオ・ク(Studio Gu)」を設立、孔雀や花のような自然素材に現代的感覚とウィットを加えた異国的な感覚の食器デザインでロンドンの<100%デザイン>に毎年参加し、デザインの感覚と経営能力を育てた。2016年にドイツミュンヘンのバイエルン国立美術館で開催された<韓国工芸デザイン展>、2017年にミュンヘンのクリエイティブビジネスウィーク(MCBW)主賓国行事<スマートを超えて、ヒューマンコレクション!>に参加した。



**성냥**  
젓가락 받침, 2014  
자기토, 수금  
105x20x20

**Match**  
Chopstick rest, 2014  
White porcelain, gold  
105x20x20

**파란 새**  
저그, 2018  
자기토, 안료  
75x125x42

**Blue Bird**  
Jug, 2018  
White porcelain, stain  
75x125x42

GU Se-na was born in Seoul in 1981 and studied ceramics at Hongik University and ceramics design at the Royal College of Art in the UK. After graduation, Gu established 'Studio Gu' in the UK and participated in London's <100% Design> every year, developing an eye for design and management capabilities, with her exotic tableware designs that add contemporary feel and wit on natural themes such as peacock and flowers. She was introduced as a young Korean ceramics designer at the <Korean Crafts & Design Exhibition> held at the Bayerisches Nationalmuseum in Munich, Germany in 2016 and <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partner country event of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MCBW) in 2017. Currently Gu is a ceramics designer based in both the UK and Korea, who ha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esigning tableware and household items based on animals and plants as motif while managing her brand/workshop 'Sena Gu'.

# 3

PART

시간

时间

時間

Time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 발달된 공동체문화를 갖고 있다. 가족 또는 지역단위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문화를 가진다. 이렇게 공동체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삶의 양식과 기술들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지속된다. 이렇게 전달된 양식과 기술들은 한국 공예의 다양한 모티브 중 하나로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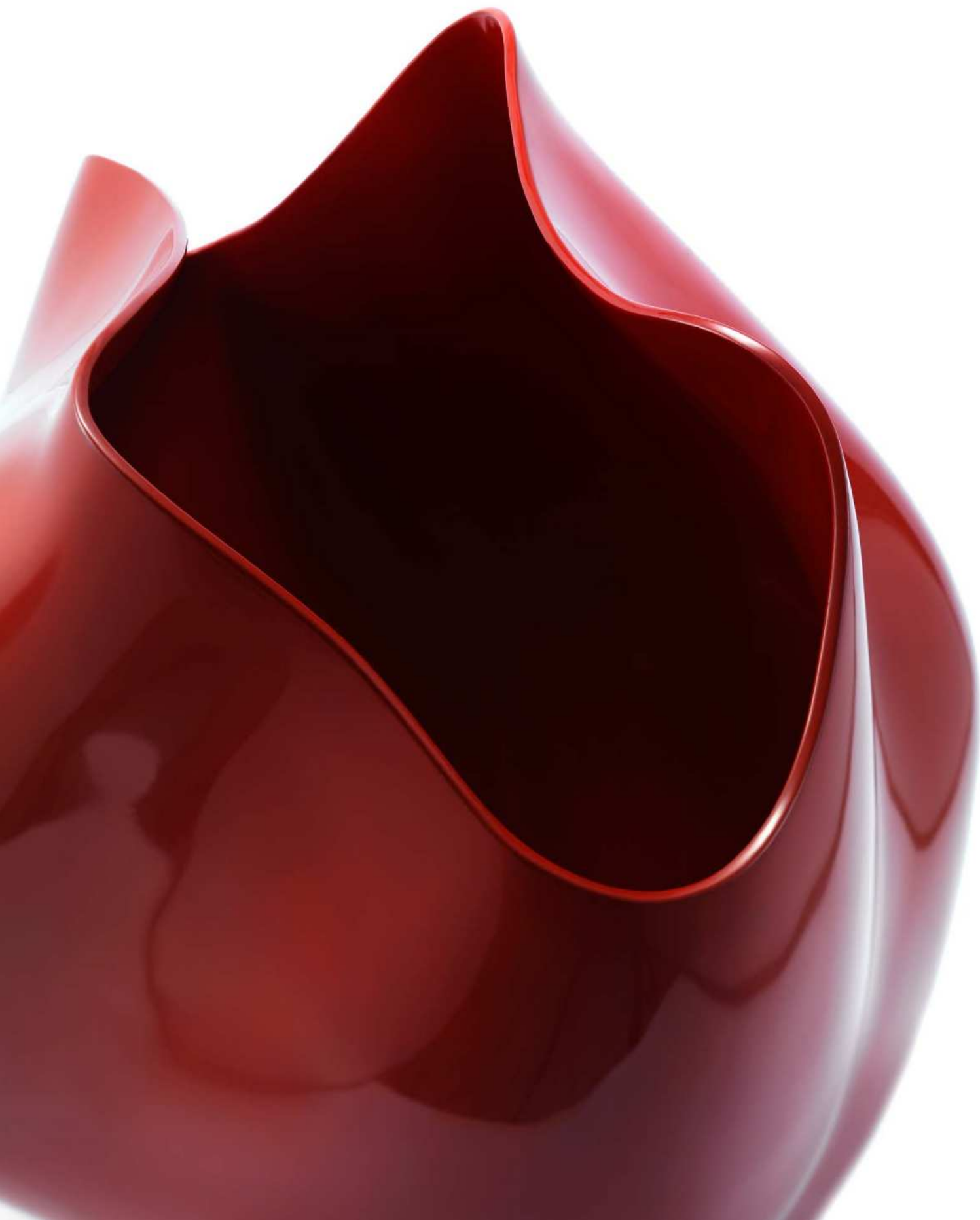
韩国拥有悠久的历史以及突出的集体主义文化，在以家庭或地区为单位的集体当中，彼此共享经验，拥有共同的价值取向以及相似的文化。在集体持续下去的过程中，长时间积累下来的生活样式及技术传承给下一代，如此传承下来的生活样式及技术成为了一个十分重要的韩国工艺基调。

韓国は、悠久な歴史とともに発達した共同体文化を有している。家族又は自然単位の共同体の中では、互いの経験を共有し、共通の価値と類似した文化を有する。このように共同体が持続する過程において、長い時間の間蓄積された生活の様式と技術は、次の世代へと伝えられ受け継がれる。このように伝えられた様式と技術は、韓国工芸の多様なモチーフの1つであって、重要に扱われている。

Throughout Korea's long history, a community culture has been developed. Members of families or local communities share their experiences thus creating common values and a similar culture. In this process, the lifestyle and techniques that have been accumula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continue to b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and serve as the diverse motifs of Korean craft.

〈적광울 1801(Rhythm of the Red luster 1801)〉은 옷칠에 의한 매끈한 표면 광택과 비정형적인 형태를 지닌 붉은 색의 칠기이다. 오묘한 광택의 붉은 옷칠은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이자, 50여 년 동안 굽힐 줄 모르는 작가의 끈기와 의지를 드러내는 순수하면서도 열정적인 기운의 빛과 색이다. 붉은 색을 내는 주칠은 옷 나무 수액에서 수분을 제거한 생칠에 '주사'라는 안료를 넣어 만드는데, 이 주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왕실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었을 정도로 매우 귀한 것이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널리 사용된 옷칠은 현대에 들어와 친 환경적이며 다채로운 발색이 가능한 천연 도료로써 각광 받고 있다. 정해조의 붉은 옷칠은 작품의 굴곡진 형태를 통해 절정의 울동감을 보여주는데, 이 자유로운 형태 안에서도 인간의 원초적 감각에서 비롯된 창조의 근원에 대한 작가적 통찰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상징과 의미 속에서 이 작품은 전통적인 옷칠의 특성과 색, 울동감 있는 형태를 통한 강렬한 인상의 추상성을 보여주며, 전통 공예의 현대적 해석과 한국 현대 옷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 한다.





<赤光律 1801(Rhythm of the Red luster 1801)>是一种红色漆器，用Ott漆打造出了拥有细滑的表面光泽与不规则形状。散发着奇妙光泽的红色Ott漆器既能让人感受到美好的韩国传统之美，同时其上的光泽与色彩传递的更是一种单纯和热情，彰显出五十余年对工艺绝不妥协的大师之韧劲及意志。红色是由朱漆而来的，而朱漆是将名为“朱砂”的颜料放入除去Ott漆树汁液中水分后的生漆而制成的，朱砂由中国进口而来，古代朱砂为王室专用，除王室之外百姓禁用，因此极为珍贵。如此经过长时间广泛使用的Ott漆，到了现代，则成了环保并可散发多种色彩的天然涂料，因此深受人们的喜爱。郑解朝的红Ott漆沿着作品凹凸不平的形态渲染开来，带来了极致的律动感，并可从中窥见大师的用心良苦，表达出了创造之根源在于自由形态之中所含的人类本原的感觉。在如此的象征与寓意之中，该作品诠释出了传统Ott漆的特点与色彩、富有律动感的形态，由此体现出强烈的抽象性，并展示了对于传统工艺的现代解读方法与韩国现代Ott漆的发展新方向。

<リズム・オブ・ザ・レッドラスター1801(Rhythm of the Red luster 1801)>は、漆で滑らかな表面光沢と非定型的な形態を有する赤色の漆器である。奥深い光沢のある赤い漆は、美しい韓国の伝統美を感じさせる要素であり、50余年間こだわり続けた作家の精神と信念を表わしている、純粋かつ情熱的な精根の光と色である。赤色を出す主な漆は、ウルシの樹液から水分を除去した生の漆に「辰砂」という顔料を入れて作られる。この辰砂は、中国から輸入され、王室以外では使用禁止であったほど非常に貴重なものであった。このように長い間広く使われている漆は、現在、環境にやさしく、多彩な発色が可能な天然塗料として脚光を浴びている。ジョン・ヘジョの赤い漆は、作品の屈曲した形態を通して、絶頂の律動感を見せており、この自由な形態の中でも人の原初的な感覚から始まった想像の根源に対する作家の洞察力に会うことができる。このような象徴と意味の中で、本作品は、伝統的な漆の特性、色、律動感のある形態による強い印象の抽象性をみせており、伝統工芸の現代的解釈と韓国の現代的漆の新たな方向性を提示している。

<Rhythm of the Red Luster 1801> is lacquerware in red with a glossy smooth surface painted with lacquer in an atypical shape. Lacquering in delicate red gloss is not only an element to display traditional Korean beauty, but a light and color to reveal pure and enthusiastic energy demonstrating dogged persistence and resolution of the artist for over fifty years. Paint of ju (red) used to express red in this work is made by putting the pigment known as jusa into the sap of the lacquer tree removed of moisture. Jusa, imported from China, was so precious that its use by other than the royal family was prohibited. Ottchil that has long been used is now getting the spotlight as a natural paint which is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capable of various color formation. Red ottchil in Chung's work shows a climatic rhythmical sense by a winding shape, and even within this free shape, the artist's insights into the source of creation, resulting from a basic instinct sense of humans, can be demonstrated. With such symbols and implications, this work displays abstractness with strong impression through characteristics of ottchil, a color, and a shape with a sense of rhythm and suggests modernist interpretation on traditional craft art and a direction for today's Korean ottchil.

<b>적광율 1801</b>	<b>Rhythm of the Red luster 1801</b>
칠기, 2018	Lacquer, 2018
옷칠, 삼베	Ott-chil, hemp
φ500x500	φ500x500

인간이 풀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스런 비밀을 지닌 것이 옷칠의 매력입니다. 성분의 비밀, 빛깔의 비밀, 광택의 비밀, 경화의 비밀, 보존의 비밀, 공정의 비밀, 약효의 비밀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크게 나를 매료시키고 있는 것은 옷칠 본질속에 숨겨져 있는 빛깔과 광택의 비밀입니다. 형태의 원리, 재료의 본질, 빛깔의 근본, 제작의 기본 등 나의 공예적 행위를 통해서 옷칠의 빨간 빛깔과 광택으로 강한 자극을 주고, 보는 각도에 따라 강한 리듬감과 운동감을 주어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Ott漆的魅力在于它拥有人类所无法诠释的深妙而神奇的奥秘，比如成分的奥秘、色泽的奥秘、光泽的奥秘、硬化的奥秘、保管的奥秘、工艺的奥秘、药效的奥秘。特别是让我沉醉于其中的是，隐含于Ott漆本质之中的色泽及光泽的奥秘。我想通过我的工艺行为演绎出形态的原理、材料的本质、光泽的根本与制作的基础，以此打造出Ott漆的红色色泽及光泽，带来视觉上的强烈刺激，并且根据欣赏的角度赋予不同的强烈的节奏感及动感，以此传递平昌冬季奥运会的信息。

「漆の魅力は、人が解くことのできない奥深く、神秘的な秘密を有していることにあります。成分の秘密、色の秘密、光沢の秘密、硬化の秘密、保存の秘密、工程の秘密、薬効の秘密等が、その魅力です。特に、私を魅了しているのは、漆の本質の中に隠れている色と光沢の秘密です。形態の原理、材料の本質、色の本質、製作の基本等、私の工芸行為を通して、漆の赤い光と光沢に強い刺激を与え、見る角度によって強いリズム感と動きを与え、平昌（ピョンチャン）冬季オリンピックのメッセージを伝えたく製作しました。」

Profound and mysterious secrets that humans cannot find out are what ottchil (a traditional Korean technique of coating with the treated, dyed and dried sap of a lacquer tree; the sap of the lacquer tree) attracts our attention. Secrets of its components, colors, gloss, curing, preservation, process, and medicinal effect are among many others. I intended to deliver a message of the PyeongChang Olympic Winter Games by give strong stimuli through red colors and gloss of ottchil and a strong rhythm and motion that can be created through my actions on craft including the principle of the shape, the essence of materials, sources of colors, and basics of production.”







1945년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난 정해조는 한국  
 옷칠공예의 보존,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아시아와 유럽 등 전 세계의 인정 속에  
 한국 현대 옷칠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옷칠  
 공예가이다. 홍익대학교에서 목칠 공예를 전공한  
 정해조는 일본의 선진화된 옷칠공예산업에  
 자극을 받아 2004년 세계 최초로 배재대학교에  
 칠예과를 신설하고 석사과정을 개설하였다. 또한  
 옥천에 옷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옷 산업  
 지역 특구'로 지정되는데 일조하는 등 한국의  
 옷칠공예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13년 밀라노 가구박람회 특별전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2015년 파리장식미술관에서 개최된  
 한불수교기념 한국공예전 <코리아 나우!> 등 한국  
 공예를 세계에 알리는 주요 전시에  
 참가하였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에는 대한민국 문화훈장(옥관)을 받았다.  
 2016년 독일 뮌헨의 바이에른국립미술관에서  
 개최되었던 <한국공예디자인전> 및  
 국제수공예페어(Internationale Handwerks  
 Messe)에서 개최한 <Master of Modernity> 전에  
 참여하였고, 바이에른 디자인에서 수여하는  
 '바이에른 대상'을 수상하였다.  
 필라델피아미술관, 대영박물관, V&A박물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郑解朝 1945年生于忠清北道沃川，是一位  
 Ott漆工艺家，致力于韩国Ott漆工艺的保  
 存、传承及发展，在亚洲、欧洲及全世界  
 的认可之下不断扩张韩国现代Ott漆的境  
 界。他曾在弘益大学学习木漆工艺，并因  
 受日本先进的Ott漆工艺产业的挑战，于  
 2004年在培才大学开办了漆艺系的本科及  
 研究生课程，这在全世界来说都是首例。  
 他还在沃川设立Ott树栽培园区，为其被指  
 定为“Ott产业地区特区”起到了一定作用，  
 也为韩国的Ott漆工艺发展奠定了基础。参  
 加2013年的米兰家具博览会特别展<韩国工  
 艺的法古创新>，2015年的巴黎装饰美术馆  
 里举办的韩法建交纪念韩国工艺展<Korea  
 Now!>，如此在多个主要展会上将韩国工  
 艺推向世界。他的功劳得到了认可，2015  
 年获大韩民国文化勋章（玉冠）。2016年  
 参加在德国慕尼黑拜恩国立美术馆里举办  
 的<韩国工艺设计展>及国际手工艺博览会  
 (Internationale Handwerks Messe)举办的  
 <Master of Modernity>，并获拜恩Design  
 颁发“拜恩大奖”，作品收藏于费城美术  
 馆、大英博物馆、V&A博物馆等。

1945年に忠清北道沃川郡で生まれたジョン  
 ・헤조는、韓國の漆工芸の保存、継承、そ  
 して発展のために努めてきた。アジアや欧州  
 等、全世界で認められ、韓國の現代の漆の世  
 界を広めている漆工芸家である。弘益大学校  
 で木漆工芸を専攻したジョン・헤조は、日本  
 の先進した漆工芸産業に刺激を受け、2004年  
 に世界で初めて培材大学校で漆工芸科を新設  
 し、修士課程を開設した。また、沃川郡でウ  
 ルシの栽培団地を作ることで、「漆産業地域  
 特区」としての指定に一翼を担う等、韓國の  
 漆工芸が発展できる基盤を設けた。2013年に  
 ミラノ家具博覧会特別展<韓國工芸の法古創  
 新>、2015年にパリ裝飾美術館で開催された  
 韓仏交流記念、韓國工芸展<코리아ナウ！>  
 展等で韓國工芸を世界に広める主な展示に参  
 加したことにより、功勞を認められ、2015  
 年には韓國文化勳章(玉冠)を受章した。2016  
 年にドイツミュンヘンのバイエルン国立美術  
 館で開催された<韓國工芸デザイン展>及び  
 國際手芸フェア(Internationale Handwerks  
 Messe)で開催された<Master of Modernity>  
 展に参与し、バイエルンデザインで授与する  
 「バイエルン大賞」を受賞した。フィラデル  
 フィア美術館、大英博物館、V&A博物館等が  
 作品を所有している。



**오색광물**  
 칠기, 2015  
 옷칠, 삼베  
 700x700x700

**Rhythm of the Colors Luster**  
 Lacquer, 2015  
 Ott-chil, hemp  
 700x700x700

CHUNG Hae-cho, who contributes to preserving, maintaining  
 and developing Korean Ottchil crafts, was born in Okcheon,  
 Chungcheongbuk-do in 1945 and studied wood lacquer craft at Hongik  
 University. Chung first started to learn Ottchil after meeting Ottchil  
 master craftsmen through his professor. He went to Japan to study at a  
 late age and was inspired by Japan's advanced Ottchil craft industry. In  
 2004, Chung founded the Department of Ottchil Art at Pai Chai University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nd opened a master's course. Also, Chung  
 created a lacquer tree cultivation area in Okcheon and contributed  
 to it being designated as 'special zone for lacquer industry', laying  
 the foundation for Korea's Ottchil craft to grow. Chung participated in  
 many exhibitions that showcased Korean craft to the world, including  
 the <Constancy and Change in Korean Traditional Craft>, a special  
 exhibition held at the Salone del Mobile, Milano in 2013, and the Korean  
 crafts exhibition <Korea Now!> that was held in Museum of Decorative  
 Arts in Paris in commemoration of the Korea-Franc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2015. His contributions were recognized and was  
 given the Order of Cultural Merit (Jeweled Crown) in 2015. Chung also  
 participated in the <Korean Crafts & Design Exhibition> held at the  
 Bayerisches Nationalmuseum in Munich, Germany and <Master of  
 Modernity> held by Internationale Handwerks Messe, and won the  
 Bayerisches Grand Prize at the Bayerisches Design in 2016. His works are  
 collected at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The British Museum, and  
 V&A Museum. Chung is a world-renown Ottchil craftsman, recognized in  
 Asia and Europe for his contemporary lacquer ware,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contemporary Ottchil.

〈모란당초문 흑칠 함(Black Otchiled Box with Ivy & Peony Design)〉은 내부에 공간이 있어 여러가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나전칠기 상자이다. 작가는 당초문에 모란문을 좌우 대칭으로 놓아 균형 잡힌 현대적 패턴으로 재구성하고, 바닥을 제외한 함의 모든 면에 이 문양을 배치했다. 전통적으로 모란당초문은 부귀영화와 화목, 장수, 장생(長生)을 상징하며,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 받은 문양이다. 기계로 자른 듯한 획일적인 문양이 아니라 작가의 감수성과 정체성이 살아있는듯 생동감이 넘친다. 사방 연속무늬로 끝없이 이어진 모란꽃들은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으며, 자연스럽지만 절제된 당초문의 표현은 경쾌한 율동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감성 충만한 문양들은 가장 단순한 직사각형의 검은 바탕 위에서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이 시대의 사물이 지녀야하는 현대적미를 보여주고 있다.





<牡丹唐草纹黑漆盒(Black Otchiled Box with Ivy & Peony Design)>内部拥有收纳空间,是可以保管各种物品的螺钿漆器盒子。创作者在唐草纹上放上了左右对称的牡丹花纹,由此形成了具有现代风味的图案,除了底面以外,盒子的各面所放的都是这一图案。从传统上来讲,牡丹唐草纹象征的是富贵荣华、和睦、长寿、长生,因此深受大众的喜爱。花纹并不是像用机器画出来的千篇一律的形状,而是体现了创作者的感性及存在感,其图案富有生动感。向四方蜿蜒的牡丹花虽美丽却不奢华,自然而节制的唐草纹带来了轻快的动感。充满感性的形状在单纯的四角形黑色底面上形成鲜明对比,让人感受到了当今时代的物品所应具备的现代美。

<牡丹唐草文様の黒漆箱(Black Otchiled Box with Ivy & Peony Design)>は、内部に空間があり、様々な物を保管できるように作られた螺鈿漆箱である。作家は、左右対称均等に装飾する唐草文様と牡丹文様を現代的なパターンに再構成し、底以外の箱の全ての面上記文様を配置させた。伝統的な牡丹唐草文様は、富貴栄華、和合、長寿長生を象徴しており、多くの大衆に愛されている文様である。機械で切断するように画一的な文様ではなく、作家の感受性とアイデンティティが生きているかのように鮮明さが溢れている。あちこちに連続模様として果てしなく続いている牡丹の花は、可憐であるものの、豪華感がなく、自然であるが、切除された唐草文様は、軽快な律動感を感じさせる。また、感動を与える文様は、最も単純な四角形の黒をベースにした物の上で鮮明さを引き出し、今の時代の物が持っていないなければならない現代的な美を表現してくれる。

<Black Otchiled Box with Ivy & Peony Design > is an otchiled (otchil: a traditional Korean technique of coating with the treated, dyed and dried sap of a lacquer tree; the sap of the lacquer tree) box inlaid with mother of pearl with a room inside that can contain a variety of items. The artist reinterpreted ivy and peony patterns in a modern style by striking a balance by placing former in the left and the latter in the right symmetrically and placing these patterns on every side of the box except the bottom. Traditionally, the ivy and peony patterns, symbolizing wealth and honor, harmony, and longevity, have long been one of the most loved one by people. Instead of standardized one as if to be cut by a machine, the patterns in this box is full of vitality to express the artist's emotion and identity. A series of peony patterns connected endlessly in all directions are exquisite but not luxurious; natural but understated expression of the ivy leads to a pleasant rhythmical sense. Those patterns full of sensitivity make vivid contrast against the simplest rectangular black background, displaying modernist beauty, a virtue of a modernist object today.

모란당초문 흑칠 함  
함, 2018  
오동나무, 옷칠, 자개, 삼베  
600x330x175,  
400x253x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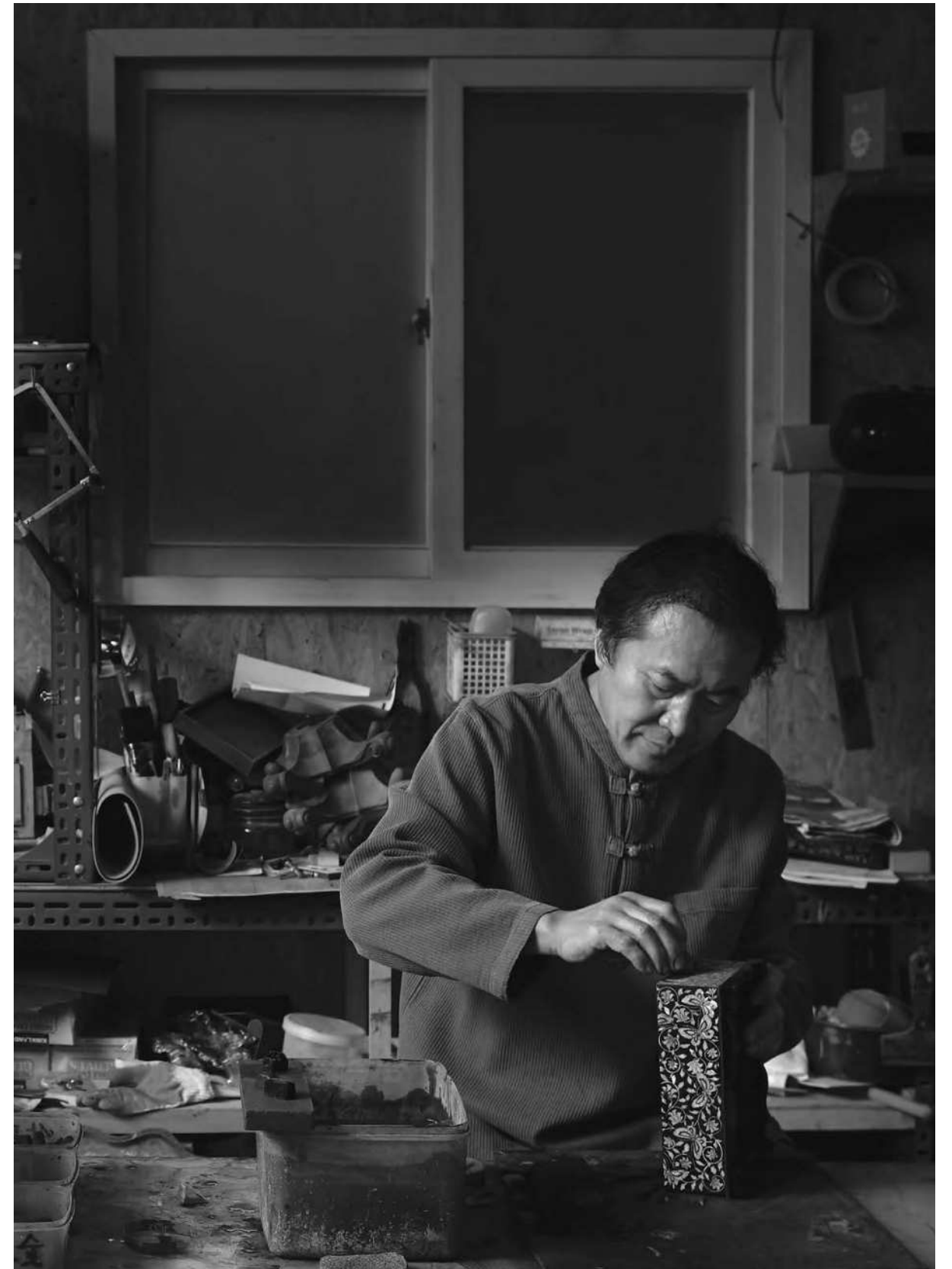
Black Otchiled Box with Ivy & Peony Design  
Box, 2018  
paulownia wood, Ott-chil,  
jagae(mother-of-pearl), hemp  
600x330x175, 400x253x145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나전칠기에 매료되어 이 일을 시작한지 55년이 다 되어 가지만 지금도 나전과 칠의 빛깔은 저를 설레게 합니다. 섬세한 작업이고 어찌 보면 고행과도 같지만 작품을 완성할 때 느낄 수 있는 보람과 성취감은 반 백 년이 넘도록 지치지 않은 열정을 가져다 준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전통을 재현하는 것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옛 것을 그대로 만들면 먼 미래에 이 물건이 어느 시대의 물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고유의 감수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명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끊임없는 혁신과 창조가 필요합니다.

我被散发着玲珑光泽的螺钿漆器所吸引，由此开始从事这项工艺，至今已经有五十五年的时间了，但直至如今，螺钿和漆的色泽也依然使我心动。这是一项细致的工作，可能有人会觉得很苦，但每完成一个作品时所体会到的成就感为我在过往的半百年间带来了源源不断的热情。可能有人会误以为这项工作是重现传统的，如果制作与古时物品一模一样的作品，可能在辽远的未来人们就无法分辨出这些到底是哪一时代的物品。然而我在努力以我们固有的感性和特点为基础，制作符合现今时代特色的精品，因此需要不断的创新创意。

「玲瓏な光を出す螺鈿漆器に魅了され、この仕事を始めて55年が経ちますが、今でも螺鈿と漆の光は私をとぎめかせてくれます。繊細な作業であり、どちらかというと苦行ともいえますが、作品を完成させたときの手ごたえと達成感は、50年を超えても絶えない情熱を持たせてくれる原動力ともいえます。間違って理解すれば、伝統を再現することと混合しやすいものです。昔の物をそのまま作れば、遠い未来において、この作品がいつの時代の作品であるか分かりません。私たち固有の感受性とアイデンティティを基に、今の時代に合った名品を作るため努力しております。そうするには、絶えず革新と想像創造が必要です。」

It has been 55 years since I started this work when I was captured by lacquerware inlaid with mother of pearl giving off iridescent light, but I am still so excited about the colors of mother of pearl and lacquerware. It is a sophisticated work and to some extent seems like penance, but a sense of reward and achievement has served as a driving force for tireless enthusiasm for the past over 50 years. It is easy to mistake my work for representing the tradition. When you make the things of the past as they were, you cannot tell from which era these objects come. Based on the contemporary unique emotion and identity, I make effort to create master pieces that can match with the days in which we live. To that end, constant innovation and creation is required.”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난 홍성환은 유리의 물리적 성질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리조형과 디자인을 창조하고 있는 유리 예술가이다. 홍익대학교 및 홍익대 대학원에서 도예와 공예디자인을 공부하였다. 대학원 졸업 후, 체코의 프라하국립응용미술대학교를 거쳐 핀란드의 알토대학교 유리 디자인과에서 유리의 물성과 조형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였다. 핀란드 유학 중인 2000년에 블로우 파이프의 헤드에 구멍이 여러 개 있는 '멀티 에어 홀 파이프'를 고안하여 영국과 핀란드에서 <바라 시리즈>를 처음 발표하였고, 이 작품으로 2005년 '엘코텍 이노베이션 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0년대 한국 공예의 독창적 계발과 다양한 실험의 필요성에 영향을 준 홍성환은 2015년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개최한 한불수교기념 한국공예전 <코리아 나무!>전에 참여하였으며, 프라하 장식미술관, 우크라이나 르비브 국립박물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SHON Dae-hyun 1949年出生于黄海道，是继承了螺钿漆器传统的首尔特别市1号无形文化遗产Ott漆匠，他将韩国传统花纹诠释为现代的图案，以此引领了螺钿漆器的现代化。1968年他在螺钿漆器名匠MIN Jong-tae（号“守谷”）老师门下学习螺钿的基本技术——Ott精制术、雕刻术等。1991年被指定为第1号螺钿漆器名匠，1997年被指定为首尔市无形文化遗产Ott漆匠，2002年因其螺钿漆器及Ott漆工艺为国家产业发展起到的贡献获得了铁塔产业勋章。2008年为纪念弗朗西斯教皇访韩，制作了挂到 Ongcheong艺术治愈博物馆天花板上的螺钿漆画，并持续参加在日本、美国、俄罗斯、德国、英国等各国的韩国文化院举行的展示会，起到了在全世界范围内宣传韩国螺钿漆器的作用。他的作品收藏于罗马教皇厅、国立民俗博物馆等。

1949年に黄海道で生まれたソン・デヒョンは、螺鈿漆器の伝統を継承するソウル特別市無形文化財第1号の漆匠であり、韓国の伝統文様を現代的パターンに再解釈することで、螺鈿漆器の現代化を牽引している作家である。1968年に螺鈿漆器の名匠であるミン・ジョンテ（MIN Jong-tae）先生の下で螺鈿漆器の基本技術である漆の精製技術やチョルムジル（青貝を文様の形に糸鋸等で抜き取る韓国特有の技法）等を取得した。1991年に第1号螺鈿漆器名匠となり、1997年にソウル市無形文化財漆匠として指定され、2002年に螺鈿漆器と漆工芸で国家産業発展に寄与した功績により、鉄塔産業勲章を授与された。2008年には、フランシスコ教皇の韓国訪問を記念し、オンチョン芸術治愈博物館の天井に螺鈿漆絵を制作し、日本、米国、ロシア、ドイツ、イギリス等、各国の韓国文化院で開催する展示に持続的に参加し、韓国の螺鈿漆器を世界に広める役割をした。彼の作品は、ローマ教皇庁、韓国国立民族博物館等が所有している。



**나전칠 나비당초무늬 의걸이장**  
옷장, 2001  
옷칠, 자개  
1675x830x550

**Lacquered Wardrobe with Butterfly and Scroll Design**  
Wardrobe, 2001  
Ottchil, Gagae(mother-of-pearl)  
1675x830x550

Seou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 SHON Dae-hyun, an Ottchil (lacquer varnishing) master craftsman, was born in Hwanghae-do in 1949. Shon started Ottchil when he was young by visiting a nearby lacquerware workshop. In 1968, he personally went to learn from the master craftsman of Najeonchilgi (lacquerware decorated with mother-of-pearl) Sugok MIN Jong-tae and acquired the basic skills of Najeonchilgi such as lacquer refinement and nacre carving technique. Shon was designated as No. 1 Master Craftsman of Najeonchilgi in 1991 and Seou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ttchiljang in 1997 and was awarded with the Iron Tower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in 2002 for his contribution to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Najeonchilgi and Ottchil crafts. Shon continued to participate in exhibitions held by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Japan, the U.S., Russia, Germany, and the UK to introduce Korea's Najeonchilgi to the world. In 2008, he created a mother-of-pearl lacquer painting on the ceiling of the Ongcheong Museum in commemoration of Pope Francis visiting Korea. His works are collected at the Vatican and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hon currently is an educator, nurturing the next young generation of craftsmen who will be keeping the tradition of Najeonchilgi alive at the Korean Traditional Crafts and Architecture School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continues his work of creating contemporary Najeonchilgi works that reflect the tradition as CEO of Ottchil workshop 'Sugok Workshop'.

〈눈꽃 무릎담요(Snow Flower Lab Blankets)〉는 체온 보호를 위해 간단히 덮거나 두를 수 있는 얇은 담요이다. 작가는 가운데 있는 커다란 주머니에 담요를 접어서 넣고 뒤집으면 쿠션이 되는 기능을 고안했고, 백색의 다양한 견직물 조각을 이어서 눈의 결정 모양을 만들어 이를 걸면의 문양으로 활용하였다. 조각보는 일상 생활에서 쓰다 남은 천을 활용하여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들던 생활의 지혜이며, 제한된 자원으로 공예를 실천하던 옛 여인들의 문화이기도 하다. 또한 조각천들을 나름대로 맞추고 있는 제작과정은 순수 창작의 기쁨으로 작용하여 조선시대 여성들의 정서와 삶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강금성은 한국의 전통적인 조각보를 재해석하여 동계 올림픽을 상징하는 눈과 한국의 정서를 반영하는 백색의 스펙트럼을 표현하였다. 오랜 경험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천 조각이 이어지는 시점의 규칙을 찾아낸 작가의 시간은 작은 바늘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집약된 침선 기술과 단아한 디자인 속에 염원과 인고의 미학으로 녹아 들어 감동으로 전해진다.





<雪花膝盖毯子(Snow Flower Lab Blankets)> 是为了保温而盖在身上或轻轻包在身上的薄毯子。创作者在毯子中间设置了一个较大的兜，可以将毯子折叠后塞进去，这样毯子就变成了一个靠垫；另外，将白色丝织品的碎片拼接起来，在毯子外侧形成了雪的结晶状。拼布本身利用的就是日常生活中用剩下来的布，将其用来制作有用的物件，因此可以说是生活智慧的结晶；同样也是古时妇女们所传下来的文化，利用有限的资源进行布艺文化活动。而按照自己的想法来拼接碎布，这也是一个能够让体会到创作之快感的制造过程，同时也是表达朝鲜时代妇女之情怀与生活的方式。KANG Geum-seong重新诠释了韩国传统拼布，用其表达出象征冬奥会的雪与体现韩国情调的白色色谱。通过长久的经验与各种尝试，创作者找出了折边的规则，使用小小的细针进行反复的缝合，在雅致的设计中融入象征期盼与忍耐痛苦的美学，传递出发自内心的感动。

<スノーフラワー模様の膝掛け(Snow Flower Lab Blankets)>は、体温保護のために簡単に掛けたりすることのできる薄いブランケットである。作家は、真ん中の大きなポケットに、ブランケットを折りたたんで収納して、裏返せばクッションになるよう考案し、また、多様な白色の絹織物のハギレを継ぎ合わせて雪の結晶模様にして、表面の模様として活用した。韓国のパッチワークは、日常生活で捨てられない余った布を活用して、役に立つ物を作っていた生活の知恵であり、限られた資源で工芸作品を制作していた昔の女性たちの文化でもある。また、ハギレを好みに合わせて継ぎ合わせる製作過程は、創作に喜びを与え、朝鮮時代の女性たちの情緒と生き方を表現する手段でもあった。作家、カン・グンソンは、韓国の伝統的なパッチワークを再解釈して、冬季オリンピックを象徴する雪と韓国の情緒を反映させた白色のスペクトルを表現した。長年の経験と多様な試みを通して、ハギレを継ぎ合わせる縫い代の方法を考え出した作家の時間により、小さい手縫い針の反復的な動きが集まった針線技術、そして、上品なデザインの中に願いと忍苦の美学を込めた感動を伝えている。

<Snow Flower Lab Blankets> is a thin blanket you can simply cover or wrap around your body to keep the body temperature. The artist thought of a function that worked by putting a folded blanket into a large bag located in the center and making a cushion by turning it inside out. The artist also made snow crystals by connecting various white silk fabrics and utilized the patterns in the outer surface. The quilt is wisdom of life to create a useful item by utilizing leftover scraps of cloth in daily life and a female culture of practicing crafts with limited resources. Also a production process of matching and connecting pieces of cloth gives pure pleasure from an act of creation, working as a way to express emotions and lives of the women in the Joseon dynasty. Kang expressed snow symbolizing the Olympic Games and a white spectrum reflecting Korean emotion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Korean quilts. The artist spent enormous time finding a rule of seams that connect pieces of cloth through experiences and various trials for a long period of time. This time is incorporated into aesthetics of longing and endurance expressed by needlework techniques that integrate repetitive motions of a small needle and elegant design, which touch minds of view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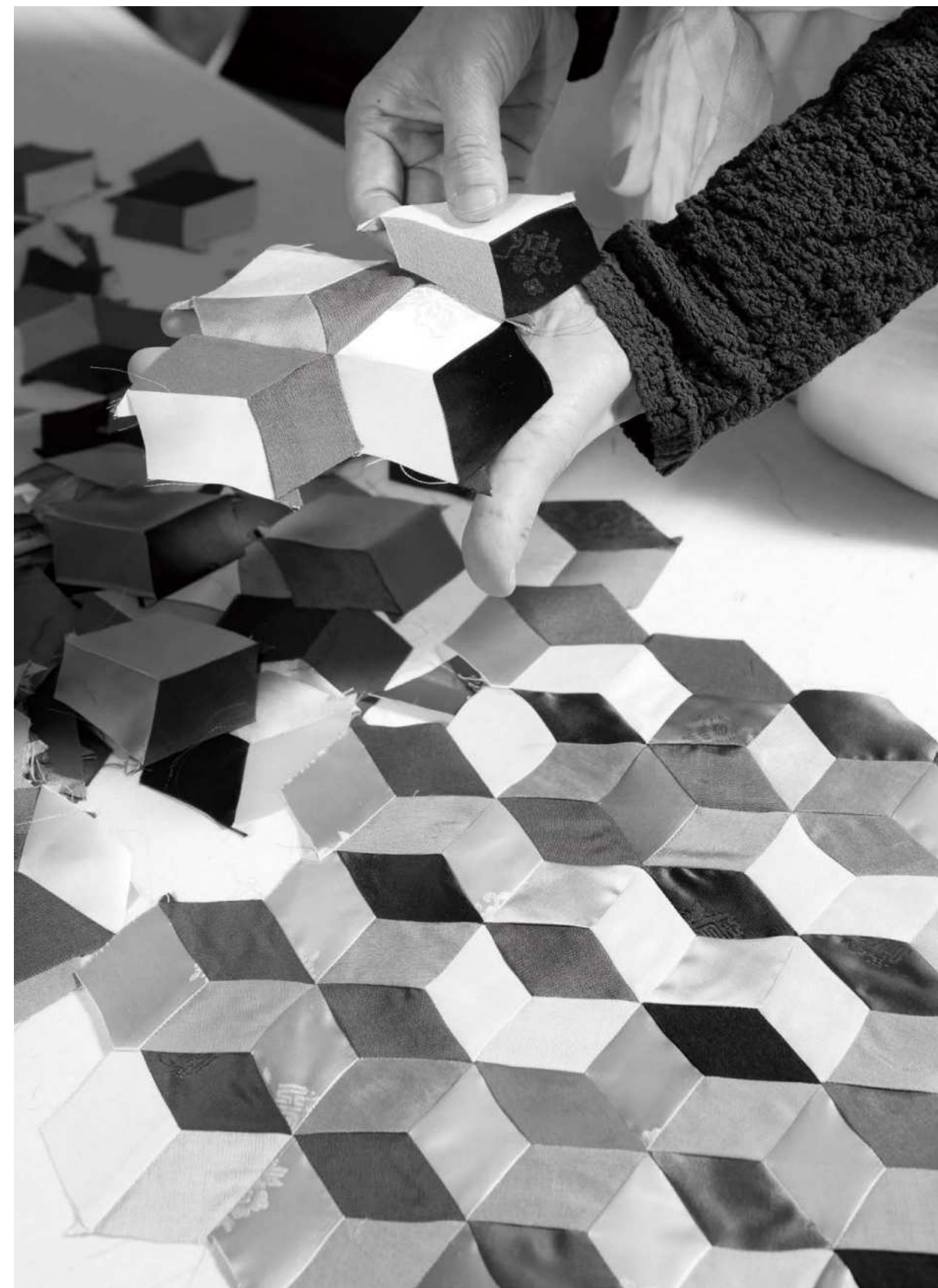
<b>눈꽃 무릎담요</b>	<b>Snow Flower Lab Blankets</b>
담요, 2018	Blanket, 2018
실크, 울스슴	silk, uls
1140x1420x20	1140x1420x20

같은 패턴의 조각보도 색 조합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작품에서는 전통 조각보의 다채로운 색의 배치보다는 겨울의 이미지와 한국의 정서를 함께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민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천조각을 잇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세계가 완성되거든요.

即使是同样图案的拼布，根据不同的色彩组合，也能带来无穷无尽的变化。而在本次作品中，与将传统的拼布按照不同颜色进行排布相比，我考虑更多的是打造能够将冬日气息与韩国情调诠释出来的设计方案。以忍耐的心将一个一个碎布拼接起来，不知不觉地，就打造出了我自己独有的世界。

「同じパッチワークでも色の組み合わせによって多様に変化させることができます。しかし、今回の作品では、韓国の伝統的なパッチワークである多彩な色の配置よりも、冬のイメージと韓国の情緒を一緒に表現できるデザインに重点を置き制作しました。忍耐強さと共に、ハギレを一枚ずつ継ぎ合わせていくにつれ、知らずと自分だけの世界を完成させることができます。」

Even with quilts with the same pattern, you can make countless changes depending on combinations of colors. But for this work, I thought over the design that could express the image of the winter and Korean sentiment rather than arrangements of various colors like those in the traditional quilts. While connecting pieces of cloth one by one with patience, my own world has been completed before I real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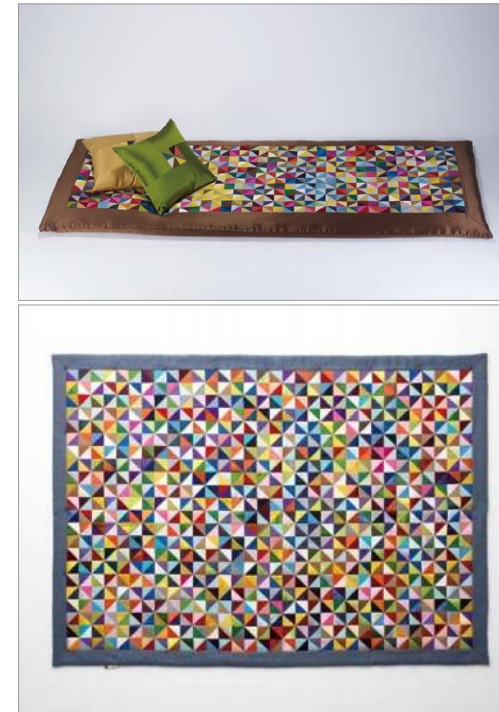




1959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난 강금성은 조각보의 전통적인 미감을 살린 현대적 감각의 침구류와 다양한 섬유소재의 생활용품을 제작하며 국내외 공예관련 전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섬유 공예가이다. 2001년 수공예 침구 브랜드 '빈 컬렉션(Viin Collection)'을 런칭하며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2013년 프랑스 생테띠엔 비엔날레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와 협업작품인 <조각보 프루스트 의자>를 선보였으며, 같은 해 밀라노 가구박람회 특별전 <한국공예의 법고창신>에 조각보 이불 작품을 출품하였다. 2017년에는 원혜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위크(MCBW) 주빈국 행사 <스마트를 넘어서, 휴먼 코넥션>에 작품을 전시하였고, 같은 행사의 조각보 워크숍을 통해 독일에 한국의 조각보를 알리는 일에 참여하였다.

KANG Geum-seong 1959年出生于庆尚北道安东, 是韩国代表性的纤维工艺家。她制作具有拼布传统美感的现代风格床上用品, 以及各种纤维材料生活用品, 活跃参加韩国国内外工艺相关的展示。2001年推出了手工艺床上用品品牌“Viin Collection”, 从此正式开始了创作活动。2013年, 在法国圣艾蒂安双年展上, 她与世界级设计师亚历山德罗·门迪尼(Alessandro Mendini)展出了合作作品<拼布普鲁斯特座椅>, 同年于米兰家具博览会特别展<韩国工艺的法古创新>上展示了拼布被子作品。2017年, 她在慕尼黑创意设计周(MCBW)主宾国活动<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上展示了其作品; 并借该活动的拼布工作坊之机, 在德国宣传了韩国拼布。

1959年に慶尚北道安東市で生まれたカン・グンソンは、ハギレの伝統的な美感を生かした現代的感觉の寝具類と多様な纖維素材の生活用品を制作しており、国内外工芸関連の展示に活発に参加している韓国の代表纖維工芸家である。2001年に手芸寝具ブランド「ヴィンコレクション(Viin Collection)」を立ち上げ、本格的な作品活動を始めた。2013年には、フランスのサンテティエンヌビエンナーレにて、世界的なデザイナー、アレッシェンドロ・メンディーニ(Alessandro Mendini)と協力して作り上げた作品である<プルーセントの椅子>を披露し、同年、ミラノ家具博覧会特別展<韓国工芸の法古創新>にハギレ布団作品を出展した。2017年には、ミュンヘンのクリエイティブビジネスウィーク(MCBW)の主賓国行事<スマートを超えて、ヒューマンコレクション! >に作品を展示し、ハギレワークショップを通して韓国ハギレを広める行事に参加した。



**눈꽃 무릎담요**  
담요, 2018  
실크, 울스슴  
1140x1420x20

**Snow Flower Lab Blankets**  
Blanket, 2018  
silk, uls  
1140x1420x20

KANG Geum-seong was born in Andong, Gyeongsangbuk-do in 1959. Growing up in a household with 4 generation living together, Kang acquired wisdom and eye for art by learning sewing and housework from her grandmothers. Her memory of her maternal grandmother making Hanbok, Korean traditional dress, and her experience learning quilt naturally led to Kang's interest in traditional patchwork. In 2001, Kang launched her handicraft bedding brand 'Viin Collection.' In 2013, Kang showcased the <Poltrona di Proust>, in collaboration with world-renowned designer Alessandro Mendini at the Biennale International Design Saint-Etienne. In the same year, she released her patchwork bedding artwork at the <Constancy and Change in Korean Traditional Craft>, a special exhibition held at the Salone del Mobile, Milano. In 2017, Kang participated in <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the partner country event of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MCBW) and also participated in promoting Korea's patchwork in Germany through patchwork workshops at the same event. Currently, CEO of VIIN Collection Kang designs various bedding and fabric products that reflects the traditional beauty of patchwork with a contemporary touch. Kang is an outstanding textile craftsman of Korea who actively participates in international exhibitions held at home and abroad.

〈나의 방(My Room)〉은 조선 후기(170)부터 유행했던 민중들의 그림인 민화 중에서 학문의 진흥과 면학 독려를 위해 그려졌던 '책거리'를 모티브로 하여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한 섬유공예가의 방 안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전체적인 그림을 기획한 정순주 작가는 호방염 기법(천연 재료를 조합해 만든 풀을 이용하여 염색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내부의 세밀한 문양과 사물들을 그렸으며, 그 가운데 모란꽃과 나비, 물고기 등 자연물의 생동감과 해학성을 강조하기 위해 박인숙 장인의 작품인 자수를 붙였다. 민화의 단순하고 자유분방한 표현에서 파생되는 해학과 익살은 높은 격조를 추구하는 사대부 회화와의 차별점이자 한국미를 표현하는 요소이다. 이 작품은 책거리라는 형식을 통해 오랜 세월동안 전해져 내려온 전통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현대에 이어가고 있는 공예가의 역할과 가치관에 대한 심정을 솔직하게 보여준다. 특히 두 공예가의 협업은 민화 형식의 또 다른 파격을 보여주며 한국 민중예술에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 동시대의 공예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我的房间(My Room)>这幅画以从朝鲜时代后期（17C）开始流行的民画中为鼓励学问振兴及勤学而画的“文房画”为基调，勾勒出了生活在现代的一位纤维工艺家房间里的风景。策划整幅画的创作者 JEONG Soon-joo使用糊防染技法（使用天然材料组合到一起制成的胶水来染色的技法），勾勒出内部的细节形状和事物，为了突出中间的牡丹花、蝴蝶、鱼等自然物品的生动感及诙谐性，在其上贴上了匠人 PARK In-sook的刺绣作品。民画的单纯而自由奔放的表达方式衍生出诙谐与幽默，与追求格调高雅的贵族的画在此方面凸显不同，同时这也是表达韩国美的元素。该作品通过文房画的形式展现出随着时间推移而传承下来的传统，也坦白地描述了创作者对于在现代社会延续传统的工艺家的角色及价值观持有何等心情。两位工艺家的合作也凸显出对民画形式的又一颠覆，并展示出了全新解读韩国民众艺术的当代工艺。。

<私の部屋 (My Room) >は、朝鮮後期（17C）から流行っていた民衆の絵である民話のうち学問の振興と勉学の督励のために描いた「책거리 (チェッコリ：授業後の打ち上げを意味する)」をモチーフにして、現代社会を生きている、ある繊維工芸家の部屋の風景を描いた絵である。全体的な絵を企画したジョン・スジュン作家は、糊防染技法（天然材料を組み合わせで作った糊を用いて染色する技法）を用いて、内部の精密な文様と物を描き、その真ん中に牡丹の花、蝶々、魚等の自然物のリアリティとユーモアを強調するために、パク・インスク職人の作品である刺繍を付けた。民話の単純で自由奔放な表現から派生するユーモアと滑稽さは、高い格調を追求する士大夫の会話との相違点であり、韓国の美を表現する要素でもある。本作品は、チェッコリという形式を通して、長い間伝えられてきた伝統と、それを受け入れ、現代に引き継いでいる工芸家の役割と価値観に対する心情を素直に表現している。特に、二人の工芸家の協業は、民話形式のまた別の型破りを見せており、韓国民衆芸術に新しく接近しているゼネレーション工芸を証明している。

<My Room> is a painting depicting the inside scene of the fiber artist living today's world inspired by a motif of "Books and Scholars' Accouterments," a type of the folk painting, popular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17th century) created by commoners to encourage promotion of studying and academic pursuit. Jeong, the artist who planned the entire painting, depicted delicate patterns and objects inside by taking hobangyeom, a technique dyeing objects with paste made by combining natural ingredients, and attached embroidery works by a master, In-sook Park to Satire, emphasize vitality and satire from natural objects such as the peony, butterfly, and fish. Wit and satire derived from simple and free expressions are the difference from the paintings by scholar officials pursuing prestigious style, and elements to stand for Korean beauty. In the form of the Scholars' Accouterments, how the artist feels about the roles and a view of the craft artist, who accepts the tradition that has been passed on to for a long time and succeeds it in today's living, is honestly depicted. Especially, the collaboration of the two craft artists shows breaking rules of the type of the folk painting and identifies the status of contemporary craft art that approaches the Minjung art (a South Korean political and populist art movement, born in 1980).

**나의 방**

민화(책가도), 2018  
비단, 산성염료, 비단실  
1570x1000x50

**My Room**

Painting of Scholar's Equipment, 2018  
silk, acid dye, silk thread  
1570x1000x50

지역 공예마을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은 박인숙 선생님과 함께 협업을 통하여 자수와 염색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민화의 매력은 규정지어지지 않은 형식과 유머입니다. 때문에 형식과 내용 사이에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는 삶에 있어서도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작가로서, 엄마로서, 교육자로서 역할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이 나하기에 어떤 특별한 것이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我与PARK In-sook大师通过地区工艺村培育项目相识，此次一同合作，想打造出刺绣与染色的完美结合。民画的魅力在于不受局限的形式和幽默，因此更需要形式与内容实现调和与均衡。在日常生活中，我也始终努力维持生活的均衡，作为创作者、母亲、教育者，虽然有着多重身份，但无论哪一种角色，其实都是我，我希望在各种角色之中不发生偏重，作品也是一样，我努力保持创作的均衡性。

「刺繍と染色の調和を作り出したい、地域工芸育成プログラムを通して親しくなったパク・インスク先生と共に協業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民話の魅力は、規定のない形式とユーモアです。そのため、形式と内容との間に調和と均等さが重要です。私は、生活においても均等さを忘れずに努力しています。作家として、母として、教育者として、役割は多いですが、その全てが私ですので、偏らないように均一に作業していけるよう努めています。

With collaboration with Park In-sook who I got acquainted with the program to foster the craft of the local town, I intended to create harmony between embroidery and dyeing. Attraction of the folk painting is unregulated form and humor; thereby, harmony and balance is required between the form and the content. I try not to lose balance in my life, too. I have many roles—a writer, a mother, and an educator—but since every role represents me, I try to strike a balance among them, maintain it and continue working on it without tilting one-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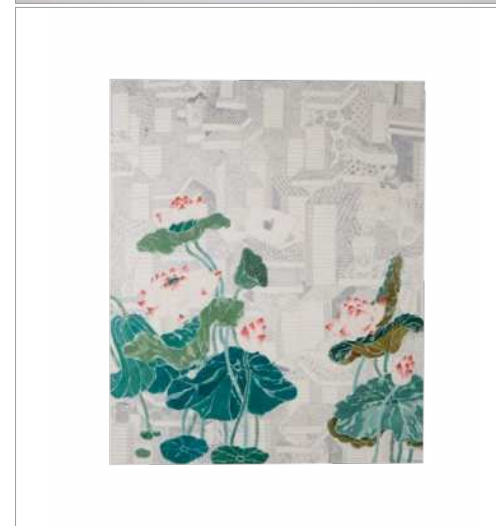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및 홍익대 대학원에서 섬유미술을 공부한 정순주는 전통 문양과 민화의 서사적인 내용을 소재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섬유 공예가이다. 일본 동경예술대학교 대학원에서 염색을 공부하며 한국 문화와 감성을 표현할 소재와 기법을 연구한 정순주는 귀국 후 호방염 기법을 사용하여 민화와 전통 문양을 모티브로 한 스카프와 가방, 핸드폰 케이스, 스툴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제작, 발표하였다. 2015년 파리장식미술관에서 개최된 한불수교기념 한국공예전 <코리아 나우>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염색공방 '플라뇌르(Flaneur)'를 운영하며 고대섬유에 나타난 문양과 한국 민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JEONG Soon-joo 1969年生于首尔，是一位纤维艺术家，曾在弘益大学本科及研究生院学习纤维美术，现从事以传统花纹与民画叙事性内容为素材的创作活动。她在日本东京艺术大学研究生院学习了染色，并研究能够表达韩国文化与感性的素材及技术，归国后制作并发布了使用糊防染技术以民画及传统花纹为基调制作的丝巾、包、手机壳、凳子等各种产品。2015年参加了在巴黎装饰美术馆里举办的韩法建交纪念韩国工艺展<Korea Now!>，目前经营染色工坊“Flaneur”，延续古代纤维中出现的花纹及韩国民花的传统。

1969年にソウルで生まれ、弘益大学校及び弘益大学校大学院で繊維美術を学んだジョン・スンジュは、伝統の文様と民話の叙述の内容を素材にして作品活動をしている繊維工芸家である。東京芸術大学大学院で染色を学び、韓国文化と感性を表現する素材と技法を研究したジョン・スンジュは、帰国後、染色技法を用いて民話と伝統文様をモチーフにしたスカーフ、カバン、携帯電話のケース、スツール等の多様な作品を制作し、発表した。2015年にパリ装飾美術館で開催された韓仏交流記念、韓国工芸展<코리아 ナウ！>展に参加し、現在は、染色工房「フラネール(Flaneur)」を運営しており、古代繊維に示されている文様と韓国の民話の伝統を継承している。



눈꽃 무늬담요 Snow Flower Lab Blankets  
담요, 2018 Blanket, 2018  
실크, 울스름 silk, uls  
1140x1420x20 1140x1420x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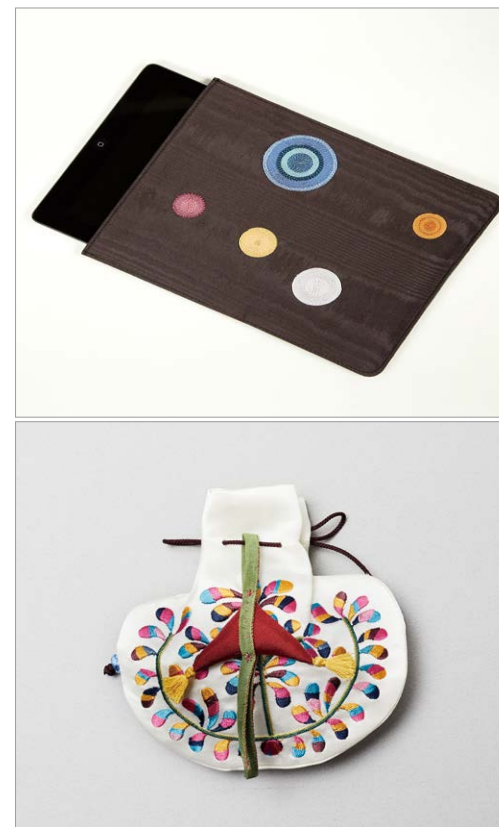
JEONG Soon-joo, who works with traditional patterns and descriptive content of folk painting as materials, was born in Seoul in 1969 and studied textile art in Hongik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in Korea and majored in dyeing at Graduate School of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in Japan. During her study abroad, Jeong studied materials and techniques to express the sentiment of Korean culture. After returning to Korea, Jeong created and released various works including scarfs, bags, cell phone cases and stools that were made with using Hobangyeom, a type of resist dyeing technique with folk painting and traditional patterns as motif. Jeong participated in the Korean crafts exhibition <Korea Now!> that was held in Museum of Decorative Arts in Paris in commemoration of the Korea-Franc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2015. Jeong manages dyeing workshop ‘Flaneur’ continuing her work as a textile craftsman and keeping the tradition of patterns found on ancient textiles and Korean folk painting alive.



1956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지금의 실내건축학과)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박인숙은 강릉의 전통자수를 계승하고 있는 강릉자수 장인이다. 2002년부터 대한민국 자수명장인 김현희 선생에게 한국 전통자수 기법을 사사하고 2008년 첫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2016년 지역 공예마을 육성을 위한 공예상품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같은 해 공예트렌트페어에서 강릉자수를 입체적으로 놓아 만든 작품이 소개되었다. 자수 및 보자기와 관련된 국내외 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하였으며, 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규방공예와 보자기를 가르치고 있다. 박인숙 장인의 작품은 강릉시와 국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사이타마현 지치부시에 소장되어 있다.

PARK In-sook 1956年生于江原道江陵，是江陵刺绣匠人，在延世大学住生活学系（现在的室内建筑学系）学习设计，继承了江陵的传统刺绣。自2002年起，在大韩民国刺绣名匠Kim Hyeon-hui老师门下学习韩国传统刺绣技术，并于2008年开办了首个个人展。2016年，参与了为培育地区工艺村而进行的工艺商品开发活动，同年，工艺潮流博览会上介绍了她立体刺绣完成的江陵刺绣作品。在国内外刺绣及布相关的大奖赛上多次获奖，现于江陵原州大学终身教育学院教闺房工艺及布艺。PARK In-sook匠人的作品收藏于江陵市的姐妹城日本埼玉县秩父市。

1956年に江原道江陵市で生まれ、延世大学校主生活学科(現在：室内建築学科)でデザインを学んだパク・インスクは、江陵市の伝統的刺繍を継承している江陵刺繍の匠である。2002年から韓国刺繍名匠であるキム・ヒョンヒ先生から韓国の伝統刺繍技法を師事し、2008年に第1回個人展を設けた。2016年に地域工芸町育成のための工芸商品の開発に参与し、工芸トレンドフェアにて江陵刺繍を立体的に製作した作品が紹介された。刺繍及び風呂敷の国内外公募展で多数入賞し、江陵原州大学校の生涯教育院で閨房(キュバン)工芸と風呂敷を教えている。パク・インスク職人の作品は、江陵市と国際姉妹結縁している埼玉県秩父市が所有している



눈꽃 무릎담요 Snow Flower Lab Blankets  
담요, 2018 Blanket, 2018  
실크, 울스름 silk, uls  
1140x1420x20 1140x1420x20

PARK In-sook, who teaches boudoir craft and patchwork at Lifelong Education Center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was born in Gangneung, Gangwon-do in 1956 and studied design at College of Human Ecology, Yonsei University (Interior Architecture & Built Environment). In 2002, Park learned Korean traditional embroidery technique from Korea's Master Craftsman in embroidery Kim Hyeon-hui and opened her first solo exhibition in 2008. Park has many awards from competitions related to embroidery and patchwork held in Korea and overseas. Park's works are collected by Chichibu-city, Saitama, Japan, which has a sisterhood relationship with Gangneung City. Park is a Gangneung embroidery master craftsman, who is keeping the tradition of Gangneung embroidery alive by participating in developing embroidery of animals and plants that has three dimensional effect.

〈종이꽃\_목단(Korean Paper Flower\_Peony Blossom)〉은 한지로 만든 모란꽃 150송이를 전시장 벽면에 설치한 작품이다. 작가는 순수한 백색의 한지와 꽃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전통 지화공예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고유한 자연관을 표출한다. 옛 선인들은 아름다운 꽃의 생명감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고 생명력이 짧은 생화대신 값이 싸고 구하기 쉬운 한지로 꽃을 만들어 사치와 낭비를 줄이고 청결한 사용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작가에게 있어 종이(한지)꽃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생명존중 사상을 드러내며, 현대인들의 정서 순화와 심신의 풍요를 도모하는 재생과 염원을 담은 상징물이기도 하다. 또한 작가가 선택한 설치라는 방법은 지화공예의 전통적 제시 방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란꽃 고유의 화려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벽면을 꽃으로 가득 채우는 설치방법은 꽃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



<纸花\_牡丹(Korean Paper Flower\_Peony Blossom)>是用韩纸作成的一百五十朵牡丹花，展示于展馆的墙面上。创作者以纯白色的韩纸和花为素材，表达出了融汇于传统纸花工艺之中的先人智慧和固有的自然观。先人们认为对于美丽的花来说，生命感最为重要，因此选择的不是生命力极短且难以获得的鲜花，而是价格低廉并且能够轻松到手的韩纸所作成的花，拒绝奢侈浪费，实现了材料的清洁使用。因此对于创作者来说，纸（韩纸）花不仅是隐含着对于大自然的敬畏之心与尊重生命思想的对象，也是一种象征期盼为现代人带来一丝情绪上的净化，使人们的身心得到恢复。创作者所选择的装置方法也是对于纸花工艺传统展示方式的一个全新挑战，保持牡丹花华丽形状的同时，将朵朵纸花装满墙面的方法可谓有效突出了对花的正面评价。

<韓紙花\_牡丹(Korean Paper Flower\_Peony Blossom)>は、韓紙で作られた牡丹の花150本を展示場の壁面に設置した作品である。作家は、純粋な白色の韓紙と花という素材を通して、伝統の紙花工芸に込めた先祖たちの知恵と、固有の自然観を表現した。昔の先人たちは、美しい花の生命を大事にしていたため、手に入れにくく、寿命の短い生花の代わりに、安価で手に入れやすい韓紙で花を作り、奢侈や浪費を減らし、清潔な使用を図った。作家によって作成された紙（韓紙）花は、自然に対する敬意と、生命共存の思想が表現されており、現代人の情緒純化と、心身の豊かさを図る再生と願いを込めた象徴物でもある。また、作家が選択した設置方法は、紙花工芸の伝統的な提示方式に対する新たな挑戦であると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牡丹の花固有の可憐な形態をそのまま維持することと、壁面を花でいっぱいにする設置方法は、花に対する肯定的な側面を効果的に強調させている。

<Korean Paper Flower\_Peony Blossom> is an installation of 150 peony flower blossoms made of hanji on the wall of the exhibit hall. The artist delivers wisdom of ancestors passed on to through traditional Korean paper craft and the unique outlook on nature by introducing subject matters of pure white hanji and a flower. Korean ancestors highly valued life of beautiful flowers, so instead of hard-to-get real flowers with short life, they made flowers with inexpensive and readily available hanji so as to reduce extravagance and waste and promote clean use. Therefore, to the artist, the paper flowers show awe to nature and respect for life and at the same time present a symbol that holds restoration and longing for promoting refinement of emotions and enrichment of the mind and the body. Adopting installation as a means can be understood a new challenge against conventional presentation methods of paper craft. Maintaining unique and exquisite shapes of peony and an installation method of filling the wall with flowers can effectively highlight positive aspects of flowers.

**종이꽃\_목단**

의례용 조화, 2018  
한지, 철사  
Φ150 etc.

**Korean Paper Flower\_Peony Blossom**

Ceremonial paper flowers, 2018  
Korean mulberry paper, wire  
Φ150 etc.



잘 생각해보면 한지의 시작과 끝은 자연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한지는 주택의 천정, 벽, 방바닥, 창호 등에 사용되었고, 문구와 일상생활용품의 재료로도 쓰였습니다. 오늘날 산업의 발달과 함께 화학적 재료들이 쏟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는 이 때, 한지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능력은 그 자체 만으로도 매력이 아닐 수 없죠. 사실 예술은 수많은 기법과 장르,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법과 표현방법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가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 예술의 최종의 목적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나는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내 작품을 통해 각기 개인의 자유로운 해석으로 자연의 따뜻한 아름다움과 한지의 우수성을 동시에 느끼길 바랍니다.

仔细想来, 韩纸的起点与终点都是大自然。我们固有的传统韩纸用于住宅的棚顶、墙壁、地面、窗户等处, 也用作文具与日常生活用品的材料。如今随着工业的发达, 化学材料一涌而出, 因此环境问题引人忧心, 在这种情况下, 韩纸所拥有的大自然的能力不再局限于其本身。其实艺术拥有各种不同的表达技法、题材、方向, 艺术的最终目的绝不在于通过自己独有的技法和表达方式让人看到创作者的内心世界。我希望欣赏作品的每一个人按照各自的方式自由解读我的作品, 与此同时感受到大自然的温暖与韩纸的优秀。

「よく考えてみると、韓紙（ハンジ）の始まりと終わりは自然にあります。韓国固有の伝統的な韓紙は、住宅の天井、壁、床、窓や戸等に使われ、文具や日常生活用品の材料にも使われていました。産業の発達と共に化学材料が溢れ、環境に対する多くの問題が提起されている今、韓紙が有している自然の能力は、そのものだけでも魅力的です。実際、芸術は、多くの技法とジャンル、そして、方向性を有しています。その中で自分しかできない技法や表現方法を通して誰かに作家の内面をみせることが、芸術の最終目的ではないと考えます。私は、観覧していただいた方たちが、私の作品を通して、それぞれ個人の自由な解釈で、自然の温かい美しさと、韓紙の卓越さを同時に感じ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If you think about it, the beginning and end of hanji (traditional handmade Korean paper) is nature." Hanji was used for the ceilings, walls, floors, windows and doors of houses, and materials for stationery and daily living items. Today, as chemical materials are poured into the environment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y, many issues on the environment are being raised. At this point, hanji indeed holds great attractions only with its intrinsic natural qualities. In fact, arts have a number of techniques, genres and certain directions. Showing the inside of the artist to someone through his or her unique technique or expression method would never be a final goal of art. I hope that viewers could feel the warm beauty from nature and excellence of hanji by their free individual interpretations on my work."





1959년 전라북도 완주에서 태어난 이순재는 한국의 전통 종이인 한지를 이용하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만드는 한지 공예가이다. 종이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 종이장식 명인 1호이기도 한 이순재는 종이접기를 하며 한지를 재료로 다루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전통 한지공예에 입문하였다. 종이로 꽃을 비롯한 다양한 조형물을 만드는 종이장식 분야를 개척하며 종이장식연구회를 설립한 그녀는 전통 지화공예의 자료를 수집 연구하며 어사화, 궁중상화 재현에 참여하였고, 2010년 G20 세계정상회의 기간에 서울시가 주최한 <세계 등축제>에서 참가국의 국화를 한지로 제작, 설치하여 호평을 받았다. 한국 종이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국회 문광위원장 공로상'을 수상하고 현재 '한국종이장식월드'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LEE Soon-jae 1959年生于全罗北道完州，她是一位韩纸工艺家，利用韩国传统韩纸创作融合传统与现代的作品。她是纸文化财团选定的大韩民国1号纸装饰名人，借着一次用韩纸叠纸的契机，她走上了传统韩纸工艺的道路，她开拓了用纸来做花及其他造型物的纸装饰领域，并设立了纸装饰研究会，收集、研究传统纸花工艺的材料，并参与了御赐花、宫中床花的再现工作。2010年G20峰会期间在首尔市举办的<世界灯庆典>上，她用韩纸制作、安置了参会国国画，获得了高度好评。她因为韩国纸文化发展所做出的贡献获得了“大韩民国国会文化观光委员会委员长功劳奖”，目前正在经营“韩国纸装饰世界”

1959年に全羅北道完州郡で生まれたイ・スンジェは、韓国の伝統的な紙である韓紙(ハンジ)を用いて、伝統と現代を混ぜ合わせた作品を作る韓紙の工芸家である。紙文化財団で選定する韓国の紙装飾名人1号でもあるイ・スンジェは、折り紙をする際に、韓紙を材料としたのが機会となり、伝統の韓紙工芸に入門した。紙で、花をはじめ、多様な造形物を作る紙装飾分野を開拓し、紙装飾研究会を設立したイ・スンジェは、伝統の紙花工芸の材料を収集して研究し、御賜花、宮中床花(宮中の祝宴等の際に作られた紙花)の再現に参与し、2010年のG20サミットの期間にソウル市が主催した<世界灯祝祭>で参加国の国花を韓紙で製作して設置し、好評を受けた。韓国の紙文化の発展に寄与した功勞により、「韓国国家文化観光委員長勤勞賞」を受賞し、現在、「韓国紙装飾ワールド」の代表として活動している。



LEE Soon-jae is designated as master of paper decoration No. 1 by the Paper Culture Foundation. Lee was born in Wanju, Jeollabuk-do in 1959. Lee entered the field of traditional Hanji (Korean traditional paper) crafts through her experience of using Hanji in origami. He created a new field of paper decorations that creates various sculptures with paper, including flowers, and established Paper Decoration Research Group. Lee collected information on and studied traditional paper flower crafts, which makes flowers with Hanji, and participated in recreating the Eosahwa (flowers that were presented by the king to those who had passed the state civil service exams) and court table flowers. In 2010, at the Seoul Lantern Festival during the period of the G20 Summit, Lee was highly acclaimed for his creation and installation of national flowers of participating countries made in Hanji. Lee was awarded the Lifetime Achievement Award by the National Assembly's Culture and Tourism Committee for hi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paper culture. She currently heads the 'Korea Paper Decoration World' as a Hanji craftsman, creating crafts that harmonizes the tradition and the contemporary by using Korea's traditional paper Hanji.

**눈꽃 무릎담요**  
담요, 2018  
실크, 울스슴  
1140x1420x20

**Snow Flower Lab Blankets**  
Blanket, 2018  
silk, uls  
1140x1420x20

# 4

## PART

### 코리안 아트 주얼리

韩国艺术

饰 コリアンアートジュエリ

KOREAN ART JEWELTY

코리안 아트 주얼리는 말총, 완초, 모시, 옥 등 한국 전통공예의 지역적 특산 소재와 입사, 세션, 타출, (불교) 조각 등 한국의 공예기술이 지닌 역사성을 바탕으로 대비와 강조, 단순과 추상 등의 현대미술적 표현 요소를 보여주는 현대장신구 작가 8명의 아트 주얼리를 전시 속 전시 형식으로 소개한다. 이 전시에서 소개하는 작품들은 한국 전통공예의 소재와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것들로 유구한 역사와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적 특성, 법고창신의 정신을 뿌리를 두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현대공예의 모습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此次以展中展的形式介绍八位现代装饰品创作者的艺术珠宝首饰。韩国艺术珠宝首饰使用马鬃、菀草、苧麻、玉等韩国传统工艺的地区特产材料，以入丝、累丝、打出、（佛教）雕塑等韩国工艺技术所拥有的历史特点为基础，呈现对比与强调、单纯与抽象等现代美术表现元素。本次展出的作品是使用韩国传统工艺材料及技术几座而成的，集中显现了扎根于悠久的历史、四季分明的环境特点、法古创新的精神，并且如今也在不断发展变化的韩国现代工艺。

코리아나아트주얼리는、馬尾毛、イグサ、モシ（カラムシで織った布）、玉等の韓国伝統工芸の自然特産素材、入絲、フィリグリー、打出、（仏教）彫刻等の韓国の工芸技術が有する歴史に基づいて対比と強調、単純と抽象等の現代美術的表現要素を見せている現代アクセサリー作家8名のアートジュエリーを展示形式で紹介する。本展示にて紹介する作品は、韓国伝統工芸の素材と技術を用いて制作されたものであって、悠久な歴史と四季折々がはっきりした環境的特性、法古創新（意味：昔の物を手本として、新しい物を創造する）の精神に根源があり、着実に変化している韓国の現代工芸の姿を最も集約して表現している。

The “Korean Art Jewelry” section, as a segment exhibition, introduces jewelry works by eight contemporary Korean jewelry artists who display expressive elements for contemporary art such as contrast, emphasis, simplicity and abstraction by utilizing materials indigenous to Korea including horsehair, rush, ramie fabric and jade based on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craft art such as metal inlay, a technique for filigree, a beating technique and (Buddhist) sculpture. The artworks in this exhibition, created by using the materials connected to traditional Korean craft and techniques, display the essence of today’s scene of contemporary Korean craft that has consistently changed throughout the course of its long history,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at arise from the four seasons, and the spirit of creating what is new by following the examples of the past.

〈경중단온(輕重端溫, Power of Space Perception)〉은 한국의 산 속에 존재하는 새와 대나무, 새싹과 꽃, 열매 등을 옥으로 표현한 브로치이다. 동양에서 가장 고급으로 여겨지던 옥은 삼국시대에 크게 유행하여 왕실을 비롯한 고위 계층의 전유물이 되었다. 또한 옛 선조들은 옥에 인본사상(人本思想)과 각종 덕목이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한 장식적 공예품으로서 만이 아니라 예제(禮制)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취급하여 귀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옥은 작가에게 있어 중요한 재료이자 매개체로 기능한다. 옥으로 만든 새싹, 매화꽃, 열매, 은으로 만든 새, 대나무로 만든 가지 등을 결합해 구성한 이 작품은 입체적으로 그려진 한 폭의 동양화처럼 구성적 비례미와 선의 기하학적 형태가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작가는 지극히 순결하고 신성한 또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겨지는 옥에 대한 전통적 의미와 가치를 작품 속의 자연물에 투영함으로써 작가가 지닌 한국적 정서와 자연 미학을 드러내고 있다.





<轻重端温(Power of Space Perception)>是将韩国山中的鸟、竹子、嫩苗、花、果实等用玉表达出来的胸针。玉一向被认为是东方最高级的物品，从三国时代开始流行，并成为了王室及高层人士的专属物品。另外，先祖们将人本思想与各种德行投射于玉的形象之上，因此玉不仅仅是单纯的装饰工艺品，更成为了人们眼中象征礼制的贵重宝石。然而在本次作品中，创作者将玉用作了重要的材料与媒介，用玉来做嫩芽、梅花、果实，用银子来做鸟，用竹子做树枝，并将这些相结合，成为了这一作品。看起来像一幅立体的东洋画，其比例与线条的几何形状营造出抒情氛围。创作者使用被人看作为纯洁、神圣、宝贵、美丽的宝石——玉，将传统意义与价值赋予到作品中的自然物品中，由此倾诉创作者的韩国情怀与自然美学。

<空間感覚の力(轻重端温, Power of Space Perception)>は、韓国の山の中に存在する鳥と竹、新芽と花、木の実等を玉で表現したブローチである。東洋で最も高級とされてきた玉は、三国時代に大きく流行し、王室を始め、高位階層の専有物となった。また、昔の先祖らは、玉に人体思想と各種の徳目が投影されていると考えて、単純な装飾工芸品としてだけではなく礼制を象徴する宝石として取扱われ、貴重に扱われた。しかし、本作品において、玉は、作家にとって重要な材料であり、媒体として機能する。玉で作った新芽、梅の花、木の実と、銀で作った鳥、竹とに制作した幹等を結合して構成した本作品は、立体的に描いた1つの東洋画のように、構成的な比例の美と線の幾何学的な形態が叙情的な雰囲気をもたらし、作家は、極めて純で、神聖でかつ貴重な美しい宝石と思われる玉に対する伝統的な意味と価値を作品の中の自然物に投影することで、作家が有する韓国的情緒と自然美学を表現している。

<Power of Space Perception> is a brooch made of jade depicting the bird, bamboo, sprout, flower, fruit, and others from mountains in Korea. Jade, which had been considered the highest quality material in the East, was very popular in the Three Kingdoms of Korea and became an exclusive property of the high class including the royal family. Besides, Korean ancestors thought that humanism and other various virtues are reflected in jade so that they treated it preciously as a jewel to stand for customs and rituals. However, in this work, jade serves as an important material and medium. Consisting of sprout, apricot flowers and fruits made of jade, silver birds, and branches made of bamboo trees, this work creates a lyrical atmosphere with compositional proportion and geometrical shapes of lines like a painting of the Eastern art with a three-dimensional aspect. By projecting traditional implications and values about jade, which is considered absolutely pure, sacred, precious and beautiful jewel, into the natural objects in the work, the artist shows her Korean sentiment and aesthetics on nature.

<b>경중단운</b>	<b>Power of Space Perception</b>
브로치, 2018	Brooch, 2018
bamboo, jade, onyx, sterling silver	bamboo, jade, onyx, sterling silver
80x80x10, 70x70x10	80x80x10, 70x70x10

옥은 빛을 머금은 듯, 반투명의 은은한 광채가 마음 속으로 촉촉이 젖어 드는 듯, 신비하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귀한 신변 장식품으로 사용되어 왔다. 지극히 순수한 무색에서부터 비취의 청옥(靑玉), 황옥(黃玉), 자색옥(紫色玉) 등 다양한 색상이 매력이며, 우리나라 강원도 춘천 옥광(玉鑛)에서 생산되는 옥은 무척 아름답다... 강릉의 오죽(烏竹), 강원도 춘천의 옥(玉)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나의 영원한 주제인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의 작업에 담겨있는 한국적 정서 위에 시대적방향성과 기교를 뛰어 넘어 자연을 배우고 그것을 담고자 힘을 모으고 있다.

玉仿佛蕴含着光泽，宛如半透明的隐隐光彩滋润着心头，因其神秘感，从古至今人们将其用作贵重的随身装饰品。从单纯的无色玉开始，到属翡翠类的青玉、黄玉、紫色玉等，各种迷人的色彩吸引了我。韩国江原道春川玉矿中所产的玉十分美丽……使用江陵的乌竹、江原道春川的玉等材料，想要表达我的永恒主题——韩国情怀。我还力图向大自然学习，并在我的工作中所包含的韩国情怀上融汇超越时代方向与技巧的大自然元素。

「玉は、光を含むように、半透明の淡い光体が心の中でしっとりと浸るように、神秘で、古代から現代に至るまで、貴重で身近な装飾品として使われてきました。極めて純粋な無色から翡翠の青玉、黄玉、紫色玉等の多様な色が魅力で、韓国江原道春川市のオグファン（玉鑛）で生産される玉は、非常に美しいです。江陵市のシチク、江原道春川市の玉等の材料を使用して、私の永遠のテーマである韓国的情緒を表現したく制作しました。私の作業に込められている韓国的情緒の上に時代的方向性と技巧を超えて自然を学び、それを込めることに力を注いでいます。

Since jade is considered mysterious as if it bore light in itself and its translucent and delicate luminescence imbued our minds, it has been used for precious personal accessories from the ancient times to contemporary days. People are captivated by a variety of colors ranging from utterly pure colorlessness to green-jade, yellow-jade, to purple-jade, and especially one unearthed from the jade mine in Chuncheon, Gangwon Province of Korea is very beautiful. By using black bamboo from Gangneung and jade from Chuncheon as materials, I intended to express Korean sentiment, which is my permanent subject matter. I try to learn from nature and hold it in my works beyond a temporal direction and technical skills, based on Korean senti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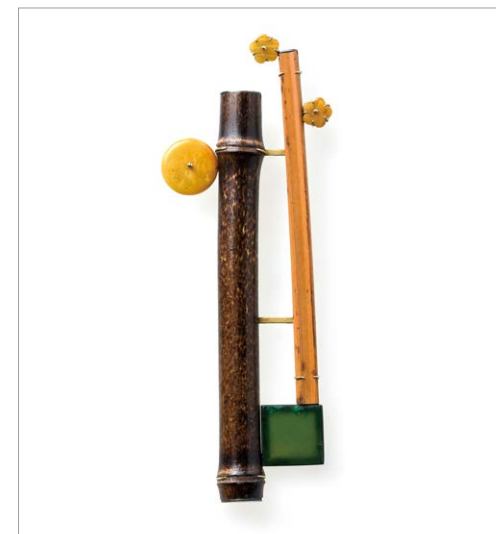




1946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난 김재영은 어린시절 전쟁을 경험하고 국가가 재건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성장하였다. 1969년 숙명여자대학교 생활미술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면서 본격적으로 금속작업을 시작하였다. 1981년 첫번째 개인전을 개최한 다음 해부터 숙명여자대학교 공예과 교수로 재임하면서 주전자, 합 등을 비롯한 기물 작품들을 발표하였고, 문화재청이 임명한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교수 은퇴 후에도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활발한 전시활동을 하였다. 옥과 대나무를 결합하여 향토적 서정성과 자연의 미학이 담긴 장신구를 제작하는 김재영은 한국 현대 장신구의 1세대 작가이다.

KIM Jae-young 1946年出生于京畿道水源，幼年时节经历过战争，并且亲眼目睹了高架重建的过程。1969年毕业于淑明女子大学生活美术系，后在弘益大学研究生院学习金属工艺，由此正式开始了金属作业。1981年首次举办个人展，从次年开始任淑明女子大学工艺系教授，同时发布了包括水壶、盒子在内的各种器物作品；曾任文化遗产厅任命的无形文化遗产专业委员会及大韩民国传承工艺大展审核委员。退休后，她依然在韩国、日本、美国等地举办了活跃展示活动。将玉与竹子相结合，制作出富有乡土诗意及大自然美感的装饰品的KIM Jae-young是韩国现代装饰品的第一代创作者。

1946年に京畿道水原市で生まれたキム・ジェヨンは、幼少期に戦争を経験し、国家が再建する過程を見守りながら成長した。1969年に淑明女子大学校の生活美術科を卒業し、弘益大学校大学院で金属工芸を専攻しながら、本格的に金属作業を始めた。1981年に第1回個人展を開催した次の年から淑明女子大学校工芸科の教授として在任すると共に、急須、ハブ(韓国の伝統的なご飯用の器)等をはじめ、器物の作品を発表し、文化財庁が任命した無形文化財専門委員及び大韓民国伝承工芸大展の審査員を歴任し、教授引退後、韓国、日本、アメリカ等で活発な展示活動をした。玉と竹を結合して郷土の叙情性と自然の美学が込められたアクセサリ-を製作するキム・ジェヨンは、韓国の現代アクセサリ-の第1世代の作家である。



**경중단은(輕重端溫)**

브로치, 2018  
대나무, 백옥, 오톨스, 정은  
70x130x10

**Power of Space Perception**

Brooch, 2018  
bamboo, jade, onyx, sterling silver  
70x130x10

KIM Jae-young was born in Suwon, Gyeonggi-do in 1946, growing up during the war and witnessing the process of a nation being rebuilt in her childhood. Kim graduated fro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 1969, majoring in fine arts, and started metalwork since studying metal crafts in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 the following year after her first private exhibition in 1981, Kim released artworks, including teapot and box including tableware, while teaching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 a professor of crafts. She served as an expert member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ppoin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a jury for the Korea Annual Traditional Handicraft Art Exhibition. After retiring from her post as professor, Kim continued to participate in exhibitions in Korea, Japan, the U.S., and others. Kim is the first-generation craftsman of Korea's contemporary jewelry, designing jewelry that reflects local sentiment and aesthetics of nature by combining jade and bamboo.

〈독백\_1장, 2장(Monologue\_chapter 1, chapter 2)〉은 작가의 일상과 내면적 이야기를 주제로 다룬 모시 브로치이다. 전통 옷감 중 하나인 모시는 예부터 한국인의 몸과 가까이 있었던 친근한 소재이다. 질기며 통풍이 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름날 왕의 편복에서부터 서민계층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특히 유교가 발달했던 조선 시대에는 모시의 흰 색과 곧은 질감 때문에 선비들의 검박을 상징하는 소재로서 애호되었고, 여성들은 모시조각을 모아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모시를 몸에 걸치는 옷이 아니라 몸을 장식하는 장신구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모시가 단순한 전통적 소재가 아니라 개인의 서사를 담는 창의적 표현의 소재로 변모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감침질로 연결된 모시조각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공간들은 작가의 일상 속 다양한 기억들을 상징한다. 각각의 브로치는 색이 주는 이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 은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일상에 대한 성찰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独白\_1章, 2章(Monologue\_chapter 1, chapter 2)>是以创作者的日常生活与内心故事为主题而制作的苧麻胸针。苧麻是传统衣料之一，自古以来就是韩国人的身体所熟悉的材料。韧性强，通风好，因此每到夏日时节，无论是王的出行便装还是百姓的日常装束，都常常用到这种材料。特别是在儒家思想占据主流的朝鲜时代，苧麻的颜色及直挺的质感深受书生喜爱，成为了象征书生俭朴的材料；女性们则收集苧麻碎布，用来制作生活用品。创作者并没有将苧麻作成披在身上的衣服，而是作成了起装饰作用的装饰品，以此告诉人们，苧麻并非单纯的传统材料，根据个人的创意思维，苧麻足可以用作其他各种不同的功能。苧麻碎布用锁边技术彼此相连，由此形成的小小空间象征着创作者日常生活当中的一个个记忆。各个胸针根据颜色不同，讲述着不同的故事，创作者通过这种隐喻式表达方式体现了对自己日常生活的省察。

<モノローグ\_1章、2章(Monologue\_chapter 1, chapter 2)>は、作家の日常と内面的なストーリーを主題としたモシのブローチである。伝統の生地の中の1つであるモシは、昔から韓国人の体に近い親近感のある素材である。丈夫で風通しのよい性質を有しているので、王様の夏の普段着、そして庶民にまで広く使われた。特に、儒教が発達していた朝鮮時代には、モシの白色とまっすぐで丈夫な質感により、士人たちの慎ましくかつ素朴な象徴である素材として愛され、女性たちは、モシのハギレを集めて生活用品を作ったりもした。しかし、作家は、モシを体に身に着ける服ではなく、体を装飾するアクセサリとして使用し、モシが単純で伝統的な素材ではなく、個人の書史を込めた創意的な表現の素材として変貌できることを提示した。まつり縫いでつなげたモシのハギレが作る小さな空間は、作家の日常の中の多様な記憶を象徴する。それぞれのブローチは、色を与えるイメージによって互いに異なるストーリーが込められており、この隠喩的表現を通して自身の日常に対する思いめぐらす姿を見せている。

<Monologue\_chapter 1, chapter 2> is a series of ramie fabric brooches that adopt a daily life and inside stories of the artist as a theme. Ramie fabric, one of the traditional types of cloth, is a familiar material close to the bodies of Koreans. It is durable and ventilating, so it is widely used from everyday clothes for the king to commoners in summer. Especially in the Joseon dynasty when Confucianism was developed, ramie fabric was favored by scholars since it was regarded to stand for frugality due to the color of white and firm texture. Women at the time collected pieces of the cloth and made household items with them. However, by using ramie fabric for a material for an accessory, not for clothes to be put on the body, the artist suggests that ramie fabric is not simply a traditional material, but a subject matter for creative expression containing the narrative of an individual. Small spaces created by pieces of ramie fabric cloth connected through hemming stitch stand for various memories in daily lives of the artist. Each brooch holds a different story depending on an image depicted by the color, and through such metaphorical expression, introspection upon the artist's daily lives is presented.

**독백\_1장, 2장**  
브로치, 2017  
모시, 산호, 실, 스틸  
82x88x55, 85x95x40

**Monologue\_chapter 1, chapter 2**  
Brooch, 2017  
ramie fabric, coral, thread, steel  
82x88x55, 85x95x40

모시는 풍부한 색감과 천의 결 사이로 투과되는 형상이 약간의 몽환적인 느낌을 준다. 짜임새가 보이는 모시의 입체물 속에 무언가 담겨 있을 듯한 형태에서 나는 매력을 느낀다. 내보이기 싫은 여러 감정들을 감추고 화려하게 포장한 모습에서 나와 같다는 생각을 한다.

苧麻以其丰富的色感与布的纹理之间透露出的形象给人带来梦幻般的感觉，在能看出结构的立体苧麻当中，宛如蕴含着一些什么，这让我感到了极大的魅力。我认为苧麻隐藏住不愿显露出来的各种情绪，并且对自己的外表进行华丽的包装，这一点与我自己很相像。

「モシ（カラムシで織った布）は、豊富な色と布のキメとの間に透過する形状により、若干夢幻を感じさせます。仕組みが見えるモシの立体物の中に何か込められているような形態に、私は魅力を感じます。見せたくない様々な感情を隠し、可憐に包まれた姿から、自分と同じであるという考えが巡らされます。」

Rich colors and a shape of penetration through layers of texture of ramie fabric give a kind of dreamlike impression. I am fascinated by a shape as if to contain something in an object in ramie fabric of which the weave is visible. I think it resembles me in that covering various emotions it does not want disclose and wrap itself up in a splendid way.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나 조각보를 만들던 어머니로부터 자연스럽게 모시와 바느질을 배운 강미나는 경기대학교에서 장신구 디자인을 공부하고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였다. 대학원 재학 중이었던 2012년에 뮌헨의 바이에른미술공예협회(The Bavarian Arts and Crafts Association)로부터 젊은 작가에게 주어지는 최고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듬해 이탈리아 프레스지오 자 주얼리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2017년에는 파리에서 개최되는 예술공예박람회 <헤빌라시옹>, 뮌헨의 바이에른미술공예협회에서 개최한 <한국(koreanisch)> 전 등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전시에 참여하였다. 모시 조각보 제작방식을 이용하여 장신구를 만드는 강미나는 자신의 일상과 내면적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아트주얼리를 제작, 발표하고 있는 젊은 현대 장신구 작가이다.

KANG Mi-na 1987년생 서울,从小跟着制作拼布的母亲学习了苧麻及针线活儿, 后再京畿大学学习装饰品设计, 在国民大学研究生学习金属工艺。2012年, 就读研究生期间, 她获得了慕尼黑拜恩美术工艺协会(The Bavarian Arts and Crafts Association)颁给年轻创作者的最佳奖, 并于次年意大利Preziosa首饰大奖赛上获得特别奖。她参加过2017年在巴黎举办的艺术工艺博览会<R velations>, 以及在慕尼黑的拜恩美术工艺协会上举办的<韩国(koreanisch)>展等全球知名度较高的展会。KANG Mi-na利用苧麻拼布的制作方式创作首饰, 如今她已成为了年轻的现代装饰品创作者, 不断制作、发布讲述自己日常生活及内心故事的艺术首饰。

1987年にソウルで生まれ、チョガッポ(韓国の伝統的なパッチワーク)を製作していた母親から必然的にモン(カラムシで織った布)と裁縫を学んだカン・ミナは、京畿大学校でアクセサリーのデザインを学び、国民大学校大学院で金属工芸を専攻した。大学院在学中であった2012年にミュンヘンのバイエルン美術工芸協会(The Bavarian Arts and Crafts Association)から若手作家に与えられる最高賞を受賞し、翌年、イタリアのプレッツィオーゾジュエリー公募展で特別賞を受賞した。2017年には、パリで開催される芸術工芸博覧会<ヘビレーション>、ミュンヘンのバイエルン美術工芸協会で開催された<韓国(koreanisch)>展等の国際的認知度が高い展示に参加した。モシのチョガッポ製作方式を利用して、アクセサリーを作るカン・ミナは、自身の日常と内面的ストーリーを主題とするアートジュエリーを製作して発表している若い現代アクセサリー作家である。



**모시 두루마기**

남성 겹옷, 1950년대  
모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Ramie durumagi**

Man's coat, 1950's  
Collection of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KANG Mi-na was born in Seoul in 1987, and naturally learned about ramie and needlework from her mother who made patchwork. Kang studied jewelry design at Kyonggi University and majored in Metalwork and jewelry at College of Design, Kookmin University. She was awarded the best awards offered to young artists from The Bavarian Arts and Crafts Association in 2012, during her studies in graduate school, and won the Special Award at the Italy's Preziosa Jewelry Competition the following year. She participated in world-renowned exhibitions in 2017, such as <R velations>, the fine craft and creation fair, in Paris and <koreanisch> organized by Germany's Bayerischer Kunstgewerbeverein in Munich. Kang is a young contemporary jewelry craftsman, who uses method of making ramie patchwork to create art jewelry with the theme of her everyday life and inner stories.

〈깃들다 1, 2(Indwell 1, 2)〉는 말총의 탄성을 이용하여 열정의 기운과 절정의 상승적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형상화한 브로치이다. 말총은 가벼우면서도 형태가 견고하게 유지된다는 소재적 특징 때문에 조선시대 남자들의 관모인 갓을 만드는 재료로 500년 가까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내려진 단발령과 서양문물의 유입으로 관모의 사용이 줄면서 말총공예는 거의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예기술이다. 박예님은 말총을 직물로 만들었을 때 아름다운 조형표현이 가능한 점에 착안하여 갖처럼 투과되는 말총공예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부드럽고 장식적인 느낌의 브로치를 제작했다. 한 가닥의 무게가 약 0.02g 정도되는 가느다란 말총이 모이는 부분과 흩어지는 부분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리듬감이 돋보인다. 작가는 조선시대 남성의 전유물이던 갓을 남녀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현대 장신구로 변용시킴으로써, 이 시대의 기술과 예술적 표현을 위한 도구로 재생된 새로운 말총공예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蔓延 1, 2(Indwell 1, 2)>是利用马尾弹性抽象表达出热情、顶峰等上升形象的胸针。马尾极轻，但其形状坚固，处于这种特点，约有五百年的时间当中马尾都被用作制作朝鲜时代男子的纱帽。而在日本殖民统治时期，随着断发令的颁布和西方文化的影响，人们不再使用纱帽，马尾工艺几乎陷入濒临灭绝的危机。PARK Ye-nim在使用马尾制作纺织品时，注重美丽的造形表现，既充分保留了如纱帽般的马尾工艺的原有特点，又将柔和的装饰感赋予在了胸针之上。一缕细细的马尾重量约为0.02g，在马尾汇聚的部分及分散开来的部分均可以感受到自然的节奏感。创作者将朝鲜时代男性专属品变为了男女均可使用的现代装饰品，全新按照当今时代的技术和艺术表现方式诠释了马尾，以此向人们展现了今天马尾的工艺价值。

<宿る 1、2 (Indwell 1, 2)>は、馬尾毛の弾性を利用して、情熱と絶頂の相乗的イメージを抽象的に形状化したブローチである。馬尾毛は、軽くて、形態が堅固に維持される素材の特徴を有するため、朝鮮時代の男性たちの官帽であるカッ（冠）を作る材料として500年近く使用された。しかし、日本帝国強制占領期に下された断髪令と西洋の文物の流入により官帽の使用が減り、馬尾毛工芸は、ほぼ失われる危機に置かれた工芸技術である。パク・エニムは、馬尾毛を織物として作ったとき、美しい造形表現が可能であることに着目して、カッのように透過する馬尾毛工芸の特徴を生かしながら、柔らかくてアクセサリーの雰囲気のあるブローチを制作した。一筋の重さが約0.02g程度である極めて細い馬尾毛が集まった部分と、分散する部分から感じる自然なリズム感が目立つ。作家は、朝鮮時代の男性の専有物であったカッを男女がみんな使うことのできる現代のアクセサリーに変容させることで、今の時代の技術と芸術的表現のための道具として再生された新しい馬尾毛工芸の可能性を見せている。

<Indwell 1, 2 > is a brooch that embodies energy of enthusiasm and an ascending image in an abstract way by using elasticity of horsehair. Since this material is light and its shape is stably maintained, horsehair was used to make got, a type of official traditional Korean hat, for 500 years. However, since the use of the official hat was decreased due to the ordinance prohibiting topknots under Japanese rule and introduction of Western culture, horsehair craft is at risk of extinction. Based on an idea that beautiful formative expression is possible when horsehair is made into fabric, Park created a soft and decorative brooch strongly featuring characteristics of horsehair craft that penetrates like the official hat, got. A natural sense of rhythm that can be felt from where thin—a strand of horsehair weighs about 0.02 grams—strands of horsehair gather and disperse is outstanding. By transforming got, an exclusive property of the men in the Joseon dynasty, to a contemporary accessory that both men and women can use, the artist shows a potential for new horsehair craft renewed as a means for modern technology and artistic expression.

깃들다 1, 2	Indwell 1, 2
브로치, 2018	Brooch, 2018
말총	horsehair
100x150x50, 100x150x50	100x150x50, 100x150x50

말총은 더 이상 전통재료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유롭고 새로운 해석은 표현의 영역을 무궁무진하게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드러나는 몸소 체득한 우연적인 표현은 스스로에게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경험을 허락하기도 한다.

马尾不再局限于传统材料，通过全新而自由的解读，可无穷无尽地扩展其表达领域。经过漫长的时间亲身展现出来的表达方式其实也是深入了解自己内心的机会。

「これ以上馬尾毛は鎮痛剤に限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自由で新しい解釈は、表現の領域を無限にします。長い時間を経て現れる、自ら体得した偶然による表現は、自ら自身の内部を除く経験を許可したりもする。

Horsehair is not limited as a traditional material any more. A free and new interpretation enables an infinite scope of expression. A random expression directly acquired throughout a long time allows an experience of looking into the self.





1988년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태어난 박예님은 청주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일반 보석디자인 및 금속공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박예님은 국민대학교 대학원 금속공예과에 입학하여 아트 주얼리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였다. 졸업 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국제수공예페어(Internationale Handwerks Messe)에서 네덜란드 마제 갤러리(Marzee Gallery)의 초청을 받아 유럽에 소개되었다. 제주도의 말총공예 장인에게 직조기법을 배우고, 말총의 특성을 연구하여 2017 공예트렌트페어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면서도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말총을 소재로 장신구를 제작하고 있는 박예님은 현재 주얼리 공방인 '드라마 스튜디오(De Rame)'를 운영하며 국내외 다수의 기획전에 참가하고 있는 신예 작가이다.

PARK Ye-nim 1988年出生于忠清北道堤川, 毕业于清州大学绘画系。出于对一般宝石设计及金属工艺的持续关注, 她进入了国民大学研究生院金属工艺系, 专门研究艺术首饰领域。毕业后, 在德国慕尼黑举办的国际手工艺博览会(Internationale Handwerks Messe)上获得荷兰Marzee Gallery的邀请, 作品由此在欧洲范围内得到介绍。她跟济州岛的马鬃匠人学习了织造技术, 并研究马鬃特点, 2017年在工艺三年展上展示了作品。新锐创作者PARK Ye-nim使用既能实现细致表现同时而又能做出自由形态的马鬃来制作装饰品, 目前经营首饰工坊“De Rame”, 并参加韩国国内外多个策划展会。

1988年に忠清北道堤川市で生まれたパーク・エニムは、清州大学校絵画科を卒業した。一般的な宝石デザイン及び金属工芸についてずっと関心を持っていたパーク・エニムは、国民大学大学院の金属工芸科に入学し、アートジュエリー分野を集中的に学んだ。卒業後、ドイツのミュンヘンで開催された国際手芸フェア(Internationale Handwerks Messe)でオランダのマルゼーギャラリー(Marzee Gallery)の招待を受け、欧州で紹介された。濟州島の馬毛尾工芸の匠から製織技法を学び、馬毛尾の特性を研究し、2017年に工芸トレンドフェアに作品を出展した。細かい表現が可能で、かつ自由に形態を作ることのできる馬毛尾を素材にしてアクセサリーを製作しているパーク・エニムは、現在、ジュエリー工房である「ドラマ(De Rame)スタジオ」を運営しており、国内外の多数の企画展に参加している新鋭の作家である。



갓(흑립)  
남성 모자,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Gat (heungnip)  
Man's hat, Joseon Dynasty  
Collection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갓(흑립)  
남성 모자,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Gat (heungnip)  
Man's hat, Joseon Dynasty  
Collection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PARK Ye-nim was born in Jecheon, Chungcheongbuk-do in 1988 and graduated from Cheongju University as a painting major. She was interested in general jewelry design and metalwork consistently, which lead to her studying art jewelry at the Department of Metalwork & Jewelry, College of Design, Kookmin University. After graduation, Park was introduced in Europe through an invitation from Marzee Gallery in the Netherlands at the Internationale Handwerks Messe held in Munich, Germany. She studied weaving technique under a master craftsman of horsehair craft in Jeju Island and studied the properties of horsehair until finally releasing her work at the Craft Trend Fair 2017 in Korea. Park is a rising artist, participating in many special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while managing a jewelry workshop called 'De Rame,' making jewelry with horsehair which allows her to create delicate expressions with free-flowing shapes.

金妍經 キム・ヨンギョングン KIM Yeon-kyung  
 朴順徳 パク・スンドク PARK Sun-doak  
 박 순 덕 · 김 연 경

〈완초 브로치(Rush Brooch)〉는 화문석의 화려한 색과 직조의 패턴을 모티브로 제작한 기하학적인 형태의 브로치이다. 완초로 자리나 바구니를 짤 때 나타나는 특유의 패턴과 화려한 색이 장신구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 것이다. 완초는 바구니, 돛자리, 함 등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생활 용품으로 만드는 소재로 신라시대(BC 57~AD 935)부터 사용되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강화가 왕의 피난지로써 수도의 역할을 하면서 장인들은 이주한 왕과 관료들을 위해 뛰어난 완초 화문석을 생산하였다. 이 작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수자 전승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만난 박순덕 완초장 이수자와 김연경 주얼리 디자이너가 협업을 통해 기획, 제작한 것으로 한국문화재단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한 '결:손수 만들다' 프로젝트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두 작가는 완초 공예의 기존 형식을 전복시켜 장신구로 제작함으로써 완초라는 소재가 지닌 지역적, 전통적 관념을 넘어 현재에 이어지는 새로운 완초 공예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菴草胸針(Rush Brooch)>是以花纹席子的华丽颜色和织造图案为基调而作成的几何形状胸针。用菴草编织坐垫及筐子时所出现的特有图案以及华丽的颜色，这些都是设计装饰品时所需使用的重要元素。从新罗时代开始(BC 57~AD 935)，人们在编织筐子、垫子、盒子等日常生活用品时就常用菴草。特别是在高丽时代，江华成为了王的避难地，发挥着首都的作用，匠人们为了移居此地的王和官员制作了菴草花纹席子。在国家支援的“进修者传承活动支援项目”推动下，菴草匠进修者 PARK Sun-doak 与饰品设计师 KIM Yeon-kyung 携手合作，策划并制作了本作品。本作品也是韩国文化遗产财团与国立无形遗产院进行的“纹理：亲手制作”项目的成果。这两位创作者推翻了菴草工艺的原有形式，将其制作为装饰品，以此打破了人们对于菴草材料所持有的地区、传统观念，展现了现代工艺当中菴草的全新发展潜力。

<イグサのブローチ(Rush Brooch)>は、花ござの可憐な色と製織のパターンをモチーフに制作した幾何学的な形態のブローチである。イグサで莫蔭や籠を編むときに現れる特有のパターンと可憐な色が使われている製品用品とで作る素材として、新羅時代(BC 57~AD 935)から使用された。特に、高麗時代には、江華が王の避難場所として首都の役割をし、職人は、移住した王と官僚のために、優れたイグサの花ござを生産した。本作品は、国が支援する「履修者伝承活動支援プログラム」で出会ったイグサの匠であるパク・スンドクと、ジュエリーデザイナーであるキム・ヨンギョンが協力して企画、制作したものであって、韓国文化財財団と国立無形遺産院にて行われた「結：職人を作る」プロジェクトの結果物でもある。この二人の作家は、イグサ工芸の既存形式を覆してアクセサリーとして制作することで、イグサという素材が有する地域的、伝統的観念を超えて現在に続く新たなイグサ工芸の可能性を表現した。

<Rush Brooch> is a brooch in a geometrical shape created with a motive of vivid colors and weaving patterns of a mat with flower figures. Unique patterns and vivid colors turning up when a mat or a basket is woven with the rush serves as an important element in design of the accessory. Rushes, as materials for making daily living items such as baskets, mats, and cases, have been used since the Kingdom of Silla (BC 57-AD 935). Especially, in the Goryeo dynasty, Ganghwa region, as a shelter for the king, served as a provisional capital, and artisans created excellent rush mats with flower figures for the relocated king and officials. This work, an outcome of the project “Grain: handmade” organized by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and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was planned and created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Sun-dock Park who has completed the training course to be a master of objects made of rushes, and Yeon-kyung Kim, a jewelry designer, who met at the state supported, “Program for Transfer Activities of Those Who Have Completed Training Courses)” By overturning the existing style of rush crafts and creating accessories, the two artists suggest new possibilities for the rush craft art that goes beyond the regional and conventional notion of the material that has been passed down today.

완초 브로치	Rush Brooch
브로치, 2017	Brooch, 2017
완초 85x25x7, 60x80x10,	rush 85x25x7, 60x80x10,
100x40x10, 75x75x10,	100x40x10, 75x75x10,
60x60x20, 60x80x10	60x60x20, 60x80x10

디자인 컨설턴트로서 선생님의 장인정신과 대중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원하는 형상이 완초의 씨줄과 날줄처럼 작품에 교차되기를 바랐습니다. 장신구는 내적 자아의 표현 매체로서, 작가가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여러 요소들을 직관과 감성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작품이 작은 상자 안에 충분히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새로움의 시도가 작가의 덕목이라 믿으며 이전 것을 초월하면서 동시대의 아름다움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作为设计顾问,我希望在作品中将大师的匠人精神与大众有意无意之间期待的形状结合到一起,好比莞草的经线与纬线相交织一般。装饰品属于表达自我的媒介,创作者可通过直观及感性将生活当中所获得的各种经验以隐喻的方式表达出来。这种作品能够进入小箱子之内,这就是其最大的魅力……我认为身为创作者需要不断尝试,并超越此前的经验,构建当代的美丽。

「デザインコンサルタントとしての職人精神と、大衆が無意識的に又は意識的に所望の形状が、イグサの緯糸と経糸のように作品に交差することを願い制作しました。アクセサリーは、内的自我の表現媒体であって、作家が生活を通じて得た様々な要素を直観と感性を通して、隠喩的に表現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す。また、このような作品が小さい箱の中に十分に入るとするのが最も大きな魅力です。新しい試みが作家の徳目であると信じ、以前のものより超えながら、同時代の美しさを具現したく制作しました。」

We intended that the artisan spirit of the teacher as a design consultant and a figure the public unconsciously or consciously expect from the teacher could intersect in the work as the warp and weft in the rush." As a medium to express the inner self, an accessory can express various elements the artist has gained through experiences in a metaphorical way through intuition and sensibility. It is also appealing that such work can be held in a small box. Believing that a try for the new is a virtue of an artist, we expect to embody beauty of the contemporary days beyond the precedent."





국가무형문화재 제103호 완초장 이수자 박순덕은 1962년 경기도 강화군에서 태어나 유년시절부터 완초로 바구니를 짜는 기술을 배우며 성장하였다. 2015년 인천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인천 강화지역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하였고, 2017년에는 강화군 완초공예 명장으로 선정되었다. 2015년 공예트렌트페어, 2017년 뮌헨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위크(MCBW) 주빈국 행사 <스마트를 넘어서, 휴먼 코넥션>에서 현대 장신구공예가와 협업한 <완초브로치>를 선보인 박순덕은 강화도의 완초공예를 널리 알리고 그 전통을 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완초공예 장인이다.

PARK Sun-doak 1962年出生于京畿道的江华郡, 是第103号国家无形文化遗产菴草匠进修者, 从幼年就开始学习用菴草编织筐子的技术。2015年在仁川广域市观光纪念品大奖赛上获得金奖, 此后在仁川、江华地区举办的大奖赛上多次获奖, 2017年被选为江华郡菴草工艺名匠。2015年在工艺三年展、2017年在慕尼黑创意设计周(MCBW)主宾国活动<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 >上展示了与现代装饰品工艺家合作的<菴草胸针>, 如今作为菴草工艺匠人, 在宣传江华岛的菴草工艺、传承菴草工艺方面起到重大作用。

国家無形文化財第103号のイグサ工芸の匠、パク・スドクは、1962年に京畿道江華郡で生まれ、幼年期からイグサで籠を作る技術を学びながら成長した。2015年の仁川広域市の観光記念公募展で金賞を受賞し、その後、仁川や江華地域で開催される公募展にて多数入賞した。2017年には、江華郡イグサ工芸の名匠に選定された。2015年の工芸トレンドフェア、2017年のミュンヘンのクリエイティブビジネスワーク(MCBW)の主賓国行事<スマートを超えて、ヒューマンコレクション！>で現代のアクセサリー工芸家と協力して製作した<イグザのブローチ>を披露したパク・スドクは、江華島のイグサ工芸を広く広め、その伝統を継承するのに大きな役割をしているイグサ工芸の匠だ。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03 Wanchojang (master of woven sedge) trainee PARK Sun-doak was born in Ganghwa County, Gyeonggi-do in 1962. Park grew up learning how to weave baskets with rush from her childhood. Park won many awards in contests held in Incheon and Ganghwa region, including the first prize in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Tourist Souvenir Contest, in 2015 and was selected as Master of Wancho Craft of Ganghwa County in 2017. Park showcased her <Rush Brooch>, in collaboration with contemporary jewelry craftsmen, at the Craft Trend Fair 2015 in Korea and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MCBW)'s guest of honor event <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in 2017. Park is a master craftsman of rush, greatly contributing to promoting the rush craft of Ganghwa Island and keeping the tradition alive.

**완초 함**  
뚜껑 있는 바구니, 1950년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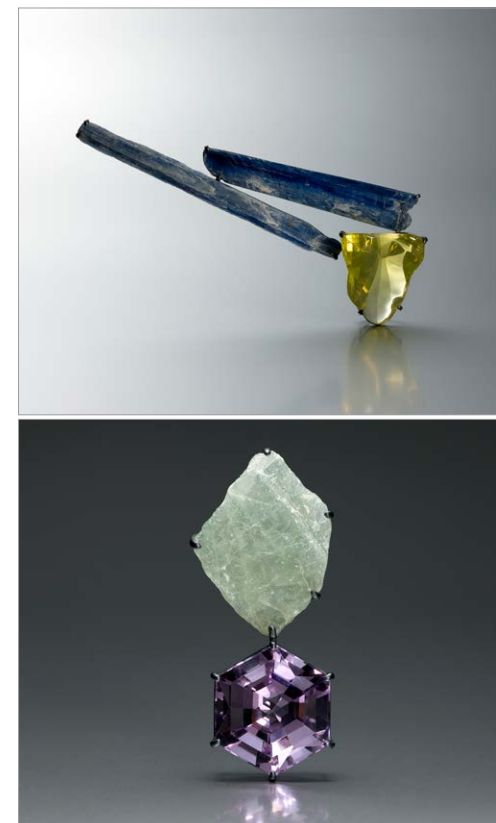
**Rush box**  
Lideed Basket, 1950s  
Collection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연경은 경기대학교에서 장신구 디자인을 전공하고 독일 포르츠하임 조형대학교에서 장신구와 오브제 디자인을 공부하였다. 2002년 보석 디자인으로 유명한 독일의 이다어 오버슈타인에서 개최하는 보석디자인 젊은 인재 공모전(German Young Talent Competition)에서 1위로 입상하였다. 2006년 귀국 후 세 번의 개인전에서 원석의 고유성을 살린 조형적 장신구를 발표하였고, 2015년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개최한 한불수교기념 한국공예전 <코리아 나우!>에 참여하였다. 한국과 독일 등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김연경은 원석을 가공하는 보석디자인 스튜디오 '아르부요(Ar.vuyo)'를 운영하고 있는 보석 디자이너이다.

KIM Yeon-kyung 1975년生于首尔，在京畿大学学习装饰品设计，并于德国普福尔茨海姆造型大学学习装饰品及物品设计。2002年凭借宝石设计在德国伊达尔-奥伯施泰因举办的宝石设计年轻人才大奖赛(German Young Talent Competition)上获得了第一名。2006年回到韩国后，在第三次个人展上发布了保留宝石原石天然特性的造型装饰品，2015年参加了在巴黎装饰美术馆里举办的韩法建交纪念韩国工艺展 <Korea Now!>。目前在韩国及德国等地发布作品的KIM Yeon-kyung是一名宝石设计师，经营宝石设计Studio“Ar.vuyo”，从事宝石原石的加工工作。

1975年にソウルで生まれたキム・ヨンギョンは、京畿大学校でアクセサリデザインを専攻し、ドイツのプフォルツハイム造形大学でアクセサリーとオブジェのデザインを学んだ。2002年に宝石デザインで有名なドイツのイダー＝オーバーシュタインで開催された宝石デザイン若手公募展(German Young Talent Competition)にて1位で入賞した。2006年に帰国した後、3回にわたって個人展を開き、原石の固有性を生かした造形的アクセサリーを発表し、2015年にパリのアクセサリー美術館で開催された韓仏交流記念、韓国工芸展<コリアナウ!>展に参加した。韓国やドイツ等で作品を発表しているキム・ヨンギョンは、原石を加工する宝石デザイナースタジオ「Ar.vuyo」を運営している宝石デザイナーだ。



공존  
브로치, 2013  
황수정, 남정석, 정은  
135x8x24

Coexistence  
Brooch, 2013  
Lemon citrine, kyanite,  
sterling silver  
135x8x24

공존  
브로치, 2013  
자수정, 포도석, 정은  
39x89x24

Coexistence  
Brooch, 2013  
Amethyst, prehnite, sterling  
silver  
39x89x24

KIM Yeon-kyung was born in Seoul in 1975 and studied jewelry design at Kyonggi University and went to Germany Hochschule Pforzheim University of Art to study jewelry and object design. Kim won the Grand Prize in 2002 at the German Young Talent Competition held in Idar-Oberstein, which is famous for jewelry design. After returning to Korea in 2006, Kim released formative jewelry with the gemstones' originality well-expressed in her three private exhibitions. In 2015, she participated in the Korean crafts exhibition <Korea Now!> that was held in Musée des arts décoratifs de Paris in commemoration of the Korea-Franc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Kim, who releases her work in Korea and Germany, is a jewelry designer, managing a gemstone jewelry design studio called 'Ar.vuyo.'

〈목조각 브로치(Wood Carving Brooch)〉는 불상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수인(手印)을 모티브로 제작한 나무 브로치이다.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된 이후 불상조각을 중심으로 발전한 목조각 분야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의 한국전쟁을 겪으며 전통이 단절되어 전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현존하는 문화재에 대한 반복적인 분석과 충실한 재현을 통해 작가들 스스로 극복하고 있는 공예 분야이다. 나무가 갖는 고유한 무늬 때문에 손의 우아한 선이 더욱 두드러지는 이 작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수자 전승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만난 정운복 목조각장 이수자와 조성호 주얼리 디자이너가 협업을 통해 기획, 제작한 것으로, 한국문화재단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한 '결:손수 만들다' 프로젝트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두 작가는 나무가 지닌 부드럽고 따뜻한 매력과 손이 가지고 있는 기호적인 요소를 탁월하게 매치함으로써 수인의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 디자인 모티브이자 재료적 특성에서 오는 풍부한 손에 대한 표현을 보여준다.





<木雕胸针(Wood Carving Brooch)>是以佛像所拥有的独特手印为基调制作而成的木雕胸针。从三国时代佛教传入之后，木雕领域以佛像雕塑为中心得以发展，而在日本殖民统治时期及解放之后经过韩国战争后，木雕的传统遭到断绝，甚至难以继续传承下去。然而通过对现存文化遗产的不断分析及再现，创作者在努力克服现实景况的局限。树木拥有独特的花纹，因此更能突出地呈现出手部优雅线条。在国家支援的“进修者传承活动支援项目”推动下，木雕匠进修者JEONG Woon-bok与饰品设计师CHO Sung-ho携手合作，策划并制作了本作品。本作品也是韩国文化遗产财团与国立无形遗产院进行的“纹理：亲手制作”项目的成果。这两位创作者完美诠释出树木所拥有的柔和温暖美丽以及手所代表的符号元素，并将其予以搭配，设计并不局限于手印的宗教意义，而是通过设计基调与材料特点对手进行了更为丰富的呈现。

<木彫りブローチ(Wood Carving Brooch)>は、どの仏像も有している手印をモチーフに制作した木造のブローチである。三国時代に仏教が伝わった後、仏像彫刻を中心に発展した木造分野は、日本帝国強制占領期と開放以降の朝鮮戦争を経て伝統が絶えてしまい、伝授が困難な条件にあったが、現存する文化財についての反復的な分析と充実な再現を通して作家自らが克服している工芸分野である。木が持つ固有の模様であるため、手の優しい線が目立つ本作品は、国が支援する「履修者伝授活動支援プログラム」で出会った木造の匠であるジョン・ウンボクと、ジュエリーデザイナーであるチョ・ソンホとが協力して企画、製造したものであって、韓国文化財財団と国立無形遺産院にて行われた「結：職人を作る」プロジェクトの結果物でもある。この二人の作家は、木が持つ柔らかくて温かい魅力と、手が持つ記号的な要素を卓越にマッチさせることで、手印の宗教的な意味を超えたデザインモチーフであり、材料的特性をもって豊かな手を表現している。

<Wood Carving Brooch> is a wooden brooch created with a motive of a unique figure of the hand that every statue of the Buddha has. Wooden sculpture had developed centered on statues of the Buddha since Buddhism was introduced in the Three Kingdoms of Korea, but as the nation went through Japanese rule and the Korean War after Liberation, tradition was severed and it was a difficult situation to expect to be inherited. However, it is a genre which artists themselves have been overcoming difficulties by repetition of analysis and faithful representation of the existing cultural properties. Due to unique patterns of the wood, elegant line of the hand is exquisite. This work, an outcome of the project “Grain: handmade” organized by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and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was planned and created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Woon-bok Jeong who has completed the training course to be a master of wooden sculpture, and Sung-ho Cho, a jewelry designer, who met at the state supported “Program for Transfer Activities of Those Who Have Completed Training Courses)” Exceptionally matching soft and warm attraction of wood with symbolic elements of the hand, the two artists present rich expression for the hands coming from a design motif and material characteristics, apart from religions meanings.

**목조각 브로치**

브로치, 2017-2018  
홍송  
65x95x30, 40x90x10

**Wood Carving Brooch**

Brooch, 2017-2018  
red pine  
65x95x30, 40x90x10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손은 조형적 매력이 뛰어난 생김새를 갖고 있다. 특히, 장인(匠人)의 손은 도구와 한 몸이 되어 머리와 함께 더불어 사유함으로써 새로운 상징을 탄생시킨다. 익숙함과 생경함으로부터 생겨난 다양한 감정들이 한데 뒤섞임으로써 요란한 상상과 고요한 명상을 보는 이로 하여 유발하기를 바란다.

刻有生活痕迹的手，拥有着出色的造形魅力。特别是匠人的手与工具融为一体，与头脑一同进行思索，从而塑造出新的象征。从熟悉与陌生相交之处迸发的情绪彼此交织，期盼给人带来无尽的想象与安静的冥想。

「生活の痕跡がそのまま刻まれている手は、造形的魅力に優れた形態を有していません。特に、匠の考え、手、そして道具が一体となることにより新しい象徴を誕生させます。作品を通して、親近感と生硬さから生じる多様な感情が交じり合うことによる擾乱な想像と静かな瞑想する心を生み出していただきたいです。

The hand engraved with intact traces of life takes on an excellent shape with enormous formative attract. Especially, the hand of an artisan becomes one body with a tool, reasons with the head, and creates a new symbol. As a variety of emotions created by familiarity and strangeness are mixed, boisterous imagination and calm meditation are expected to be induc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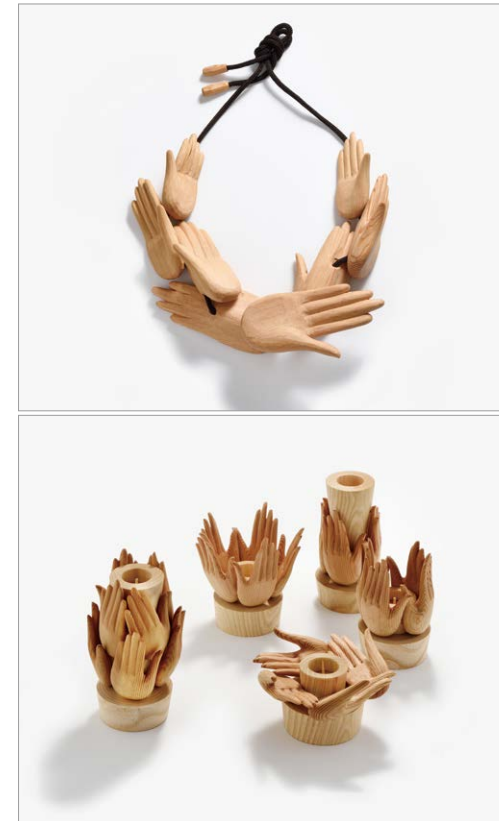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이수자 정운복은 1951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1995년 강원도에서 개최한 전국공예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통조각 부문에서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여러 형태의 불상 조각 중에서도 부처상을 주로 조각하며, 초,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불상조각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정운복은 2015년 공예트렌트페어, 2017년 뮌헨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워크(MCBW) 주빈국 행사 <스마트를 넘어서, 휴먼 코넥션!>에서 <목조각 브로치>를 선보이며 시대를 넘나 드는 창의적인 사고로 전통적인 목조각 기술을 계승하고 있는 목공예 장인이다.

第108号国家无形文化遗产木雕匠进修者 JEONG Woon-bok 1951年生于京畿道光州, 1995年在江原道举办的韩国工艺大患上获得大奖, 并作为大韩民国美术大展传统雕塑单元受邀创作者及审核委员展开工作。在各种形态的佛像雕塑中, 他主要雕塑菩萨像, 其作品收录于小学及中学美术教科书, 2015年在工艺三年展上, 2017年在慕尼黑创意周(MCBW)主宾国活动 <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 >上展示了<木雕胸针>, 是一位以超越时代的创意继承传统木雕技术的木工艺匠人。

国家無形文化財第108号の木彫りの匠、ジョン・ウンボクは、1951年に京畿道光州市で生まれた。1995年に江原道で開催された全国工芸大患上大賞を受賞した後、大韓民国美術大展の伝統彫刻部門で超大作家及び審査員として活動した。ジョン・ウンボクは様々な彫刻の中でも仏像を主に彫刻しており、彼の仏像彫刻作品は小中学校の美術の教科書に収録されている。2015年の工芸トレンドフェア、2017年のミュンヘンのクリエイティブビジネスワーグ(MCBW)の主賓国行事<スマートを超越て、ヒューマンコレクション!>で<木彫りのブローチ>を披露し、時代を超えた創意的な思考で伝統的な木彫り技術を継承している木工芸の匠である。



**목조삼존불감**

국보42호, 통일신라시대  
순천 송광사 소장

**뿌리 깊은 나무**

나무, 안료  
500x400x1000

**Shrine of Wooden Buddha Triad**

National Treasure No. 42, Unified Silla period  
Collection of Songgwangsa Temple, Suncheon

**Deep-rooted tree**

Wood, pigment  
500x400x1000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08 Mokjogakjang (master of wood sculpture) trainee JEONG Woon-bok was born in Gwangju in 1951. He won the Grand Prize at the Korea Crafts Competition that was held in Gangwon-do in 1995 and served as invited artist and jury at the Korea Fine Arts Competition, traditional sculpture category. Jeong mainly sculpts Buddha statues among many types of Buddhist sculptures. His Buddhist sculpture works are included the fine arts textbooks for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curriculum. He showcased his <Wood Carving Brooch> at the Craft Trend Fair 2015 in Korea and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MCBW)'s guest of honor event <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in 2017. Jeong is a master craftsman of woodcraft, keeping the traditional wood carving technique alive with his creative thinking that transcends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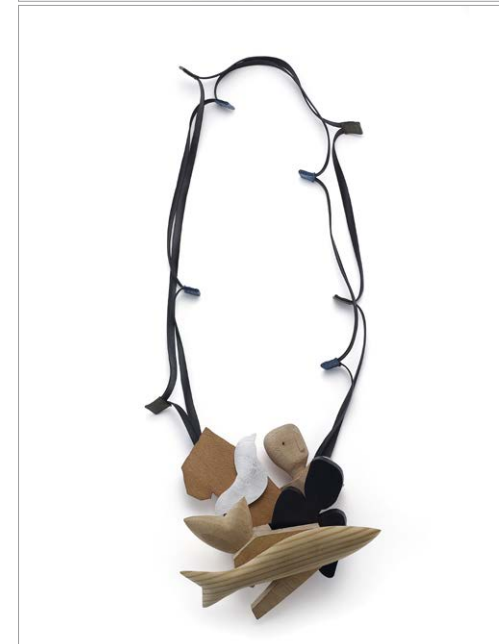




1975년 경북 청송에서 태어난 조성호는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알키미아 주얼리디자인학교와 독일 뮌헨국립조형예술대학에서 장신구를 전공하였다. 네덜란드 홉 쿨디즈(Rob Koudijs) 갤러리의 전속작가로 활동하였고,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장식과 환영-현대 장신구의 세계>전에 참여하였으며, 같은 해 유리지공예관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대학에서 교육자로 활동하며 2015년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개최된 한불수교기념 한국공예전 <코리아 나우!>에 참가하는 등의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조성호는 나무, 플라스틱, 가죽, 고무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쉽게 버려지는 재료들의 가치를 되살리는 장신구를 제작하고 있는 현대 장신구 작가이다.

CHO Sung-ho 1975年生于庆尚北道青松，毕业于首尔大学本科及研究生院，并于意大利阿基米亚珠宝设计学院及德国慕尼黑国立造型艺术学院专攻装饰品。其曾作为荷兰Rob Koudijs画廊合作创作者开展创作活动，2013年受邀参加了在国立现代美术馆举办的<装饰与幻影-现代装饰品的世界>展，同年获得Yoolizy工艺馆选定的年度创作者奖。目前在首尔大学等韩国国内大学从事教学工作，并于2015年参加巴黎装饰美术馆里举办的韩法建交纪念韩国工艺展 <Korea Now!>等，不断开展创作工作，是一位通过树木、塑料、皮革、橡胶的再利用重塑易弃材料价值的装饰品创作者。

1975年に慶尚北道青松郡で生まれたチョ・ソンホは、ソウル大学校及び大学院を卒業した後、イタリアのアルキミア(Alchimia)デザイン学校とドイツのミュンヘン国立造形芸術大学でアクセサリーを専攻した。オランダのロブコウジュス(Rob Koudijs)ギャラリーの専属作家として活動し、2013年に韓国国立現代美術館で開催された<装飾と歓迎-現代アクセサリーの世界>展に参加し、ユリジ工芸美術館(Yoolizy Craft Museum)で選定する今年の作家賞を受賞した。現在、ソウル大学校をはじめ、韓国国内大学で教育者として活動しており、2015年にパリのアクセサリー美術館で開催された韓仏交流記念、韓国工芸展<코리아 ナウ!>展に参加する等、創作活動を続けているチョ・ソンホは、木、プラスチック、革、ゴム等のリサイクルを通して、簡単に捨てられる材料の価値を再生させるアクセサリーを製作している現在アクセサリーの作家である。



**얼굴들**  
브로치, 2013  
은, 24k금, 나무, 플라스틱,  
파운드 오브제, 아크릴 물감  
70x70x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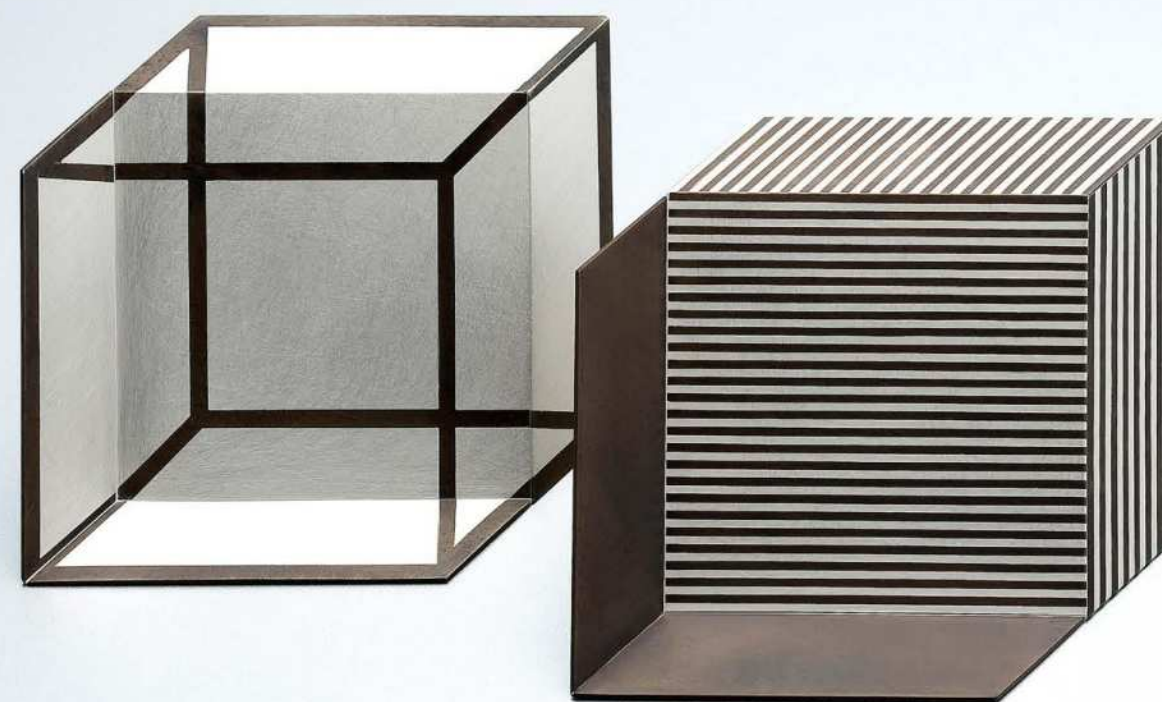
**공생사회**  
목걸이, 2014  
은, 나무, 가죽, 재생 자전거튜브,  
아크릴 물감  
150x80x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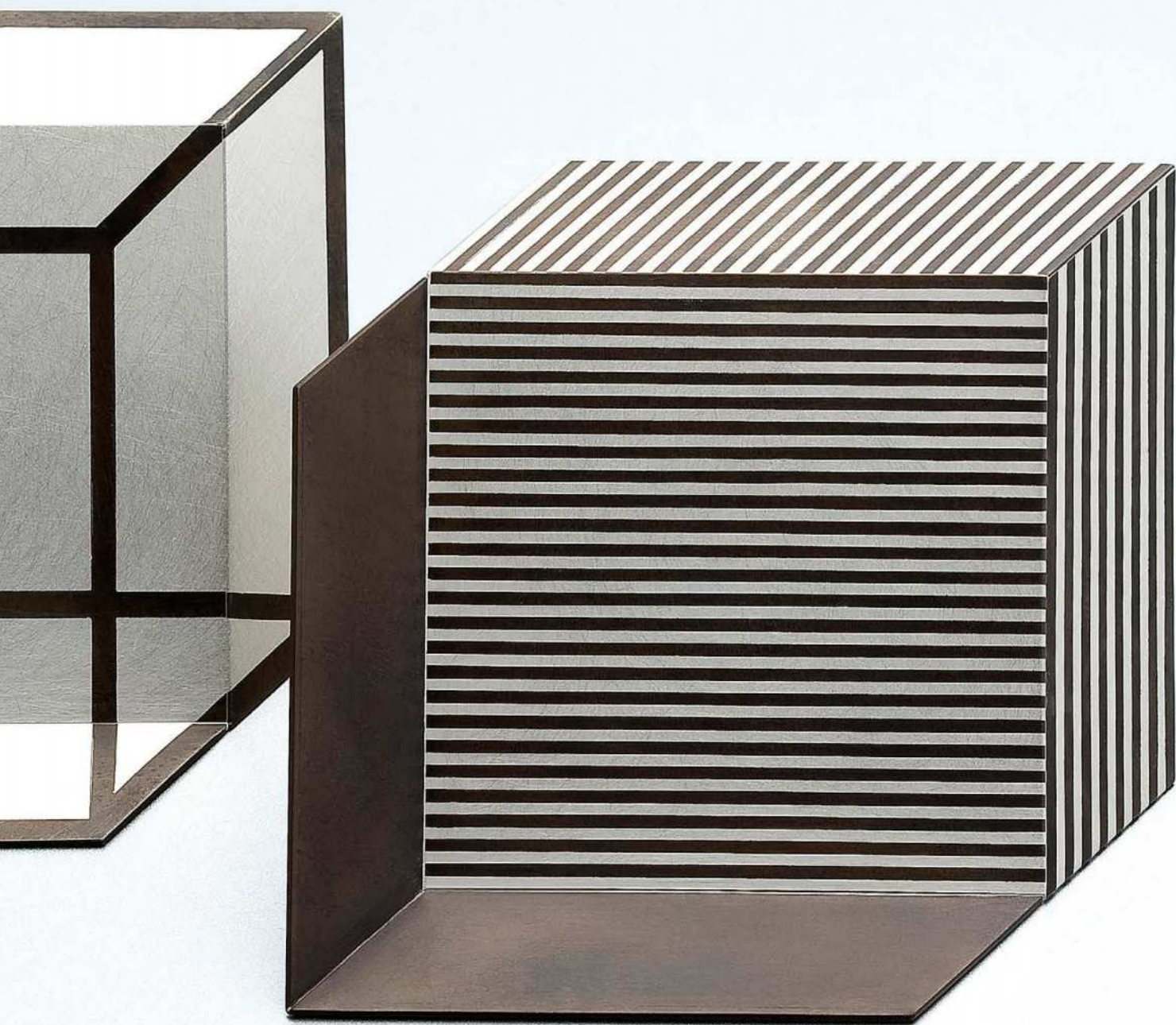
**Faces**  
Brooch, 2013  
Silver, 24k gold, wood, plastic,  
found object, acrylic paint  
70x70x40

**Society of Symbiosis**  
Necklace, 2014  
Silver, wood, leather,  
recycled bicycle tube, acrylic paint  
150x80x350

CHO Sung-ho was born in Cheongsong, Gyeongsangbuk-do in 1975 and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of SNU. Cho went to Alchimia Contemporary School in Italy and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in Munich, Germany to study jewelry. He worked as an artist at the Rob Koudijs gallery in the Netherlands and participated in the <Ornament and Illusion - Spectrum of Contemporary Jewelry> hel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of Korea in 2013. In the same year, Cho won the Artist of the Year Award, provided by Yoolizy Craft Museum in Korea. He currently is an educator of universities in Korea, includ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ontinues his creative work such as by participating in the Korean crafts exhibition <Korea Now!> that was held in Musée des arts décoratifs de Paris in commemoration of the Korea-Franc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2015. Cho is a contemporary jewelry artist, designing jewelry that gives life back to materials that are easily thrown away, such as wood, plastic, leather and rubber.

《B.F. No.1, B.F. No.2》는 흑백의 강렬한 대비를 통한 일루전을 주제로 한 은상감 브로치이다. 삼국시대(4C~7C)부터 사용된 금속상감 기법 중 하나인 입사 기법은 금속 표면에 선이나 면으로 홈을 파고 그 속에 금이나 은을 끼워 장식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수준 높은 기술을 요하기에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고위계층이 애호하던 고급 공예품에 쓰였다. 불교의식을 위한 향로나 정병, 왕실의 자물쇠, 담배함, 필통 등에 적용된 예를 통해 귀족계층의 취향과 생활 풍조를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1mm 넓이로 은과 백동을 교차하여 반복적인 기하학적 무늬를 만들어 냈으므로 브로치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왜곡되어 보이는 일루전을 보여준다. 여기서 작가는 눈에 보이지만 실재하지 않는 형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고대부터 이어져 온 입사기법을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예술적 표현을 위한 동시대 언어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형요소들은 관람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가상의 세계, 환영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든다.





<B.F. No.1, B.F. No.2>是通过黑白的强烈对比来呈现幻象主题的银象嵌胸针。金属象嵌技法自三国时代（4C~7C）开始使用，而入丝技法为其中之一，是在金属表面上用线或棉挖孔，在其中嵌入金或银的装饰方法。该技法要求匠人拥有高水平的技术，因此虽经过高丽时代直到朝鲜时代都只用于制作高层人士才能拥有的名贵工艺品。通过用于佛教仪式的香炉及净瓶、王室的锁头及烟盒或笔筒等，可以对贵族阶层的爱好及生活习俗略有了解。该作品宽为1mm，银与白铜相交织，形成反复的几何图案，给人带来一种幻觉，以为胸针的形态是扭曲的。创作者为了表达肉眼可见但实际上却不存在的形状，将从古代传承下来的入丝技法加以现代化的变形，用当代的语言进行了艺术诠释。这种造形元素使欣赏者自然而然地进入假象的世界、幻象的世界。

<B.F. No.1, B.F. No.2>は、白黒の力強さを比べることによるイリュージョンを主題とした銀象嵌のブローチである。三国時代（4C~7C）から使用された金属象嵌の技法のうちの1つである入絲技法は、金属の表面に線や綿で溝を掘り、その中に金や銀を嵌め込んで装飾する方法である。この技法は、レベルの高い技術を要するので、高麗時代を経て朝鮮時代に至るまで、主に高位階層にて愛用されていた高級工芸品である。仏教儀式のための香炉、浄瓶、王室の錠、煙草盆、筆箱等に使われ、貴族階層の好みと生活の風潮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本作品は、1mmの幅に銀と白銅を交互に繰り返して幾何学的に模様を作り出すことにより、ブローチが有している形状を表現するために、古代から受け継がれてきた入絲技法を現代風に変容して、芸術的な表現のための同時代の言語として使用した。そして、このような造形要素は、観覧者を、自然に仮想の世界、歓迎の世界に引き込んでくれる。

<B.F. No.1, B.F. No.2> is a silver inlaid brooch with the theme of illusion created by a strong contrast between black and white. The inlaying lines, one of the metal inlaying techniques used from the Three Kingdoms of Korea (4th C-7th C), is a decorative technique to cut a line or furrow on the metal surface and fill it with silver or gold. Since it requires high technical skills, through the Goryeo dynasty to the Joseon dynasty, it was mainly adopted to high quality crafts favored by the high class of people. Its uses in incense burners for the Buddhist rituals, water bottles, padlocks of the royal families, cigarette cases, pencil cases and others proves preference of the aristocrat class and their life styles. Repetitive geometrical patterns created by exchanging silver and nickel with the width of 1 millimeter gives an illusion that the shape of the brooch is distorted. In order to express a shape non-existing but visible, the artist transformed the inlaying line technique in a modernist way and uses it as a contemporary language to present art. Such figurative elements make the viewers naturally fall into a virtual, illusive world.

**B.F. No.1, B.F. No.2**  
브로치, 2018  
정은, 백동  
77x77x15 (each)

**B.F. No.1, B.F. No.2**  
Brooch, 2018  
sterling silver, nickel  
77x77x15 (each)

무엇을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면을 찾아 보려 합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공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 숨은 의미, 이런 것들이 저의 작업에 주된 테마가 되는 것이죠. 넓게 생각 하면 일반적으로 공예품은 어느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는 질 낮은 값싼 관광상품이나 옛날에 쓰던 물건들이라 생각하는데, 현대의 잘 만들어진 공예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이 장식품이 아닌 생활에 들어와 사용됨으로써 삶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无论是看还是听，我都试着去寻找事物的另外一面。熟悉却又陌生的空间、耳熟能详的故事中所隐藏的含义，这些都是我工作中的关键词。从广义上来讲，人们可能认为工艺品就是在景点可以随意接触到的价格低廉、质量较差的景点商品，或是在古代使用的东西，但我更希望人们能够发现现代有很多精巧的工艺品，这些工艺品并不是装饰品，而是进入到生活当中，为人所使用，使人们的生活更有乐趣。

「何かを見たり、話を聞いたとき、他の面を探してみようと思います。馴染みはあるが、見慣れない空間、よく知っている話の中に隠れた意味、これらは、私の作業において主なテーマになります。広く考えてみると、一般的に、工芸品は、観光地で見ることのできる質が低く値の高い観光商品や、昔使われていた物であると思われませんが、現代の、よく作られた工芸品がどんなに多いことか、それらが、装飾品ではなく、生活に浸透して使用されることにより、生き方をさらに楽しませてくれることを知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When I hear something or listen to a story, I try to find another side of it. A familiar but strange space, hidden implications under the well-known story, those things mainly serve as subject matters for my work. Generally crafts are considered low-quality, cheap souvenirs that can be found any tourist spots or items used in the old days. I hope that people could be aware of that there are many well-made crafts in these days and they can make our life more pleasurable when they are adopted and used in our daily lives instead of orna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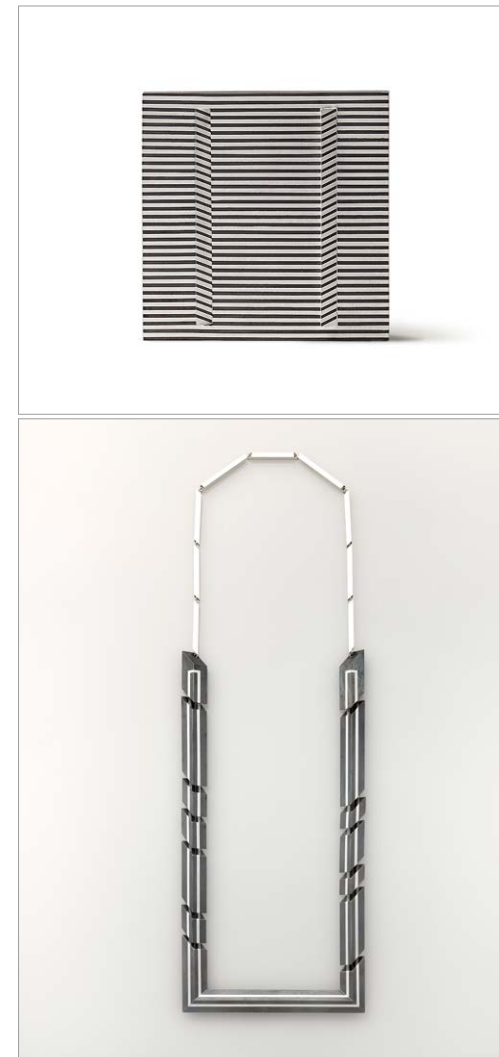




입사기법을 활용하여 시각적 환영을 주제로 한 장신구를 제작하는 김신령은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국민대학교 및 국민대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였다. 2003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이타미 국제공예공모전 주얼리 부문에서 입상하며 심사위원 상을 수상하였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세 번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장식과 환영-현대 장신구의 세계>전 및 2017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한국의 수공예(Handicrafts from Korea)> 전 등에 참여하였다.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모던한 형태의 장신구에 금속상감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아트 주얼리를 만들고 있는 김신령은 현재 송의여자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고 있는 금속 공예가이다.

KIM Shin-lyoung 1976年出生于首尔，使用入丝技术制作以视觉幻影为主题的装饰品，她曾在国民大学本科及研究生院学习金属工艺。2003年在日本举办的伊丹国际工艺大奖赛首饰单元获得了审核委员奖，2008年至2013年期间举办了三次个人展。2013年参加了国立现代美术馆举办的<装饰与幻影-现代装饰品的世界>展，2017年参加在德国慕尼黑举办的<韩国的手工艺(Handicrafts from Korea)>展等。KIM Shin-lyoung现任崇义女子大学助教授，是一位金属工艺家，在利用各种材料制成的现代形态首饰上加上金属镶嵌，制作出全新理念的艺术首饰，活跃参加在韩国举办的多个策划展会。

入絲技法を活用して視覚的歓迎を主題としたアクセサリーを製作するキム・シンリョンは、1976年にソウルで生まれ、国民大学校及び国民大学校大学院で金属工芸を専攻した。2003年に日本で開催された伊丹国際工芸公募展のジュエリー部門で入賞し、審査委員賞を受賞した。2008年から2013年まで3回にわたって個人展を開催した。2013年の国立現代美術館で開催された<装飾と歓迎-現代アクセサリーの世界>展及び2017年のドイツミュンヘンで開催された<韓国の手工艺(Handicrafts from Korea)>展等に参与した。多様な素材を用いたモダンな形態のアクセサリーに金属象嵌を融合した新しい概念のアートジュエリーを製作しているキム・シンリョンは、現在、崇義(スニイ)女子大学校の助教授として在職しており、韓国国内で開催される多数の企画展に参与している金属工芸家である。



**청동은입사향완**

보물1735호, 고려시대 양산 통도사 소장

**첫번째 작품**

목걸이, 2016  
순은, 정은, 양은  
130×440×10

**Silver-Inlaid Bronze Incense Burner**

Treasure No. 1735, Goryeo Dynasty Collection of Tongdosa Temple, Yangsan

**The first piece**

Necklace, 2016  
998silver, sterling silver, nickel silver  
130×440×10

KIM Shin-lyoung, who designs jewelry with the theme of visual illusion by using Ipsa (metal inlaying) technique, was born in Seoul in 1976. She studied metalwork and jewelry in Kookmin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In 2003, Kim was awarded the Jury Prize in Jewelry Category at the Itami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held in Japan. And she opened three private exhibitions from 2008 to 2013. She participated in <Ornament and Illusion - Spectrum of Contemporary Jewelry> hel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of Korea in 2013 and in <Handicrafts from Korea> held in Munich, Germany in 2017. Kim, who creates art jewelry of a new concept by combining metal inlay on jewelry of various materials, is a metalwork craftsman participating in many special exhibitions held in Korea while also teaching at Soongeui Women's College as assistant professor.

〈생명의 흐름(VITALIZE FLOW)〉은 자연의 거친 환경을 뚫고 아름답게 피어난 꽃을 묘사한 은 목걸이와 브로치이다. 망치와 작은 정으로 금속에 세부 문양을 표현하는 타출 기법은 고려시대(10C~14C)에 가장 화려하게 나타나는데, 불교용품부터 시작하여 경갑, 팔찌, 찻잔 등과 같은 다양한 공예품에 적용되었다. 이 기법은 연성이 큰 금속에 적용되는 기술이므로 힘 조절을 비롯한 섬세한 감각이 필수적이다. 김선영은 0.3mm 이하의 얇은 은판으로 만든 꽃잎과 줄기에 섬세한 잎맥과 특유의 줄기 요철에 이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식물의 세부 묘사와 함께 금속의 재질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도식화된 문양을 표현하던 전통 기법을 자연물의 구체적인 묘사방법을 표현하는 현대기법으로 변형시킴으로써 한국공예의 전통이 시간을 거치며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生命的流淌(VITALIZE FLOW)>是银项链和胸针，勾勒出的是在恶劣的自然环境下生存下来并结出的美丽花朵。采用打出技法，使用锤子和小钳子在金属上打造出细腻的花纹，这种技法在高丽时代(10C~14C)得到了最为广泛的使用，用于制作从佛教用品到颈甲、手镯、茶杯等各种工艺品。该技法是适用于软金属的技术，要求匠人拥有力度调节的能力以及细腻感性。KIM Sun-young在不足0.33mm薄的银盘花瓣及枝茎上使用该技法，打出细腻的叶脉及特有的枝茎凹凸，这样既勾勒出了植物的细节，又有效地凸显了金属的材质感。创作者将表现图案的传统技法变换为了勾勒出自然物品具体细节的现代技法，由此展示了韩国工艺传统随着时间推移所拥有的新面孔。

<命の流れ(VITALIZE FLOW)>は、自然の粗い環境を突破して美しく咲いた花を描写した銀のネックレスとブローチである。ハンマーと小さい鑿で金属に細かい文様を表現する打出技法は、高麗時代(10C~14C)に最も可憐に現れ、仏教用品から始まり、すね当て、ブレスレット、湯呑等といった多様な工芸品に使われた。この技法は、軟性のある大きな金属に使われる技術で、力の調節をはじめ、繊細な感覚が必須である。キム・ソンヨンは、0.3mm以下の薄い銀の板で作られた葉っぱと幹に繊細な葉脈や特融の幹の凹凸にこの技法を使用し、植物の細かい描写と共に、金属の材質感を効果的に表現した。作家は、図式化した文様を表現していた伝統技法を自然物の具体的な描写方法を表現する現代技法に変化させて、韓国工芸の伝統が時間を経て、また別の姿で生きているという事実を示した。

<VITALIZE FLOW> is a silver necklace and a silver brooch depicting beautifully blooming flowers going through the tough environment of nature. The beating technique of expressing details in gold by a hammer and a small chisel flourished in the Goryeo dynasty (10th C-14th C), and it was broadly applied from the Buddhist items to various crafts including greaves, bracelets, and teacups. Since malleability is applied to large metal in this technique, subtle sense including controlling strength is required. Using this technique to create delicate veins of a leaf and unique irregularity of a stem in the petals and stems made with a thin silver plate with 0.3 millimeters or less thickness, Kim effectively depicted details of the plant and presented the texture. By changing the traditional technique for expressing standardized patterns to a modernist technique to depict details of plants, the artist demonstrates that Korean craft is alive taking on another aspect as time passes.

**생명의 흐름**

브로치, 목걸이, Necklace, 2017  
 정은 110×90×20, 160x160x25

**VITALIZE FLOW**

Brooch, Necklace, 2017  
 sterling silver 110×90×20, 160x160x25

식물이 아름다운 것은 피어나고 사라지는 찰나적 순간이 존재함과 동시에 다음 생명을 이어 주는 소생의 과정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식물은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의 에너지를 암시합니다... 동일한 정을 사용하더라도 손의 강도와 밀도에 따라 질감 표현이 다채롭게 표현되는 점이 타출 기법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더불어 굵는 행위로 만들어 지는 유기적인 선들과 두드리는 행위로 나타나는 질감은 생명의 힘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 작품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我认为植物之所以美丽，是因为它拥有开放后消失的那一瞬间，同时也存有孕育下一个生命的苏醒过程。在这个过程中，植物虽然很脆弱，却孕育着强大的生命能量……即使使用同样的钎子，根据手的强度与密度不同，所表现出的质感多种多样，这可谓是打出技法的最大魅力。与此同时，划出的一条条线条以及敲打出来的质感更加强调生命力，也是在创作作品的过程中不可或缺的部分之一。

「植物が美しいのは、咲いた後、散っていく刹那的瞬間の存在と、次の命につなげる蘇生の過程が共にあるからだと考えます。その過程において、植物は、軟弱ですが、強い生命力を暗示しています。同じ鑿を使っても、手の強度と密度によって質感の表現が多彩に表現される点が、打出技法の最も大きな魅力です。さらに、線を引く行為により作られる有機的な線と、たたく行為により現れる質感は、生命の力をさらに強調しており、作品においてなくてはならない過程のうちの1つです。」

The reason plants are beautiful is that the fleeting moments of flowering and vanishing exist but at the same time a reviving process for the next life involves. During this process, the plant implies delicate but strong energy of life…….The most enticing fact of the beating technique is that although I use the same chisel, texture can be expressed in a various way depending on the strength and density of the hand. Besides, organic lines created by an act of drawing and texture created by an act of beating more emphasize strength of life, and thereby this process cannot be deleted in the work.”







외부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금속과 식물의 공통적 속성을 주제로 장신구를 제작하고 있는 김선영은 1986년 청주에서 태어나 공주대학교에서 주얼리 디자인을 공부하고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였다. 졸업 후 2013년에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국제수공예페어(Internationale Handwerks Messe)의 특별전인 <탈렌트(TALENTE)>에 소개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미국 아트앤디자인뮤지엄에서 개최한 <LOOT>에 초대받아 참여하였다. 한국과 스페인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김선영은 타출 기법을 활용한 자연적인 형태의 세밀한 장신구를 제작하며 한국의 금속공예 장식기법을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젊은 현대 장신구 작가이다.

KIM Sun-young 1986年生于清州，目前在从事以根据外部环境而变化的金属及植物共同属性为主题的装饰品创作，曾于公州大学学习首饰设计，又于国民大学研究生院学习金属工艺。毕业后，2013年在德国慕尼黑举办的国际手工艺博览会(Internationale Handwerks Messe)特别展<TALENTE>上介绍了她的作品，她也由此开始获得关注。2017年，她受邀参加了美国艺术设计博物馆举办的<LOOT>。这位年轻的现代装饰品创作者还曾在韩国及西班牙举办过个人展，目前从事使用打出技术制作拥有自然形态的精密装饰品，使用现代技术诠释韩国的金属工艺装饰的工作。

外部環境により変化する金属と植物の共通の属性を主題にアクセサリーを製作しているキム・ソンヨンは、1986年に清州市で生まれ、公州大学校でジュエリーデザインを学び、国民大学校大学院で金属工芸を専攻した。卒業後、2013年にドイツミュンヘンで開催された国際手芸フェア(Internationale Handwerks Messe)の特別展である<タレント(TALENTE)>で紹介され、注目され始めた。2017年には、アメリカのアート&デザインミュージアムで開催された<LOOT>に招待され参与した。韓国とスペインで個人展を開催したキム・ソンヨンは、打出技法を活用した自然形態の精密なアクセサリーを製作し、韓国の金属工芸装飾技法を現代的に解している若い現代アクセサリー作家である。



**은제도금화형탁잔**

보물1899호, 12세기 고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Gilt-silver Wine Cup with Stand**

Treasure No. 1899, 12th Century  
Goryeo Dynasty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나뭇잎 안의 존재 #2**

브로치, 2014  
황동  
82x96x27

**Be in leaf #2**

Brooch, 2014  
Brass  
82x96x27

KIM Sun-young designs jewelry with the theme of the common qualities of metal and plants, which change according to external environment. Kim was born in Cheongju in 1986 and studied jewelry design at Kongju National University and majored in Metalwork and jewelry at College of Design, Kookmin University. After graduation, in 2013, Kim started to gain attention since she was introduced at a special exhibition <TALENTE> of Internationale Handwerks Messe, which was held in Munich, Germany. She was invited to participate in <LOOT> organized by The Museum of Arts and Design based in the U.S. in 2017. Kim, who opened private exhibitions in Korea and Spain, is a young contemporary jewelry designer who creates delicate jewelry in the most natural form using Tachul (Repoussé) technique, interpreting metalwork ornamental techniques of Korea in a modern perspective.

〈공존의 숲(Forest of Coexistence)〉은 가는 은선을 꼬아 숲 속에 살고 있는 곤충을 묘사한 브로치이다. 가느다란 금속 선으로 문양을 만드는 기술인 세선 기법은 5~6C 신라시대에 주로 금관이나 금제 허리띠 등 고위계층의 장신구에 많이 사용되었다. 고도의 기술적 숙련이 필요하며 현대에는 잘 쓰이지 않는 장식기법이다. 그러나 작가는 세선 기법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주로 비탕 금속 위에 편평하게 장식되는 기법을 입체적인 조형기법으로 변용하여 자신의 예술적 표현도구로 사용한다. 작가가 만든 곤충들은 익숙한 형태지만 자세히 보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곤충들이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이방인처럼 낯설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존재로서 제시되고 있다. 가늘게 꼬인 은선을 수십 번 중첩하여 만든 곤충과의 조우는 인류 출현 전부터 살고 있었던 곤충의 미미한 존재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관찰을 도모한다.





<共存之林(Forest of Coexistence)>是使用银线勾勒出生活在森林中的昆虫的胸针。使用细细的金属线勾勒出形状的技术被称为累丝技法，在5~6C的新罗时代，该技法主要用于制作金冠、金腰带等高官装饰品。这种技法要求匠人拥有熟练的技术手法，在现代并不常用。然而创作者对累丝技法进行了现代的诠释，将原在金属面上进行扁平装饰的技法改成了立体造型技法，用于自己的艺术表达。创作者所制作的昆虫形态虽是我们所熟悉的，但仔细来看，这些昆虫是现实当中并不存在的。它们存在于我们身边，但又像异邦人一样陌生，另外一方面，也给我们带来恐惧的感觉。细细的银线经过数十次的重合，演绎成与昆虫的相遇，引发人们对于从人类出现以前就存在的昆虫产生好奇，并鼓励人们去进一步观察昆虫。

<共存の森(Forest of Coexistence)>は、細い銀線をもつれさせて、森の中で生きている昆虫を描写したブローチである。ごく細の金属線で文様を作る技術であるフィリグリー技法 (Filigree technique) は、新羅時代(5~6 C)に、主に金冠や金製腰帯等の高位階層のアクセサリーに多く使われた。高度の技術的熟練が必要であり、現代ではよく使われない装飾技法である。しかし、作家は、フィリグリー技法に対する現代的解釈を通して、主に基礎となる金属の上に平らに装飾される技法を立体的な造形技法に変容して、自身の芸術的表現道具として使用した。作家が製作した昆虫は、見慣れた形態であるが、よくみると、実際には存在しない昆虫である。細くもつれた銀線を数十回重畳させて作った昆虫との遭遇は、人類出現前から生きていた昆虫の微々たる存在を好奇心の対象へと引き寄せ、観察させる。

<Forest of Coexistence> is a series of brooch depicting bugs that live in the forest by twisting silver lines. A technique for filigree, an ornamental work of fine wire formed into delicate tracery, was mainly used to make accessories for the high class such as golden crowns, and golden belts in the Kingdom of Silla in the 5th to 6th century. The technique requires high level of mastery and is rarely used these days. However, through a contemporary interpretation on the technique for filigree, which is usually adopted on flat metal, the artist transformed it to a three-dimensional technique and uses it as a means for artistic expression. The bugs created by Lim are familiar, but looked into closely, they are imaginary. They are presented as beings existing around us, but strange or sometimes fearful like foreigners. An encounter with bugs made by piling up thinly twisted silver lines dozens of times brings the trivial existence of bugs that had lived even before emergence of humans into objects of curiosity and encourages observation.

공존의 숲	Forest of Coexistence
브로치, 2018	Brooch, 2018
순은, 정은	fine silver, sterling silver
150×150×50 (each)	150×150×50 (each)

저의 기법은 선에서 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질감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형태를 만들지 않더라도 풍부한 표현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 기법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는 작업, 만드는 사람에게 그리고 관람하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달한다면 그것 만으로도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작업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我的技法是从线到面，打造出特别的质感。即便不制作复杂或较难的形状，这种质感也会给人带来极为丰富的表现感，我认为这正是这种技法的魅力……激发想象力的工作，对于制作的人和欣赏的人来说，如果能够传递想象的空间，那么我认为这比传递其他任何信息都更有意义。

「私の技法は、線から面へと作られるため、特別な質感が作られます。この質感により、特に複雑又は困難な形態を作らなくても多くの表現をしたようにみせてくれます。これは、この技法の最も大きな魅力であると考えます。想像力を呼び起こす作業は、作る人、そして、観覧する人に創造できる可能性を伝えるにあたって、それだけでも、メッセージを伝えることよりも良い作業であると考えます。

Since my technique turns a line to a side, special texture is created. This texture seems to present rich expression without specifically complex or difficult shapes. This makes the technique so fascinating……A work that brings up imagination. If an act of work can deliver a possibility to imagine to a creator and viewers, the act itself suffices, better than delivering a certain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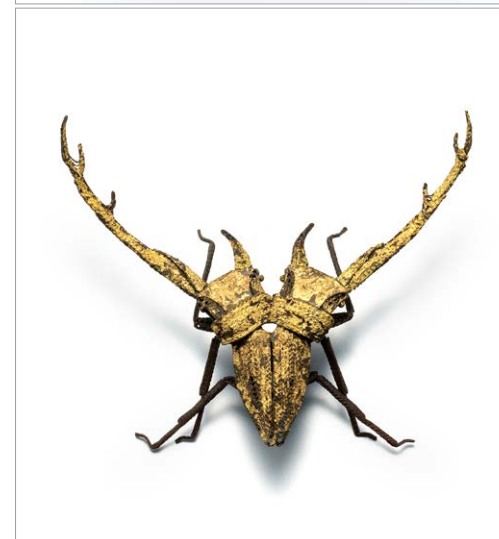




가는 은선을 꼬아 만드는 세션 기법을 사용하여 곤충 형태의 장신구를 제작하는 임종석은 1987년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나 건국대학교와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였다. 금속공예의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심도 있게 연구한 임종석은 2016년 대학원을 졸업하며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마제국제대학원생공모전(Marzee International Graduate Prize)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세션 기법을 사용한 곤충 모양의 장신구로 2016 공예트렌트페어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2017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예술공예 비엔날레 <헤빌라시옹>에 참여했던 임종석은 서울에서 활동하며 국내외 다수의 기획전에 참가하고 있는 신예 작가이다.

LIM Jong-seok 使用搓银线来制作作品的累丝技法，制作昆虫形状的装饰品。1987年出生于京畿道平泽，并于建国大学及国民大学研究生院学习金属工艺，深入研究金属工艺的各种材料及技术，2016年研究生毕业，在荷兰举行的Marzee International Graduate Prize上被选为获奖者，同年，他使用累丝技法制作的昆虫形状装饰品在2016工艺三年展上获得年度创作者奖。2017年参加了在法国巴黎举办的艺术工艺双年展<R velations>，目前在首尔开展创作活动，并参加韩国国内外多个策划展会，是一名新锐创作者。

研ぐ銀線を絡ませて作るフィリグリー技法を使用して、昆虫形態のアクセサリーを製作するイム・ジョンソクは、1987年に京畿道平澤市生まれ、建国大学校と国民大学校大学院で金属工芸を専攻した。金属工芸の多様な素材と技法を深く研究したイム・ジョンソクは、2016年に大学院を卒業し、オランダで開催されたマルゼー国際大学院生公募展(Marzee International Graduate Prize)で受賞者として選定され、フィリグリー技法を用いた昆虫模様のアクセサリーで2016年の工芸トレンドフェアで今年の作家賞を受賞した。2017年にフランスのパリで開催された芸術工芸ビエンナーレ<ヘビーラシオン>に参加したイム・ジョンソクは、ソウルで活動しており、国内外多数の企画展に参加している新鋭の作家である



**평양 석암리 금제 허리띠장식**  
국보89호, 1세기 낙랑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Seokamri Gold buckle of Pyongyang**  
National Treasure No. 89, 1st Century  
Nangnang period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LIM Jong-seok was born in Pyeongtaek, Gyeonggi-do in 1987 and studied metalwork and jewelry in Konkuk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Lim designs jewelry in shapes of insects by using Seseon (filigree) technique by twisting thin silver wire. Lim, who studied various materials and techniques of metal craft,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in 2016 and was won the Marzee International Graduate Prize in the Netherlands. In the same year, Lim won the Artist of the Year award at the Craft Trend Fair 2016 in Korea with his insects-shaped jewelry using Seseon technique. Lim is a rising artist based in Seoul, participating in many special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including the fine craft and creation biennale <R velations> in Paris in 2017.

## 한국공예가 지닌 독자성과 현대성에 대한 단상

김진아 큐레이터

공예품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지식은 그것을 감상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게 풍부한 심미적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소재와 기술, 표현방법 등에 있어 한국의 역사적, 환경적, 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는 현대공예의 경우,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적 배경지식은 그 작품이 지닌 시각적 요소와 더불어 바탕에 깔린 감성까지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 글은 한국의 현대공예를 이해하는 방법론의 하나로서, 본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적 원형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융(Carl Gustav Jung)은 옛 선조들의 생활에서 반복되던 경험 형태들의 심리적 잔존물들이 집단 무의식을 통하여 전해 내려오는 것을 ‘원형’이라는 용어로 설명한 바 있다. 융의 이론을 근거로 인류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학자<sup>1</sup>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문화적 원형은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인문학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지식 중 하나로, 오히려 서로 다른 문화의 차별성을 설명하는데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sup>2</sup> 공예는 인간의 축적된 지혜와 경험의 소산물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들 사회의 역사와 문화가 응축되어 전해지는 하나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원형은 오랜 시간 반복적인 경험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전해지며 살아있는 전통을 만든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어떤 독자적인 원형을 지니고 있으며, 그 원형은 현대의 공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공예는 오랜 역사와 환경적 특성, 한국인의 기질적 특성에 뿌리를 두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지금의 모습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그 양식적 특징에는 대비의 강조, 기하학적 단순성과 추상적 형태, 솔직한 감정표현 등과 같은 현대적 표현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문화적 원형으로서의 한국공예가 지닌 독자성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안에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하여 획득되고 표출되는 한국공예의 현대성에 대해 느끼는 대로 적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은 단일민족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의한 강점기 36년을 제외하고 이민족에 의한 통치 없이 한민족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한국이 갖고 있는 역사의 특수성이기 때문이다. 국사학자인 한영우 교수는 막강한 동화력을 지닌 중국문화의 영향과 이민족의 침략에도 주권을 잃지 않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까닭을 우리 조상들의 탁월했던 지피지기(知彼知己)와 법고창신(法古創新)

의 균형 감각으로 설명한다.<sup>3</sup>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고유한 언어와 풍속을 지키며 그 어디에도 동화되지 않은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잘 알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가구의 기능적, 개념적 변화를 도모하는 최병훈은 대비적인 재료의 질감과 형태에서 오는 긴장감을 통해서 현대성을 보여준다. 정해조는 붉은 옷칠의 추상적 형태를 통해 절정의 울동감과 원초적 감각에서 비롯된 창조 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손대현은 옷칠공예의 기술적 전통성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전통문양을 균형 잡힌 현대적 패턴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경쾌한 울동감을 표현하고 있다. 생활용품에 기능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김현주는 금속과 나전이라는 두 재료를 조화롭게 매치하여 모던한 공예품을 제작하며, 홍성환은 유리의 재료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공예적 표현의 확장을 도모한다.

유구한 단일역사와 더불어 한국공예는 기후와 지형이 주는 다양성에 의해 독자성을 획득하고 있다. 한국의 기후는 사계절이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을 비롯한 동물과 식물 등이 매우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또한 사계절에 따른 다양한 의식주 문화는 종류도 많고 기능도 다양하다. 그리고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낙천적인 국민성과 산수의 자연을 즐기는 문화가 발달하였다. 우리의 조상들은 자연에 인공을 가할 때, 오히려 자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공예품에는 자연을 모방하거나 자연의 상태 그대로를 드러내는 표현이 많다.<sup>4</sup> 이는 자연을 아끼고, 자연과 나를 동일시하며, 자연적 관조를 존중하는 한국적 자연주의로도 연결된다.<sup>5</sup> 달항아리를 만드는 권대섭은 완벽한 비례보다는 불완전하지만 인간적인 자연스러움, 은은하면서도 넉넉한 여유로움을 특징으로 하는 둥근 달의 형태를 통해 한국의 모더니즘을 추구한다. 이가진은 청자가 지닌 물성의 표현을 넘어 비물질적 물질을 재현함으로써 공예가 보여줄 수 있는 현대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배추의 사실적인 형태를 작품에 그대로 적용한 구세나는 낫익은 자연물을 일상적인 질서에서 떼어 내어 미적 요소들과 낯설을 통한 재미를 찾는다. 고혜정은 자연물의 집적된 장면들을 포착하여 이를 형상화 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수종인 소나무를 소재로 작은 유년의 집합에 의한 집적미를 보여준다. 이순재는 전통 지화공예에 담긴 선조들의 생활 속 지혜와 한국의 고유한 자연관을 표출한다.

또한 한국은 전통적으로 혈연과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발달된 공동체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한국공예의 독자적인 특징들이 포착된다. 공동체는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긴밀하고 결속력이 강하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족제도를 유지하며 선경험자인 노인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공동체에 대한 전통 때문이다. 또한 지역 공동체 역시 중요한 전통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풍양속을 나누며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따뜻한 인간애가 담겨있다. 이러한 공동체문화 속에서는 축적된 삶의 양식과 기술들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지속된다. 이렇게 전달된 양식과 기술들은 한국 현대공예의 다양한 모티브 중 하나로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집안의 어른으로부터 배운 침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강금성은 전통적인 조각보를 재해석하여 단아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기하학적 패턴의 이불을 만들었고, 정순주와 박인숙은 공동체의 고유한 노동방식인 '협업'을 통해 민화 형식의 또 다른 파격을 보여주며 한국 민중예술에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 동시대의 공예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김영옥은 현대적 공예문화 안에서 동시대 사물로서 찻주전자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유구한 역사와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적 특성, 옛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한국인의 기질적 특성에 뿌리를 두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현대공예의 모습은 '코리아 아트 주얼리'로 명명되는 현대 장신구에서 가장 집약되어 나타난다. 이 현대 장신구들은 지역적 특산 소재와 한국의 공예기술이 지닌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며, 현대미술의 특성으로 거론되는 대비와 강조, 단순과 추상 등의 표현적 요소들을 갖춘 기능적 예술품이다. 강미나는 전통적으로 옷을 만드는 섬유인 모시를 개인의 서사를 담는 창의적 표현의 소재로 사용하여 추상적 구성 형식의 장신구를 만든다. 김재영은 육에 대한 전통적 의미와 가치를 작품 속의 자연물에 투영하며 작가가 지닌 한국적 정서와 자연미학을 구성적 비례미와 기하학적 형태로 보여준다. 박순덕 안초장 이수자와 김연경은 협업을 통해 안초라는 소재의 지역적, 전통적 관념을 넘어 현재에 이어지는 새로운 안초 공예의 가능성으로 기하학적 형태의 브로치를 제시한다. 박예님은 무의식적 감각에 기반한 자유로운 형태의 장신구를 통해 이 시대의 기술과 예술적 표현을 위한 도구로 재생된 새로운 말총공예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신령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입사기법을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눈에 보이지만 실재하지 않는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동시대 언어로 사용한다. 김선영은 도식화된 문양 표현에 사용하던 타출기법을 자연물의 세부묘사 기법으로 변형시킴으로써 한국공예의 전통이 시간을 거치며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임종석은 세션 기법을

입체적인 조형기법으로 변용하여 곤충을 만들고 이 미미한 존재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끌어들이어 관찰을 도모한다. 정운복 목조각장 이수자와 조성호는 협업을 통해 나무의 특징과 손이 지닌 기호적 요소를 탁월하게 매치함으로써 손에 대한 풍부한 표현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한국공예가 지니고 있는 독자성과 이러한 문화적 원형을 배경으로 창작된 공예작품의 양식적 특징을 〈한국공예전-기량의 예술〉에서 소개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았다. 공예는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사물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와 자연, 그리고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의 소산물로서 나름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시대나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양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열강들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연 친화적이고 낙천적인 기질을 바탕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한국공예의 특질 속에 분명 현대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공예의 독자성과 현대성이 확장된 인식과 다변화된 매체로 이어지는 미래의 한국공예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더욱 견고한 고유성을 획득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 1854-1941), 영국의 민속학자. 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전설이나 의식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패턴을 추적하는 연구를 통하여 인류문화의 단일성, 공통성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심리학박사이자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교수인 이상현은 문화적 원형을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지식이며, 이 문화적 원형은 감성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를 근거로 한국인들의 감성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한국인은 외향성과 내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특이한 감성적 지형을 지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국인의 마음』, 사회평론, 2011

3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역사』, 경서원, 2010년 전면개정판, p21-43 참고

4 사계절이 뚜렷하여 기온차로 생기는 나이테는 아름다운 무늬의 결을 형성하는데 한국의 목공품에는 인위적인 조각이나 칠 대신 나뭇결을 살려 자연적인 순수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려 했다. 김동우, 박영규, 『한국 미의 재발견 - 목칠공예』, 솔출판사, 2005

5 김원룡은 자연주의가 한국의 전통미술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파악하였으며,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 재현하려는 자연주의"로 특징 지어진다고 하였다. 조요한, 『한국미의 조명』, 열화당, 2004, p53-56, 311-315 참조

## 关于韩国工艺独创性与现代性的随想

金眞兒 协助策展人

工艺品所蕴含的文化背景知识对于欣赏或使用工艺品之人来说，是能使其感受到审美感性的要素之一。特别是从材料、技术、表达方法等方面来讲，如果是蕴含韩国历史、环境、文化背景的现代工艺，对于韩国整体的文化背景知识的了解能够帮助人们不仅从视觉角度看待作品，更能够对视觉元素之下蕴含的感性有所深入了解。本文作为深入了解韩国现代工艺的方法论之一，以本次展览上展出的作品为中心，旨在把握从人文学角度来欣赏的文化原型。

瑞士心理学家荣格(Carl Gustav Jung)认为，祖先生活当中不断反复的经验形态所遗留下来的心理产物透过集体潜意识遗传下来，这样遗传下来的就是所谓的“原型”。有的学者<sup>1</sup>以荣格的理论为依据来解释人类的普遍性，然而无论如何，在理解一个社会的文化时，文化原型是人文学所能赋予的核心知识之一，可以说是解释不同文化之间差异时的一个有力依据。<sup>2</sup>工艺作为人类智慧与经验积累下来的产物，可以说是使用工艺品之人与其社会历史、文化彼此融合，并由此流传下来的一个原型。而这原型经过长时间反复的经验无意识地传递下来，由此形成活生生的传统。

那么韩国所拥有的到底是怎样的独创性原型，而该原型在现代工艺当中是怎样表现出来的呢？从结论上来讲，韩国工艺扎根于长久的历史与环境特点、韩国人的性情特点，并经过不断的变化实现了现今的样式。而其外形特点当中包含着现代表达方式，比如对比的强调、几何形状的单纯性、抽象形态、坦诚的情感表达等。因此本文将在此简单讲述韩国工艺作为文化原型所具有的独创性以及其中通过反复的经验而获得、表现出来的现代性。

首先我们需要关注韩国拥有单一民族的历史，除了日本侵略的三十六年之外，没有受过其他民族的统治，始终延续着韩民族的历史，这是韩国历史的特点。韩国史学者韩永愚教授表示，在受到极强的同化力量的中国文化影响、外族侵略的情况下，韩国之所以没有丧失国家主权反而能够守护自己的民族身份，是因为韩国的先祖所推崇的“知彼知己”与“法古创新”思想实现了均衡融合。<sup>3</sup>之所以能够在接受先进文化的同时守护固有的语言及风俗，形成不受任何力量同化的独创文化，是因为对自身有着清醒

的认识，同时也毫不惧怕面对新的挑战。CHOI Byung-hoon致力于为传统家具带来功能、概念方面的变化，通过彼此形成对比的材料质感及形态带来紧张感，以此实现作品的现代性。郑解朝则塑造Ott漆的抽象形态，以此来讲述源于极致律动感及本能的创造之根源。SHON Dae-hyun则一方面延续Ott漆工艺的技术传统，另一方面以富有现代感的图案来诠释传统花纹，以此赋予作品轻快的动感。KIM Hyun-ju关注的是如何才能不断提升生活用品的功能性与耐用性，她将金属与螺钮完美搭配到一起，制作成富有现代感的工艺品。HONG Sung-hwan最大限度地利用玻璃的材料特点，试图进一步扩展玻璃的工艺表现感。

伴随着悠久的单一民族历史的发展，因着气候与地形所带来的多样化，韩国工艺拥有了其独创性。韩国的四季分明，每年按时交替反复，这种气候造就了人与动植物的强韧生命力。因着四季的交替变化，衣食住文化也自然拥有了更多的种类和功能。和邻国日本、中国相比，韩国的自然灾害相对来说较少，因此百姓也自然拥有了乐观的性格，并且形成了享受大自然之美的文化。韩国人的祖先将人工色彩融入大自然之中时，他们认为人工元素会破坏大自然的美，因此传统工艺品往往是模仿大自然的样式或是将大自然的本然状态诠释出来。<sup>4</sup>这与珍爱大自然、尊重自然原貌，将大自然看得与自身一样宝贵的韩国式自然主义也是一脉相通的。<sup>5</sup>制作月亮缸的KWON Dae-sup选择的不是完美比例，而是表达了虽不完美却更自然、隐约而宽广的圆月形，以此诠释了韩国的现代主义。LEE Ka-jin超越青瓷的物性表达水平，采用以物质来诠释非物质的手法，以此展现工艺的现代性。GU Se-na将白菜的形态原原本本融入到作品之中，将人们熟悉的自然物从日常生活当中分离出来，在其中注入美学元素，放入生疏的场所之中，由此诠释出新的韵味。KO Hye-jeong将自然物堆积的场面诠释出来，在此次展览中以韩国代表树——松树为素材，通过小小的单元相连接表现出密集美。LEE Soon-jae表达的是传统纸花工艺中蕴含的生活智慧与韩国固有的自然观。

另外，韩国自古以来拥有以血缘关系和地缘关系组成的集体文化，在此也可窥见韩国工艺独创性的体



现。集体是在特定社会空间内，拥有共同价值及相似身份认知之人所组成的集团，成员之间的关系紧密，且具有较强的约束力。韩国之所以能够维持相对稳定的家庭制度，尊敬人生经验更丰富的老者，正是因为以家庭为单位的集体文化的影响。而地域关系也是集体文化的另一大组成要素，以地区为单位的集体也拥有着悠久的历史，人们共享着彼此的经验，发扬美好的道德风尚，互帮互助，充满了温暖的人间之爱。这种集体文化中所蕴含的生活方式与技术也在一代一代传承，如此传承下来的生活方式与技术是韩国现代工艺众多基调当中极为重要的一个方面。KANG Geum-seong从家庭长辈处继承了针线技术，将传统拼布改造为典雅设计的几何图案被子。JEONG Soon-joo与PARK In-sook通过传统的集体作业方式——合作来打造民画的新形式，全新解读韩国民众艺术，并展现了当今时代的工艺风格。KIM Young-ock在现代工艺文化的格局中展现了当今时代物品——茶壶，并借此显示出了创作者愿意与集体成员结成纽带关系的态度。

韩国现代工艺以古老工艺为基础，在体现韩国人性情特点的前提下不断追求新的变化，由此而形成了名为“韩国艺术首饰”的现代装饰品，其中也体现出了悠久的历史以及四季分明的环境特点。现代装饰品属于功能性艺术品，以地区特产材料与韩国工艺技术的历史特点为基础，还容纳了一向被看作现代美术特点的对比与强调元素以及单纯与抽象等表达手法。KANG Mi-na使用一向用来制作衣服的苧麻，有创意地表达个人故事，制作出抽象形态的装饰品。KIM Jae-young将玉的传统含义及价值投射到作品当中的自然物上，用组成比例及几何形态表达出了创作者的韩国情调及自然美学。菟草匠进修者 PARK Sun-doak与KIM Yeon-kyung合作，颠覆了人们对于菟草所持有的地域、传统观点，以几何形态的胸针展示了现代全新菟草工艺的发展潜力。PARK Ye-nim制作的是代表着无意识感觉的自由形态装饰品，以此展示了马尾工艺作为当地技术与艺术表现工具的发展可能性。KIM Shin-lyoung将从古代延续下来的入丝技术予以现代化的演变，用现代手法诠释出虽肉眼看得见但却真实存在的形状。KIM Sun-young将表现图案的传统打出技法变换为了勾勒出自然物品具体细节的现代技法，由此展示了韩国工艺传统随着时间推移所拥有的新面孔。LIM Jong-seok将累丝技法转变为立体造形技法，用于制作昆虫，引发人们对毫不起眼的昆虫产生好奇，并鼓励人们去进一步观察昆虫。木雕匠进修者JEONG Woon-bok与CHO Sung-ho合作，将木头的特点与手的几何元素完美搭配到一起，对手进行了更为丰富的呈现。

至今为止，我们主要针对<韩国工艺展——技术之艺术>中所介绍的作品，对于其以韩国工艺的独创性及文化原型为背景创作的工艺作品特点进行了简要分析。工艺是存在于世界各国的普遍物品，但同时其又是蕴含着工艺品所在的社会、自然、历史的文化产物，因此拥有其独创性。虽根据时代和地区所呈现出的样式会各有不同，但韩国工艺在列强的文化影响之下也未被同化，保持着其固有身份，并且维持着以热爱自然、乐观性格为基础的强韧生命力，其特点当中也蕴含着现代性。如此，我们期待随着人们对韩国现代工艺的认知度不断扩展，未来的韩国工艺能够不断呈现时代的变化，同时韩国工艺的独创性与现代性能够充分体现于韩国工艺之中，并在这种发展变化当中维持其固有特点。

**1** 弗雷泽(James George Frazer, 1854-1941)，英国的民俗学者，通过研究来寻找各国文化在其传说和意识中所反复的模式，并验证了人类文化的单一性及共同性。

**2** 心理学博士兼汉城大学艺术学院教授JI Sang-hyun认为，文化原型是理解一个社会文化的核心知识，而文化原型形成于感性基础之上。他以此为依据进行了制作韩国人感性地图的项目，结果表明，韩国人具有同时存有外向与内向特点的特殊感性。『韩国人的心』，社会评论出版社，2011

**3** HAN Yeong-woo，『重读我们的历史』，经世院，2010年修订版，参考p21-43

**4** 四季分明导致温差，由此产生树木的年轮，为了将表现出来，韩国木工艺品没有使用人造的雕塑或漆，而突出树木美丽的纹理，以此呈现自然纯真之美。KIM Dong-woo, PARK Young-kyoo, 『韩国美的再发现－木漆工艺』，松树出版社，2005

**5** KIM Won-lyong认为自然主义是通过韩国传统美术展现出来的，他将其特点总结为“原原本本地看待及重现对象的自然主义”。JO Yo-han, 『韩国美的照明』，悦话堂，2004，参考p53-56, 311-315

## 論考

### 韓国工芸が持つ独自性と現代性についての断想

キム・ジンアシストキュレーター

工芸品が有している文化的な背景知識は、それを鑑賞したり使用したりする人らに対して豊富な美的感性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ようさせる要素のうちの1つだ。特に、素材や技術、そして表現方法等において、韓国の歴史的、環境的、文化的脈絡を有している現代工芸の場合、韓国についての全般的な文化的背景知識は、その作品が有する視覚的要素とともに、基本となる感性まで理解するうえで大きな役割を果たす。著者は、韓国の現代工芸を理解する方法論の1つとして、今回の展示に出展された作品を中心に人文学的な観点からみた文化的原型を把握することから始めた。

スイスの心理学者ユング（Carl Gustav Jung）は、昔、先祖の生活において繰り返されてきた経験の形態の心理的残存物が集団的無意識によって伝えられてきたことを「原型」という用語をもって説明したことがある。ユングの理論を根拠に人類の普遍性を説明する学者<sup>1</sup>もいるが、どうしたわけか、文化的原型は、ある1つの社会の文化を理解するにあたって人文学を減少させる核心的な知識のうちの1つであり、寧ろ、互いに異なる文化の差別性を説明するのに有利な根拠として作用している。<sup>2</sup> 工芸は、人間の蓄積された知恵と経験の所産物であって、それを使用する人と、その人たちの社会の歴史や文化が凝縮されて伝えられる1つの原型とみることができる。また、その原型は、長い間、反復的な経験を通して無意識に伝えられることで、生きた伝統を作っている。

そうであるとしたら、韓国は、どのような独自のな原型を有しており、その原型は現代工芸においてどのように表現されているのか。結論から言うと、韓国の工芸は、長い歴史、環境の特性、韓国人の気質的な特性に根を張り、着実に変化することで、今の姿に至った。そして、その様式的特徴には、対比の強調、幾何学的単純性と抽象的な形態、正直な感情表現等のような現代的表現が位置づいている。よって、本稿では、文化的原型としての韓国工芸が有する独自性を簡単に説明し、その中で反復的な経験を通して獲得し、表出されている韓国の工芸の現代性について私なりの意見を記述することとする。

まず、韓国は、単一民族の歴史を有していることに注目すべきである。日本統治時代36年を除く、異民族による統治がなく、朝鮮民族の歴史が持続した理由は韓国が有する歴史の特殊性にある。韓国歴史学者であるハン・ヨンウ教授は、強大な同化力を有する中国文化の影響と、異民族の侵略によっても主権を奪われず、民族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守ることができたとき、韓国の祖先たちの卓越した知彼知己（意味：敵を知り己を知ること）と法古創新（意味：昔の事を模範にして新しいものを創造する）のバランス感覚が成立したことを説明する。<sup>3</sup> 先進的文化を受け入れると同時に、韓国固有の言語と風俗を守り、そのどこにも同化しない独自のな文化を作ることができるのは、自身をよく知り、新しいものに対する挑戦をおそれていなかったからだ。伝統的な家具の機能

的、概念的変化を図るチェ・ピョンフンは、対比的な材料の質感と形態による緊張感を通して現代性を表現した。ジョン・ヘジョは、赤い漆の抽象的形態を通して絶頂の律動感とベーシックな感覚から始まる想像の根源を伝えており、ソン・デヒョンは、漆工芸の技術的伝統性をそのまま受け継ぎつつも、伝統の文様をバランスよく現代的パターンに再構成し、軽快な律動感を表現した。生活用品に機能性と耐久性を高めることのできる方法を試みるキム・ヒョンジュは、金属と螺鈿という2種類の材料を調和するようマッチさせてモダンな工芸品を制作し、ホン・ソンファンは、ガラスの材料的特性を最大限利用して工芸的表現の拡張を図った。

悠久な単一歴史とともに、韓国工芸は、気候と地形が与える多様性によって、独自性を確保している。韓国の気候は1年に四つの季節が繰り返されるため、人を始め、動物や植物等が非常に強い生命力を有している。また、四季による多様な衣食住文化は、種類も多く機能も多様である。また、周辺国である日本や中国に比べ自然災害が相対的に少なく、楽観的な国民性と、山水の自然を楽しむ文化が発達した。韓国の祖先たちは、自然に人の力を加えるとき、自然の美しさを壊してしまうと信じていたため、韓国の伝統工芸品には自然を模倣したり、自然の実態そのままを表現することが多い。<sup>4</sup> これは、自然を大事にし、自然と自己を同一に見て、自然的観照を尊重する韓国的自然主義にもつながる。<sup>5</sup> Moom jarを作るクォン・デソプは、完璧な比例よりは不完全ではあるものの、人間的なナチュラル感、繊細でありながらも十分に余裕があるという特徴を有する丸い月の形態を通して、韓国のモダニズムを追求した。イ・ガジンは、青磁が有する物性の表現を超え、非物質を物質として再現することで、工芸が表現できる現代性を提示しており、白菜の実質的な形態を作品にそのまま適用したグ・セナは、見慣れた自然物を日常的な秩序から離して美的要素と、見慣れないおもしろさを探した。コ・ヘジョンは、自然物の集積された場面を補足して、これを形成し、今回の展示では、韓国の代表的な樹種である松の木を素材に、小さいユニットの集合による集積美を表現した。イ・スンジェは、伝統の紙花工芸に込まれた先祖の生活の中の知恵と韓国固有の自然観を表現した。

また、韓国は、伝統的に血縁と自然につながっている発達した共同体文化を有しているが、この中にも韓国の工芸の独自のな特徴は補足された。共同体とは、特定の社会的空間において共通の価値と類似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有する人の集団であって、構成員間の関係が緊密で結束力が強い。韓国が相対的に安定した家族制度を維持し、多くの経験を持つ老人を尊敬できるのは、家族共同体の伝統があるからだ。また、地域共同体も必要な伝統であり、互いの経験を共有し、醇風美俗を分かち合うとき、互いに助けるという温かい人間愛が込められている。このような共同体文化の中には、

蓄積された生き方の様式と技術が次世代に伝えられ継承されていく。このように伝えられた様式と技術は、韓国の現代工芸の多様なモチーフのうちの1つであって、重要なものとして扱われている。家族の中にいる大人から学んだ針線技術を維持しているカン・グムソンは、伝統的なパッチワークを再解析して、上品なデザインが目立つ幾何学的パターンの布団を作り、ジョン・スンジュとパク・インスクは、共同体の固有の労働方式である「協業」を通して民話形式の型破った表現をすることで韓国の民衆芸術に新たらしく接近している同時代の工芸を確認させてくれる。キム・ヨンウクは、現代的工芸文化の中で同時代の物として湯呑を提示し、これを通して共同体の中の構成員と有機的関係を結ぶ試みを表現した。

悠久な歴史と四季が明らかな環境的特性、昔のものを基盤として新しいものを創出する韓国人の気質的特性に根を張り、着実に変化している韓国の現代工芸の姿は、「コリアンアートジュエリー」と命名される現在のアクセサリーにおいて最も集約されている。この現代のアクセサリーは、自然の特産素材と韓国の工芸技術が有する歴史に基づき、現代美術の特性として取上げられる対比と強調、単純と抽象等の表現的要素を有する機能的芸術品だ。カン・ミナは、伝統的な服を作る繊維であるカラムシを個人の書史に込める創意的表現の素材として使用して、抽象的構成の形式のアクセサリーを作る。キム・ジェヨンは、玉の伝統的意味と価値を作品の中の自然物に投影して、作家が有する韓国的情緒と自然美学を構成的比例美と幾何学的形態で表現した。イグサ匠人の継承者であるパク・スンドクとキム・ヨンギョンは、協力を通して、イグサという素材の自然的、伝統的観念を超え、現在に続く新しいイグサ工芸の可能性として幾何学的形態のプローチを提示した。パク・イエニムは、無意識的感覚に基づいた自由な形態のアクセサリーを通して、この時代の技術と芸術的表現のための道具として再生させた新しい馬尾毛工芸の可能性を表現した。キム・シンリョンは、古代から受け継がれてきた入糸技法を現代的に変容して、目に見えるものの、実在しない形状を表現するための同時代の言語として使用した。キム・ソンヨンは、図式化された文様表現に使用されてきた打出技法を自然物の細部描写技法で変容させることで、韓国の工芸の伝統が時間を経て、また別の姿で生きている事実を示した。イム・ジョンソクは、フィリグリー技法（Filigree technique）を立体的な造形技法に変容して、昆虫を作り、この微々たる存在を好奇心の対象へと引き寄せ観察を凶った。木彫造匠人の継承者であるジョン・ウンボクと、チョ・ソンホは、協業を通して木の特徴と手が有する記号的要素を卓越にマッチさせて、手に関する豊富な表現を行った。

上記にて韓国の工芸が有している独自性とこのような文化的原型を背景に創作された工芸作品の様式的特徴を＜韓国工芸展―技の芸術＞において紹介する作品を中心に簡単に説明した。工芸は、世界各国に存在する普遍的な物であるが、同時にそれが存在している社会、自然、そして歴史が込められている文化の所産物であって、自分なり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有しているのは確実である。また、時代や地域によって様式の差はあるものの、列強の文化に簡単に同化されず、自身のアイデン

ティティを維持し、自然にやさしく、楽観的な気質に基づいて生命力を維持する韓国の工芸の特質の中に、明らかに、現代性が位置づいていることも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このような韓国の工芸の独自性と現代性が、確定された認識と、多変化した媒体をつないていく未来の韓国の工芸の中で持続的に受け継がれ、さらに堅固な固有性を獲得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と期待する。

**1** ジェームズ・ジョージ・フレイザー(James George Frazer, 1854-1941)、イギリスの民族学者、各国の多様な文化が有している伝説や儀式の中で繰り返されているパターンを追跡する研究を通して、人類文化の単一性、共通性を立証する成果を得た。

**2** 心理学の博士であり、漢城大学校芸術大学教授のジ・サンヒョンは、文化的原型をある1つの社会の文化を理解する確信知識であり、この文化的原型は、感性の基本の上に形成されているとみている。これを根拠に韓国人の感性地図を作るプロジェクトを行い、その結果、韓国人が、外向性と内向性を同時に持つ特異な知的感性を有しているという結論を出した。『韓国人の心』、社会評論、2011

**3** ハン・ヨンウ、『再び探る韓国の歴史 (다시 찾는 우리역사) 』、ギョンセウオン、2010年全面改訂版、P21~43参考

**4** 四季は明瞭であり、気温差により生じる年輪は美しい模様の木目を形成し、韓国の木工品には人為的彫刻や漆の代わりに木目を生かして自然で純粋な美しさを表現しようとした。キム・ドンウ、パク・ヨンギョ『韓国美の再発見-木漆工芸』、ソル出版社、2005

**5** キム・ウォンリョンは、自然主義が韓国の伝統美術全般にわたって示されていると把握し、「対象そのままを把握して、再現しようとする自然主義」として特徴が形成されたと述べた。ジョ・ヨハン、「韓国美の照明」、悦話堂、c、2004、P53~56、311~315参照

## ARTICLE

### A Thought on the Identity and Modernity of Korean Craft

KIM Jin-ah Assist Curator

The cultural background knowledge of crafts is one of the factors that can make people who appreciate or use them feel a rich aesthetic sensibility. Especially for contemporary craft that holds the historical, environmental, and cultural contexts of Korea in terms of materials, techniques, and the methods of expression, comprehensive knowledge of the cultural background for Korea would clearly play a great role in understanding the visual elements of the artwork along with the underlying sensibility. As one of the methodologies to understand contemporary Korean craft, this writing starts by understanding the cultural archetyp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manities centered on artworks displayed in this exhibition.

Carl Gustav Jung, a Swiss psychiatrist, explains the “archetype” as a concept in which the psychological remains from the repetitive experiences of ancestors have been passed on in the form of collective unconsciousness. Based on the theory of Jung, some scholars explain about the universality of humans,<sup>1</sup> but it can rather serve as a reasonable ground to explain the differences of many cultures since a cultural archetype can be one of critical knowledge that the humanities could offer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one society.<sup>2</sup> As the fruits of accumulated wisdom and the experiences of humans, crafts can be considered an archetype in which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people who use them and their society is condensed and inherited by the next generation. Such an archetype is unconsciously passed on to through repetitive experiences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creates a living tradition.

Then, does Korea have a unique archetype, and if so, how is it expressed in contemporary craft art? Eventually, Korean craft has been consistently changing based on a long history,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the temperament of the people, and has established itself as it is today. Its style takes on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ist expressions such as an emphasis of contrast, geometrical simplicity, abstract shape, and open statements of emotion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briefly review the identity of Korean craft as a cultural archetype and discuss the modernity of Korean crafts obtained and expressed through repetitive experiences within it.

First, it shall be noted that Korea has a history of being a racially homogeneous nation. Except for 36 years under Japanese rule, the fact that the history of the people has continued without control by other nations is a special characteristic of Korean history. Professor Yeongwu Han, a Korean historian, said that the reason Korea could keep an ethnic identity without losing sovereignty despite the influence of Chinese culture of which the power of assimilation was enormous and frequent invasions by other

countries was an excellent sense of balance of “Know thy enemy and know thyself” and “Create what is new following the examples of the past.”<sup>3</sup> The reason Koreans could create an independent culture that was not assimilated into anything by maintaining a unique language and customs while adopting advanced cultures was that Koreans knew themselves and were not afraid of taking up a challenge. Byung-hoon Choi, pursuing changes of functions and the concepts of furniture, shows modernity through tension created by contrasting materials and shapes. Hae-cho Chung tells a story about the origin of creation caused by a culminate rhythmical sense and primitive sense through an abstract shape of red lacquerware. Dae-hyun Shon keeps the traditional techniques of lacquerware craft while expressing a pleasant rhythmical sense by re-constructing conventional patterns as balanced modernistic patterns. Hyun-ju Kim considers how to increase the function and durability of daily living items and creates modernistic crafts by harmoniously matching two materials, metal and mother of pearl. Sung-hwan Hong makes the best of the characteristics of glass as a material and pursues expanding the scope of the expression of craft.

Combined with a long history, diversity provided by the climate and topography of the country has also helped Korean craft develop its own identity. Since Korea goes through four seasons every year, humans, animals and plants all have strong vitality. Cultures regarding food, clothing, and shelter are various and have different functions depending on the seasons. Also, the number of natural disasters is less than that of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so Koreans have gained positive characteristics and developed the culture to enjoy the natural surroundings of the mountains and waters. Korean ancestors believed that when an artificial element was added to nature, the beauty of it would be damaged, so many expressions on traditional Korean craft replicate nature or directly reveal it.<sup>4</sup> Such an attitude leads Korean naturalism to cherish nature, identify nature with the self, and respect natural meditation.<sup>5</sup> Dae-sup Kwon, the artist of the moon jar, pursues Korean modernism through the shape of the round moon, imperfect, subdued, yet characterizing humane naturalness and the complete relaxation instead of perfect symmetry. Ka-jin Lee goes beyond the physical properties of celadon, and embodies non-material properties in materials, suggesting a potential for modernism in craft. By adopting a real shape of the napa cabbage for the work, Se-na Gu looks for aesthetic elements and fun created by strangeness as she removes a familiar natural object from its original environment and the daily order. Hye-jeong Ko captures a scene of the accumulation of natural objects and embodies it in her works. For this exhibition,

the artist takes the pine tree, a representative species of Korea, as a subject matter and displays the beauty of accumulation created by gathering small units. Soon-jae Lee expresses the wisdom of the life of the ancestors and a unique Korean outlook on nature held in traditional Korean paper craft.

Besides, Korea has a community culture traditionally developed based on kinship and regionalism, from which the unique characteristics Korean craft are discovered. A community is a group of people who share common values and similar identities in a certain social space: relationships among the members are close and solidarity is strong. Due to the tradition of the family community, Korea could maintain the relatively stable family institution and seniors could be respected. Also, a local community, another important tradition, holds warm humanity that shares experiences and beautiful and fine customs with each other and helps one another at difficult times. In such a community culture, the accumulated lifestyles and techniques ar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and continue, which then are treated as one of the various motifs in modern Korean craft. Geum-seong Kang who learned needlework from adults in the family re-interprets a quilt and creates the quilt with geometrical patterns with a subdued design. Soon-joo Jeong and In-sook Park break the rules of the folk painting by “collaboration,” which is a unique type of labor in a community, and take a new approach to Minjung art (a South Korean political and populist art movement, established in 1980). Young-ock Kim presents a teapot as a contemporary object in the modern craft culture, through which she makes the effort to build organic relationships with members of the community.

The scene of the contemporary Korean craft—consistent changes founded on a long history, the environmental features from the four distinct seasons, Korean temperament that creates what is new based on what is old—is most evidently illustrated in contemporary accessories also known as “Korean art jewelry.” These contemporary accessories, based on local specific materials and the history of Korean craft techniques, are functional artworks equipped with the expressive elements of contrast, emphasis, simplicity, and abstractness that are discussed as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t. Mi-na Kang adopts the ramie fabric that has traditionally been used to make clothes, as a subject matter for creative expression which delivers a personal narrative. Jae-young Kim reflects on the traditional significance and values of jade to the natural objects of the work, showing the artist’s Korean sentiment and aesthetics on nature in a constructive proportion and geometrical shapes. Sun-dock Park, who has completed the training course to be a master of objects made of rushes, and Yeo-kyung Kim go beyond the regional and traditional concept of the rushes and present a brooch in a geometrical shape as potential for a new rush craft leading to the present day through their collaboration. Ye-nim Park displays the potential for a new horsehair craft renewed as the means for modern technology and artistic expression by creating an

accessory in a free shape based on an unconscious sense.

Shin-lyoung Kim transforms inlaying lines, a decorative technique passed on from the ancient times, in a modernist way and uses it as a contemporary language to express a shape that is non-existing but still visible. Sun-young Kim converted the beating technique that is used to express standardized patterns to a technique that depicts the details of a natural object, implying that the tradition of Korean craft is very much alive and eager to take on other aspects as time passes. Jong-seok Lim uses a technique for filigree in a different way to create three-dimensional bugs, and makes these trivial beings an object of curiosity, leading the viewers curious observations. Woon-bok Jeong, who has completed a training course to be a master of wooden sculpture, and Sung-ho Cho display rich expression on the hands by excellently matching the characteristics of wood and the symbolic factors of the hands through their collaboration.

Thus, the identity of Korean craft art and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craft works created based on the background of such cultural archetypes are briefly reviewed centered on the artworks exhibited in “Korea Crafts-The Art of Workmanship.” Crafts are universal objects that exist over the world, but at the same time, it is explicit that they have their own uniqueness as the outcomes of culture that holds society, nature and the history of each region. Moreover, despite differences in styles depending on periods and regions, it is clarified that Korean craft, which has maintained its identity without being assimilated to the cultures of the particular powers and maintained vitality based on natural openness and positive traits, has modernity in its characteristics. It is expected that such an identity and modernity could be maintained and in turn acquire greater uniqueness for future Korean craft in which awareness will be expanded and media more diversified.

**1** James George Frazer (1854-1941), a British folklorist. Through the study to search for repetitive patterns in legends or the rituals of the various cultures of different countries, he proved the unity and commonness of human culture.

**2** Sang-hyeon Ji, a PhD in psychology and a professor at the Art College, Hansung University, said that a cultural archetype is the core knowledge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society and this cultural archetype is founded on sensibility. Based on this, he implemented a project to create a sensibility map, and concluded that an emotional topography of Koreans is unique in that extraversion and introversion co-exist. 『The Mind of Korea』 Criticism on society, 2011

**3** Yeong-wu Han, 『Korean History, Rediscovered』 Gyeongsewon, 2010, Full revision, refer to p. 21-43

**4** Growth ringing created by the distinct temperature differences among the four seasons forms the beautiful grains of patterns and the woodcraft works of Korea express the natural and pure beauty displaying the grain of the wood instead of artificial sculptures or paintings. Gong-wu Kim, Yeong-gyu Park, 『Rediscovery of Korean Beauty-Woodcraft』 Sol Publisher, 2005.

**5** Won-ryong Kim understood that naturalism appears over comprehensive traditional Korean arts and stated that its features are “to understand and represent an object as it is.” Yohan Jo, 『Shedding light on Korean Beauty』 Yeolhwadang, 2004, refer to p53-56, 311-315

부록

附錄

付録

Appendix

**전시공간 해설 展示空间 讲解 展示空間 解説 COMMENTARY FOR EXHIBITION SPACE**

임태희 공간 디자이너

임태희 室内装饰 设计师

イム・テヒ インテリアデザイナー

LIM Tae-hee Interior Designer

**한국전통공예 개설 韩国传统工艺 概说 韩国伝統工芸 概論**

**Introduction to Korean Traditional Crafts**

한국전통공예의 소재와 기술

韩国传统工艺材料及技术

韩国伝統工芸の素材と技術

Materials and Technology of Korean Traditional Craft

## 강릉올림픽파크 전시공간 디자인

임태희 공간디자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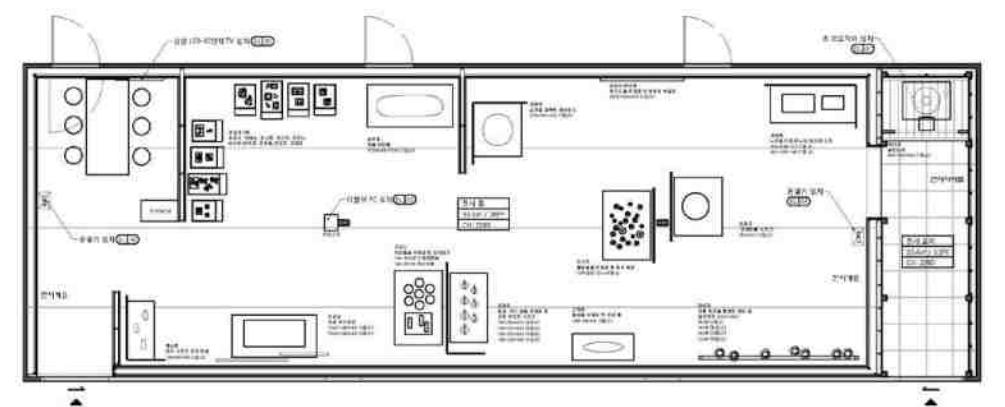
평창 동계 올림픽 전시의 공간 디자인을 맡으면서 생각의 출발점이 된 것은, 다름아니라 전시장의 장소성에 관한 것이었다. 강릉 빙상경기장 앞 행사 구역 안에서 열리게 된 이번 전시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나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었다.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협소하고 낮은 천정고는 둘째 치고,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K-팝 등의 공연 무대가 전시장 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들썩이는 흥과 열기 속에 문 하나를 경계로 전시장의 공기감을 어떻게 차분하고 평화롭게 만들 것이냐가 가장 어려운 고민이었다. 언제나 어려운 일들은 매우 작고 친근한 주변의 것으로부터 스르르 풀리기 마련이듯, 올림픽이 열리는 이 곳이 한국이라는 점 그리고 올림픽 정신을 생각하자, 공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길잡이가 되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은 멈춤의 공간보다는 움직임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대문에서 사랑방, 마당을 거쳐서 안채까지 사람은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보이는 풍경을 새삼 다르게 하기도 한다. 전시장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전실을 통해야지만 전시장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이 공간에서는 전시장의 전경을 볼 수가 없다. 시끄러운 공연장에서 전시장으로 들어와 나의 마음을 가지런하게 할 시간과 공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무 소재로 만들어진 전실을 건다 보면 전시를 예고라도 하듯이 달항아리가 하나 달빛에 놓여 있고, 방향을 틀어야만 비로서 전시장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다. 전시를 보고 나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시장의 여운을 간직한 채 방향을 틀어서 걸어야만 비로서 전시장 문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걷는다"는 관점에서 작품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전시는 강제 동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선택에 따라서 걸을 수 있게 동선을 계획하였다. 걸으면서 보이는 풍경들이 각기 다르듯, 작품에 따라 높낮이, 크기가 다르게 계획되었던 전시대와 작품을 조우할 수 있다.



스포츠 정신은 새삼 나에게 구체적인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그 중 하나가 많은 노력을 하되 과장하지 말 것, 그러나 결과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선수들은 기량을 닦기 위해서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과 노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경기후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와 변명이 필요 없다. 공간을 디자인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어진 상황에 가장 진실된 나의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의 시간과 노력을 반복하되 결코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을 하게 되었다.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겠다고 생각하자, 전시의 주인공인 작품이 공간에서 어떻게 보이고 관객들과 만나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었다. 넓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작품이 놓여질 전시대는 가장 단순한 형태를 취하되, 작품 하나 하나가 마치 개인전을 하는 전시처럼 소중하게 작품을 다루기로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정하였다. 그러자, 작품은 함부로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관람객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접점을 가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각기 다른 형태와 크기와 소재를 결정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크지 않았지만, 이 곳에 들어 온 관객들의 "여기에 들어 오면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 같다."라는 뒷이야기는 참으로 큰 용기를 주었다. 한국과 스포츠 정신, 이 두 가지 관점은 평창 올림픽 전시 이후에도, 나의 앞으로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 江陵奥运公园 展览空间设计

IM Tae-hee 空间设计师

自从我开始接下平昌冬奥会展示空间的设计工作，首先开始考虑的就是展馆所处的地点问题。本次展示的位置处于江陵冰上体育场前面的活动区内，对于设计空间的我来说，这实在是一个难题。作为展示空间来说，暂不去说狭小的空间和过低的天棚问题，最让我担心的就是展馆的门前就是K-POP等表演舞台。在兴致勃勃的热潮之中，仅隔着一个门，怎样才能使展馆里的空气变得宁静祥和，这成了我最大的苦恼。然而就如最难的问题也总是会从平凡无奇的小事开始渐渐缓解，无需过多担心就可自行解决，同样，考虑到举办展示的地方是韩国，再想到奥运精神，对于空间的设置我逐渐有了一些头绪。

提到韩国的传统空间时，我觉得与静止的空间相比，更多想到的是移动的空间。从大门到厢房，再穿过院子进入内屋，人们经过这样的移动使心情变得宁静，映入眼中的风景也让人感受不同。打开展馆的门走进来，必须经过前室才可进入展馆内部。在这一空间中，是无法看到展馆全景的。因为我认为，从熙熙攘攘的演出场所走入展馆，需要一个时间和空间使我们的心情沉淀下来。走在树木材质做成的前室，月光下放着一个月亮缸，宛如预告展示即将开始一般，此时必须调转方向才可进入展馆之内。欣赏展示后要走出去时也是如此，必须将展馆的韵味铭记在心，再次调整方向才可走出展馆。须从游客“行走”的观点来决定作品的摆放位置，但展示所设计的也并非一个完全强制性的线路，我们设计了根据几个选项可进行行走的线路。行走时所欣赏到的风景各不相同，同样，根据各个作品的特点，使用了高度与大小不同的展台。



此外，体育精神给我带来了很多的智慧，其中之一就是尽自己的最大努力，但不过分夸张，并且淡然接受努力的结果。选手们为了提升自身实力，会不断接受训练，付出无尽的努力，但对于比赛后的结果，他们不做任何辩解，也不为自己找任何借口。想到这里，我觉得空间设计的工作也是如此。我想到，要在有限的环境中为了找出最真实的答案而不断付出时间和努力，但同时也不应过分夸张或掩饰，带着这种想法，我开始推进具体的空间设计工作。也正是出于这种想法，我开始思考怎样在这一空间中展示的主人公——作品凸现出来，怎样让作品与游客相遇。由于空间并不宽敞，因此摆放作品的展台须采取最单纯的形状，同时我也决定，要使每一件作品如同单独进行展示一样，凸显出其宝贵价值。这样一来，就不是随便地去摆放作品，而是在空间与游客的相遇及关系之中营造摆放作品的节点，也由此决定了不同形状、大小、材料的作品摆放。

从结果上来看，也许一眼望去并没有发现十分耀眼的成果，但听到游客说“来到这里后感觉心里变得宁静了”时，我获得了很多的勇气。韩国与体育精神，在平昌奥运展示过后，我相信这两方面依然会给我今后的生活带来诸多影响。





## 江陵オリンピックパーク展示空間デザイン

イム・テヒ 空間デザイナー

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展示空間デザインを担当し、制作のアイデアの出発点になったのは、他でない展示場の場所の特徴であった。江陵市のアイスリンクの前に位置する行事区域内で開かれる今回の展示は、空間をデザインする私としては、本当に難しい宿題であった。展示空間として使用するには、狭くて低い天井の高さはさておき、最も悩んだのはK-POP等の公演等が展示場の前で行われるということだった。揺れ動く感興と熱気の中で、門1つを境界として展示場の空気をどのように穏やかに、かつ、平和に作るかが最大の悩みであった。いつでも難しい問題は、非常に小さく身近にあるものによって簡単に解けるように、オリンピックが開かれるこの場が韓国であること、そして、オリンピックの精神を考えることが、空間の方向を提示するカギとなったのである。

韓国の伝統的な空間は、滞留空間よりは行動空間であると考えた。正門から広間、庭を経て母屋まで人は動き、動きながら気持ちを整えたり、見える風景を新しく異なるようにしたりもする。展示場は、門を開けて入ると、前室を通ってはじめて、展示場内部に入場す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この空間では展示場の全景をみることができず、賑やかな公演場から展示場に入るため、自身の気持ちを整える時間と、空間的装置が必要であると考えた。木の素材により作られた前室を歩いてみると、展示を予告するかのように1つのmoon jarが月の光に置かれており、そこから方向を変えることで、展示場の中に入ることができる。展示を見終わってから出るときにも、同様に、展示場の余韻を心に秘めたまま、方向を変えて進むと、展示場の門をくぐりぬけることができる。そのために、来場客が「歩く」という観点から作品の位置を決めた。展示は、強制動線だけがあるのではなく、いくつかの選択によって歩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動線を計画した。歩けば見えてくる風景がそれぞれ異なるように、歩くことで高低をつけ、大きさが異なるように計画された展示台に置かれた作品に遭遇することができる。



スポーツ精神は、今になって私に具体的な多くの知恵を教えてくれた。そのうちの1つは、たくさんの努力はするが、やりすぎないこと、そして、もう1つは、結果はそのままを受け入れることだ。選手は技を磨くために訓練という過程と、努力を前提とする。しかし、競技後の結果に対しては、言い訳や弁明せずそのままを受け入れる。空間をデザインすることも同じであると思う。与えられた状況に最も合った私なりの答えを探するための努力の時間と、努力を繰り返し、決してやりすぎたり、飾りすぎではならないという考えから、具体的に作業することとなった。さらに、展示の主人公である作品が空間でどのように見え、どのようにして観覧者と出会うべきか悩むようになった。その結果、それぞれ異なる形態、サイズ、そして素材を決めることができた。

結果、目に見える成果は大きくなかったが、この場に入ってきた観客の「ここに入ると、なぜか心が安らぐ」という言葉が本当に大きな勇気を与えてくれた。韓国とスポーツ精神、この2つの観点は、平昌オリンピック展示以降も、私の今後の生き方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るものとする。



## Exhibition Design for Gangneung Olympic Park

Taehi Im, Exhibition Hall Designer

My starting point of thinking, when I was commissioned to design the exhibition hall for the PyeongChang Olympic Winter Games, was no other than the placeness of the exhibition hall.

It was such a difficult challenge for me to design the hall for the exhibition was planned to be held within the event district in front of Gangneung Curling Centre. That meant that the performance stage for K-POP and others was to be located directly in front of the door of the exhibition hall, let alone considering the narrow space and low ceiling. Therefore, how to create a calm and peaceful atmosphere within the hall was the most serious problem I faced when you had only a door to block the excitement and fervor of the performances from entering the hall. As a difficult problem can always begin to be solved from very small, familiar surrounding things in itself, the fact that the place where the Olympic Games would be held was here, Korea, and of course, the spirit of the Olympic Games served as a guide to provide a suitable direction for the space.

A traditional Korean space is thought of not as a space for stopping, but a space for moving. From the front gate to the husband's room through the yard till the wife's room, people continue to move while calming their minds or looking at scenes from different viewpoints. After opening the door, you could only enter the inside of the exhibition hall through the front room where you were unable to see the whole view of the exhibition hall. I thought a temporal and spatial tool would be most suitable for people to calm their minds after escaping from the noisy performance hall. As you walk through the front room made of wood, the moon jar placed under the moonlight comes into



view, and only when you change your direction, can you enter the exhibition hall. Likewise, as for the exit, only after can you then leave the hall through the door. Where to place the artworks was decid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ewers' "walk." The traffic lines were planned not to be in one mandatory direction, but in a couple of directions that could be chosen. As each scene you look at while walking could be different, you could encounter exhibition stands and artworks designed in different heights and sizes depending on the works.

The spirit of sport taught me a lot about specific wisdom again. One of the lessons was that you should make the best endeavor but should not exaggerate, and accept an outcome for a composed mind. Athletes regard the process of training and effort as the prerequisites to develop their abilities. However, as for the outcome, there is no need to find any excuse or justification. I thought it was same for designing a space. Under the circumstances, I had to continue with my efforts to discover the most earnest answer, while also working on a specific process from an idea that I should neither exaggerate or embellish. Once I decided not to exaggerate or embellish, I started to think over how the artworks, essentially the main characters of the exhibition, should be viewed in this space and how they would assimilate with the viewers. Since it was not a large space, I felt that the stands for the artworks should be as simple as possible. I also decided each artwork should be preciously handled as if it were for a solo exhibition. Then, it occurred to me that artworks were not to be randomly placed, but may find a point of contact in the relationships with the space for the viewers to encounter. Thus, I chose different sizes and materials for each work.

Even though it was not a breathtaking success, when I heard the stories that viewers said they somehow felt their minds eased with a sense of calm when they entered the hall encouraged me greatly. Korea and the spirit of the Olympic Games will undoubtedl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later on in my life after the PyeongChang Olympic Games Exhibition.



한국 전통공예의 소재와 기술

韓國傳統工藝的材料和技術

韓國傳統工藝の素材と技術

### Materials and Technology of Korean Traditional Craft



모시 두루마기, 1950년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苧麻袍, 1950年代, 国立民俗博物館藏  
モシのトゥルマギ、1950年台、  
韓国国立民族博物館所長  
Ramie durumagi, 1950s, Collection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모시**는 모시풀의 속껍질을 가늘게 찢개어 실을 만들고 이 실을 베틀에 올려 짠 것으로,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특성 때문에 주로 여름철 옷을 짓는데 사용된다. 조선시대부터 많이 제작된 모시 옷은 남녀구별 없이 착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모시 두루마기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 입었던 겉옷으로 여름에 즐겨 입는 한국 고유의 의상이다.

**苧麻**是将苧麻叶的内壳磨得细碎后做成线，再将线放到织布机上织成的，具有轻薄、通风好的特点，因此一般用来做夏季衣物。自朝鲜时代起，人们就做出了很多的苧麻衣物，男女老少均可穿着。而其中苧麻袍是正式场合下人们常常穿的外套，也是传统的夏日韩国服装。

**モシ (カラムシで織った布)** は、カラムシの内皮を細く割いて糸を作り、この糸を手織り機で編んだものであって、軽くて風通しがよいという特性を有するので、主に夏服を仕立てるのに使われる。朝鮮時代から多く仕立てられたモシの服は、男女区別することなく着用することができた。その中でも韓国伝統衣装モシのトゥルマギは、フォーマルな装いのために着用していた上着で、夏によく着る韓国特有の衣装である。

**Ramie** is woven using a loom with threads made from splitting the inner skins of ramie grass. It is mostly used in making summer clothes because of its light weight and breathability. Ramie clothing was worn by both men and women since the Joseon Dynasty (1392-1910). Among such clothes, the ramie durumagi, traditional Korean overcoat, was Korea's original formal clothing worn in the summer.



완초 함, 1950년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菴草盒, 1950年代, 国立民俗博物館藏  
イグサの箱、1950年台、  
韓国国立民族博物館所長  
Rush box, 1950s, Collection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완초**는 습지에서 자라는 풀의 일종으로, 찌서 말리게 되면 부드러우면서도 질기고 가벼워지는 특성이 있다. 신라시대부터 함이나 바구니, 돛자리, 방석 등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고려시대의 주요한 수출품이기도 하였다. 화려한 꽃이나 기하학, 복을 비는 내용의 글자 문양 등으로 장식된 완초 공예품들은 귀족부터 서민까지 모든 백성들이 즐겨 사용하였다.

**菴草**是一种生长于湿地的草，将其蒸过后晾干，即可变得轻柔而有韧劲。从新罗时代开始就广泛用于制作盒子、筐子、垫子、坐垫，高丽时代还成为了主要的出口产品。菴草工艺品以华丽的花、几何图形及祈福内容的文字模样为装饰，深受贵族及平民百姓的喜爱。

**イグサ**は、湿地で育つ植物の一種であって、蒸して乾かすと、柔らかくて丈夫であり、かつ、軽い特性がある。新羅時代から箱、ざる、莫蔭、座布団等を作って使用し、高麗時代の主な輸出品でもあった。可憐な花や、幾何学的、福を願う内容の文字模様等で装飾されたイグサの工芸品は、貴族から庶民まで、全国民が親しみをもって使用した。

**Rush** is a type of grass usually grew in wetlands, which becomes light, soft and tough at the same time after steaming and drying. It was mainly used in making boxes, baskets, mats and cushions since the Silla period (BC 57-935), and was also a major export item during the Goryeo Dynasty (918-1392). All people ranging from the nobility to the working class enjoyed rush crafts, decorated with colorful flowers, geometric patterns or letter patterns wishing for good fortune.



갓(흑립),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장  
 纱帽(黑笠), 朝鮮時代, 国立民俗博物館藏  
 カッ(笠子帽)、朝鮮時代、  
 韓国国立民族博物館所長  
 Gat (heungnip), Joseon Dynasty,  
 Collection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말총**은 말의 갈기나 꼬리털을 자른 것으로, 가볍고 섬세하며, 약간의 신축성이 있어 붓, 악기의 활, 또는 머리에 쓰는 관모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특히 말총으로 만들어진 전통 모자인 갓(흑립)과 망건, 머리띠인 탕건 등은 조선시대 성인 남성들이 사용했으며, 외출하거나 의례를 갖출 때 착용했다.

**马尾**是将马的鬃毛或尾巴上的毛剪下来做成的，具有轻便、细腻的特点，多用于制作有些许弹性的毛笔、乐器的弓、戴在头上的官帽。特别是用马尾制成的传统帽子——纱帽（黑笠）以及网巾、用作发带的宕巾，这些都是朝鲜时代男性外出时或出席正式场合时佩戴的。

**馬尾毛**は、馬のたてがみや尻尾の毛を切ったものであって、軽くて繊細で、若干伸縮性があるので、筆、弦楽器の弓、又は頭にかぶる官帽の材料として使われた。特に、馬尾毛で作られた伝統の帽子であるカッ（笠子帽）、マンゴン（綱巾）、タンゴン（宕巾）等の朝鮮時代の成人男性らが使用し、外出又は儀礼をする際に着用した。

**Horsehair** from horses' mane or tail were used as materials in making brushes, bows for musical instruments or official hats because of its light weight, delicate feel and slight elasticity. Korean traditional black hat (or Gat) Heungnip, horsehair-woven headband manggeon and tanggeon were worn by men outdoors or as formal wear in the Joseon Dynasty (1392-1910).



영친왕비 백옥수자문떨잠, 조선시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英親王妃白玉壽字文簪, 朝鮮時代, 国立故宫博物館藏  
 英親王妃(李方子)の白玉壽字紋のかんざし、  
 朝鮮時代、韓国国立古宮博物館所長  
 Jade Hairpin with Chinese character 壽: meaning  
 longevity decorations used by the consort of imperial  
 prince Yeongchin, Joseon Dynasty, Collection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옥**은 불투명한 광물을 자르고 갈아서 만든 보석의 일종으로, 백색, 녹색, 황색, 적색 등 다양한 색을 띠며, 가공이 쉽고 오래 보존된다는 특징이 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장신구의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귀한 것으로 여겨 왕이 사용하는 도장을 옥새, 왕이 앉는 의자를 옥좌라고 부르는 등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였다.

**玉**是将不透明的矿物切割后磨制成的一种宝石，有白色、绿色、黄色、赤色等不同颜色，具有易加工、保存时间长等特点。从三国时代之前起，玉就广泛用作了制作装饰品的材料，并被看作具有宝贵价值，因此王所使用的印章均做成玉色，王所坐的椅子也成为“玉座”，玉成为了权力与身份的象征。

**玉**は、不透明な鉱物を切断して研いで作った宝石の一種であって、白色、緑色、黄色、赤色等、多様な色を結んで、加工が容易で長く保存できるという特徴がある。三国時代以前からアクセサリーの材料として最も多く使用されており、貴重なものとして扱い、王が使用する印を玉璽、王が座る椅子を玉座と呼ぶ等、権威を身分を象徴した。

**Jade** is a type of jewelry made from cutting and smoothing an opaque mineral. It can be found in different colors such as white, green, yellow, red shades. It is easy to process and can be preserved for a long time. Jade was mostly used as materials in jewelry even before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of Korea (4C-7C). It was considered precious and it symbolized authority and status, as can be seen in the names calling the King's seal Oksae ("imperial jade seal") and the King's throne Okjwa ("jade seat").



목조삼존불감. 국보 제42호, 통일신라시대, 순천 송광사 소장  
 木造三尊佛龕, 国宝第42号, 统一新罗时代, 顺天松广寺藏品  
 木彫三尊仏龕、国宝第42号、统一新羅時代、順天松広寺所長  
 Shrine of Wooden Buddha Triad, National Treasure No. 42,  
 Unified Silla period, Collection of Songgwangsa Temple,  
 Suncheon

**목조각 기법**은 나무를 깎아 불상 및 불교용품 등을 제작하는 기술로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된 이후 불상조각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나무가 가진 질감을 살려 양감 있게 조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상 조각 뿐만 아니라 장승, 솟대, 탈(가면) 등 민간 신앙과 공연예술 등과 관련된 물건을 제작할 때도 목조각 기법이 활용되었다.

**木雕技法**是将木头削掉，用其制作佛像及佛教用品的技术，三国时代佛教传入之后，以佛像木雕技术为中心的木雕技法得到了长足的发展。其特点是保留木头的质感，雕塑出量感十足的形状。除了佛像木雕之外，木雕技法还用于长生柱、祭杆、面具（假面）等民俗信仰道具以及演出用具的制作。

**木彫技法**は、木を削って仏像や仏教道具等を製作する技術であって、三国時代に仏教が伝えられた後、仏像の彫刻を中心に発展した。木が有する質感を生かして量感があるように彫刻することが特徴である。仏像の彫刻だけでなく、チャンスン(長生標)、ソッテ(長竿の上部に鳥のついた神杆)、タル(仮面)等の民間信仰や公演芸術等と関連する物を製作するときも、木彫技法が活用された。

**Wood carving technique** is a technique used in making Buddha statues and Buddhist items by carving wood. It developed around Buddhist sculptures since Buddhism was introduced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4C-7C). The technique brings to life the texture of the wood and gives an abundant sense of volume. Wood carving technique was used not only in buddha statues but also in making items related to folk religion and performing arts such as Jangseung (Korean totem pole), Sotdae (tall wooden pole), and masks.



청동은입사향완, 보물 제1735호, 고려시대, 양산 통도사 소장  
 青铜银入丝香垵, 宝物第1735号, 高丽时代, 梁山通度寺藏品  
 平壤石岩里金制腰带装饰, 国宝第89号, 1世纪乐浪时代,  
 国立中央博物馆藏品  
 Silver-Inlaid Bronze Incense Burner, Treasure No. 1735,  
 Goryeo Dynasty, Collection of Tongdosa Temple, Yangsan

**입사 기법**은 금속 상감기법 중 하나로, 동이나 철로 된 금속 표면을 쪼아 그 안에 다른 금속을 넣고 두드려 박아서 문양을 새기는 전통기술이다. 금속의 색상대비에 의해 문양이 도드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삼국시대에는 칼이나 마구(말 장식용품)에, 고려시대에는 향로나 정병(淨瓶) 같은 불교용품에, 조선시대에는 장도(호신용 칼), 병, 촛대, 담배합, 해시계 등에 사용되었다.

**入丝技法**是金属象嵌技法当中的一种，是将铜或铁等金属表面凿开后放上其他金属，将该金属敲定进去以刻出形状的传统技术。其特点是与金属形成颜色对比，以此突出金属表面上的形状。三国时代该技术用于制作刀或马具(马的装饰用品)，高丽时代用于制作香炉或净瓶等佛教用品，朝鲜时代则用来制作佩刀(护身用刀)、瓶子、烛台、烟草盒、日晷等。

**入絲技法**は、金属象嵌技法のうちの1つであって、銅や鉄からなる金属表面を晒し、その中に他の金属を入れて打ち込んで、紋様を刻む伝統技術である。金属の色相対比により紋様が目立つことが特徴である。三国時代には刀や馬具(馬の装飾用品)に、高麗時代には香炉や淨瓶のような仏教用品に、朝鮮時代には小刀(護身用刀)、瓶、燭台、タバコ盆、日時計等に使われた

**Ipsa technique** is a type of metal inlaying technique, which is a traditional technique that engraves patterns on the surface of metal (usually copper or iron) by carving the surface and hammering other metal in the carved area. Its patterns stand out by forming a different color compared to the base metal. The technique was used in making knives or harnes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4C-7C), Buddhist items such as incense burner or Jeongbyeong (pure water bottle) during the Goryeo Dynasty (918-1392), and Jangdo (knife for self-defense), bottle, candlestick, cigarette box, sundial during the Joseon Dynasty (1392-1910).



평양 석암리 금제 허리띠장식, 국보 제89호, 1세기 낙랑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平壤石岩里金制腰帶裝飾, 国宝第89号, 1世纪乐浪时代, 国立中央博物館藏  
 平壤石巖里的金製腰帶裝飾、国宝第89号、1世紀樂浪時代、韓國国立中央博物館所長  
 Seokamri Gold buckle of Pyongyang, National Treasure No. 89, 1st Century Nangnang period,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세선 기법**은 장식할 대상의 몸체에 가늘게 꼬은 금속선을 붙여서 섬세한 무늬를 표현하는 금속 세공기술 중 하나이다. 금 알갱이를 이용한 누금 기법과 함께 사용되며, 화려한 문양표현이 특징이다. 신라시대 때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이 완성되는데, 금관, 귀걸이, 허리띠 등 장신구에 많이 사용되었다.

**累丝技法**是细工技术之一，在装饰对象上用细细的金属线勾勒出细致的花纹来。特点为其与使用金粒的缕金技术一同使用，具有华丽的形状。新罗时代的技术水平达到高峰，多用于制作金冠、耳环、腰带等装饰品。

**フィリグリー技法**は、裝飾する対象の本体に細くてもじれた金属線を付けて繊細な模様を表現する金属細孔技術のうちの1つである。また、金の粉粒を用いた金鏤細工と共に施して、可憐な紋様表現が可能となることが特徴である。新羅時代に最も高いレベルの技術を完成し、金冠、イヤリング、腰帶等、アクセサリーにも多く使われた。

**Seseon(Filigree) technique** is a type of metal crafts technique that expresses the delicate patterns on the metal by attaching a twisted thread of metal on the body of the object. It is used along with granulation technique that decorates using tiny spheres of gold to express ornate patterns. The technique peaked during the Silla period (4C-7C), and was mainly used in decorating golden crowns, ear ornaments, belts, and other jewelry.



은제도금화형탁잔, 보물 제1899호, 12세기 고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銀制鍍金花形托盞, 宝物第1899号, 12世纪高丽时代, 国立中央博物館藏  
 銀製鍍金花形托盞、宝財第1899号  
 12世紀高麗時代、韓國国立中央博物館所長  
 Gilt-silver Wine Cup with Stand, Treasure No. 1899, 12th Century Goryeo Dynasty,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타출 기법**은 정과 망치를 사용하여 기물 안쪽을 두드림으로써 문양을 외부로 돌출 시켜 표현하는 금속 장식기법 중 하나이다. 삼국시대에 등장하여 고려시대 때 크게 유행하였고, 특히 은으로 만든 고부조의 타출 기법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찻잔, 합, 소형 화장도구, 장도집(은장도를 보관하는 휴대용품)과 장신구, 불교용품 등에 이 기법이 사용되었다.

**打出技法**是用钳子和锤子敲打器具内侧，以此将想要诠释的形状凸出于器具外侧的金属装饰技法之一。其于三国时代登场，高丽时代盛行，特别是用银子制作的高凸浮雕技法延续到了朝鲜时代。该技法多用于制作茶杯、盒子、小型化妆工具、佩刀盒（放置银佩刀的随身携带用品）、装饰品、佛教用品等。

**打出技法**は、鑿とハンマーを用いて器の内側を打つことにより、紋様を外部に突出させて表現する金属裝飾技法のうちの1つである。三国時代に登場して、高麗時代に大きく流行し、特に、銀で作られた高彫りの打出技法は朝鮮時代まで続いた。湯飲み、盒（ふたつきの容器）、小型化粧道具、鞘（銀の小刀を保管する携帯用品）、小刀や仏教用品等にこの技法が使われた。

**Tachul(Repoussé) technique** is a type of metal technique in which a metal using chisel and hammer from the reverse side of metal to create embossed patterns. It started during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4C-7C) and was especially popular during the Goryeo Dynasty (918-1392). The technique of high relief repoussé and chasing in silver, especially, was passed onto the Joseon Dynasty (1392-1910). This technique was used in teacups, boxes, small-sized makeup tools, Jangdo case (portable kit to store silver knife), jewelry, and Buddhist items.

## 2018 한국문화삼십지 한국공예전\_기량의 예술

<b>발행일</b>	2018.8.31
<b>발행처</b>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b>발행인</b>	최봉헌
<b>전시주최</b>	문화체육관광부
<b>전시주관</b>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b>공동주관</b>	주중한국문화원 주홍콩한국문화원 주오사카한국문화원
<b>총괄운영</b>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본부장 임미선 공예디자인융합팀 김지원, 강혜원
<b>큐레이터</b>	임미선
<b>어시스트 큐레이터</b>	김진아
<b>연구원</b>	이승미
<b>작품 협조</b>	국립무형유산원
<b>번역</b>	한국번역연구소
<b>감수</b>	손다연 (중국어), 김현숙(일본어)
<b>편집디자인</b>	디자인 락
<b>사진촬영</b>	박우진, 박광춘
<b>사진제공</b>	한국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b>인쇄</b>	SEGA
<b>발행부수</b>	800부

© 2018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본 도록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있으며 도록에 실린 사진의 저작권은 해당 사진가에게 있습니다.

본 도록의 글과 사진은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2층

02-398-7942 www.kcdf.kr

## 2018年韓國文化三國韓國工藝品展\_藝術藝術

<b>発行日</b>	2018. 8. 31
<b>発行处</b>	韩国工业设计文化振兴院
<b>发行人</b>	崔奉炫
<b>展示主办</b>	文化体育观光部
<b>展示主管</b>	韩国工业设计文化振兴院
<b>共同主管</b>	驻华韩国文化院 驻香港韩国文化院 驻大阪韩国文化院
<b>整体运营</b>	韩国工业设计文化振兴院 工艺本部长 林美善 工艺设计融合部 金志爱, 姜惠媛
<b>策展人</b>	林美善
<b>辅助策展人</b>	金真兒
<b>研究员</b>	李承美
<b>出借</b>	國立無形遺産院
<b>翻译</b>	韩国翻译研究所
<b>監修</b>	孫多演(中文), 金鉉淑(日文)
<b>编辑设计</b>	设计樂
<b>摄影</b>	朴友珍, 朴光春
<b>图片提供</b>	韓國文化財財團, 韩国工业设计文化振兴院
<b>印刷</b>	SEGA
<b>发行数量</b>	800份

© 2018 (財) 韩国工业设计文化振兴院

本图册的著作权及使用权归属于韩国工业设计文化振兴院，

图册上的图片著作权所属于相应摄影师。

如未经著作权所有人的书面同意，不得随意使用本图册上的文章及图片。

(財) 韩国工业设计文化振兴院

03060 首尔特别市钟路区栗谷路 53 海影会館 2楼

+82-2-398-7937 www.kcdf.kr

## 2018 日韓中 文化三国志 “韓国工芸展\_技の芸術”

発行日	2018. 8. 31
発行先	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発行者	チェ・ボンヒョン
展示主催	文化体育観光部
展示主観	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共同主管	駐中国韓国文化院 駐香港韓国文化院 駐大阪韓国文化院
総括運営	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工芸本部長 イム・ミソン 工芸デザイン融合チームキム・ジウォン、ガン・ヒェウォン
キュレーター	イム・ミソン
アシストキュレーター	キム・ジンア
研究員	イ・スンミ
作品協力	國立無形遺産院
翻訳	韓国翻訳研究所
監修	ソン・ダヨンジ (中文)、キム・ヒョンスク (日文)
編集デザイン	デザイン楽
写真撮影	パク・ウジン、パク・グァンチュン
写真提供	韓国文化財財団、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印刷	SEGA
発行部数	800部

©2018 (財)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本図録の著作権と使用権は、(財)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にあり、  
図録に掲載された写真の著作権は、当該写真家にあります。  
本図録の文字及び写真は、著作権者の書面の同意なしでは使用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財)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03060 ソウル特別市鍾路区栗谷路53 海影会館 2階

電話番号：+82-2-398-7937

HP：www.kcdf.kr

## The Cultural Records of the Three Country, Korea, China, Japan 2018\_ “Korea Crafts\_The Art of Workmanship”

Publication Date	2018. 8. 31
Publication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Publisher	CHOI Bong-hyeon
Ho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ganizer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Co-organizer	Korean Cultural Center in Korea Korean Cultural Center in Hong Kong Korean Cultural Center in Osaka
Executive Operation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RHEEM Mi-sun, Director of Crafts KIM Ji-won, KANG Hye-won, Craft & Design Integration Team
Curator	RHEEM Mi-sun
Assist Curator	KIM Jin-ah
Research	LEE Seung-mi
Supporter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Translation	Korea Translation Research Institute
Editorial Design	Design Rak(樂)
Photo	CPARK Woo-jin, PARK Kwang-choon
Photo Sources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Print	SEGA
Copy	800 books

© 2018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The copyright and the right of use of this art catalogue belongs to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and the copyright of the photos in this art catalogue belongs to the photographers.  
The content and photographs of this art catalogue cannot be us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er.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2nd floor, Heayeong Hall, 53, Yulgok-ro, Jongno-gu, Seoul, 03060  
+82-2-398-7937 www.kcdf.kr